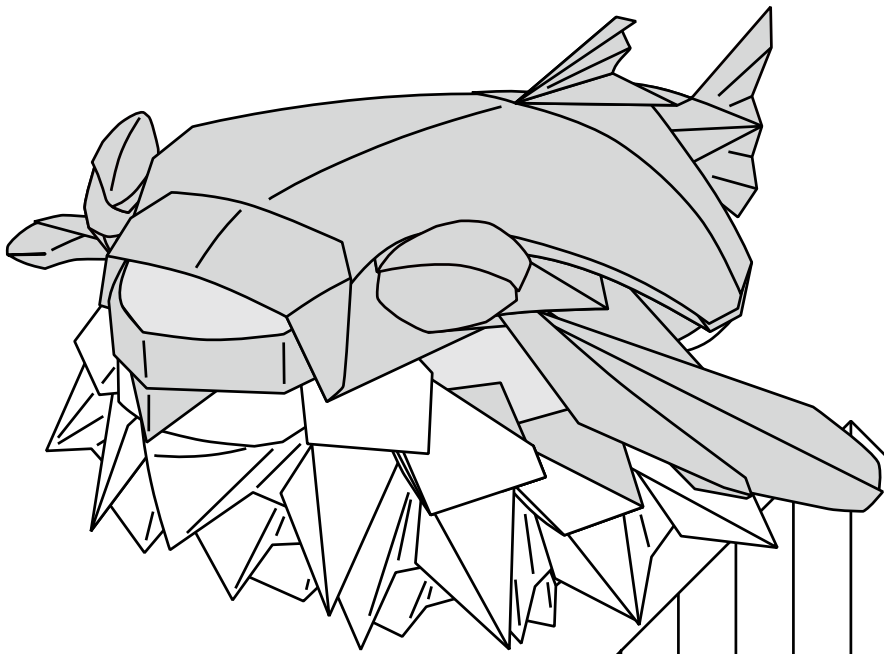


한국종이접기작가그룹 작품집

레종 데트르 2014



JANG yong-ik 2014/02/09

차례

Tabel of contents

초판 1쇄 2014년 6월 26일

작 품 김도울·김세익·유태용·이인섭·장용익
 도면제작 김세익
 편집 김세익
 감 수 오규석
 후 원 한국제지 한국장작종이문화원 (사)전통공예문화원
 발행인 김재열
 발행처 도서출판 아는만큼보이는세상(www.아보세.com)
 등록번호 제313-2011-231호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27-1 4층(용강동)
 전 화 070-4247-8281
 팩 스 02-2179-8401

© 2014 김도울·김세익·유태용·이인섭·장용익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아는만큼보이는세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가격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본문 서체는 네이버 나눔글꼴을 사용하였습니다.
 ※ 네이버종이접기카페(<http://cafe.naver.com/yortapaper>)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19240)

작가 인터뷰 : 김도울 6 page

사슴 / Deer 7 page
 by 김도울 / KIM do-ul

삼선 슬리퍼 / 3-Lined Sleeper 14 page
 by 김도울 / KIM do-ul

작가 인터뷰 : 유태용 22 page

박쥐 / Bat 23 page
 by 유태용 / Yoo tae-yong

작가 인터뷰 : 이인섭 38 page

Life and Death 39 page
 by 이인섭 / LEE in-s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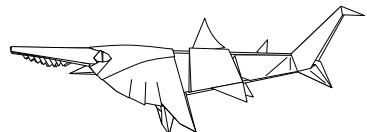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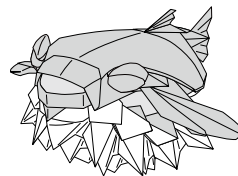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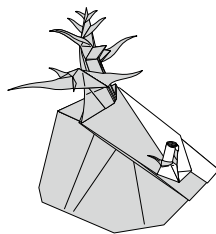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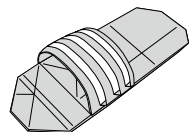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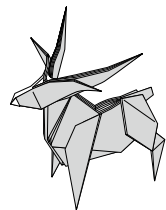
작가 인터뷰 : 장용익 54 page

복어 / Puffer 55 page
 by 장용익 / JANG yong-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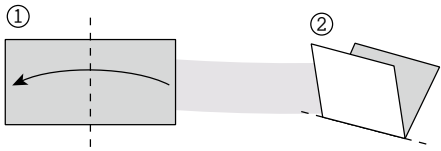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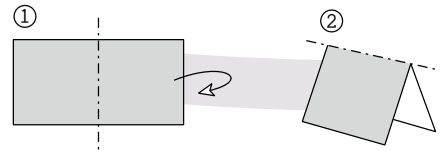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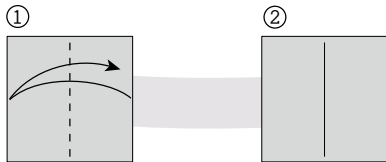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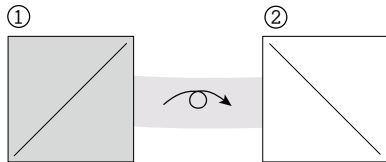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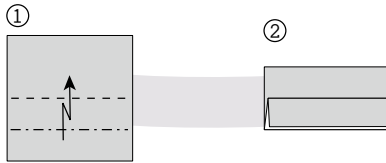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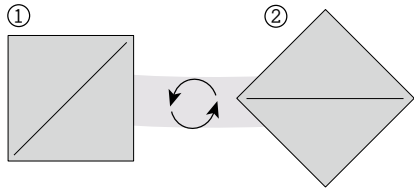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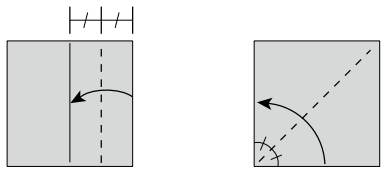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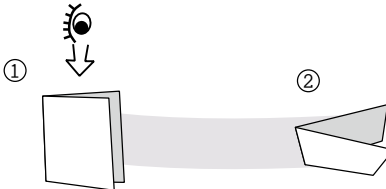
편집자 인터뷰 : 김세익 66 page

톱상어 / Sawshark 67 page
 by 김세익 / se-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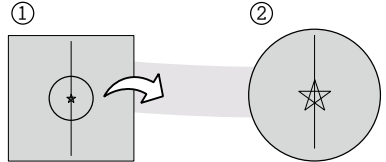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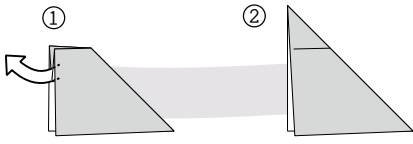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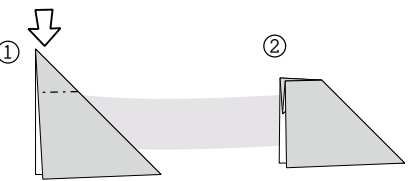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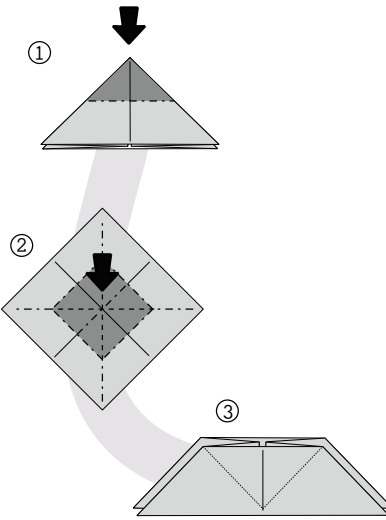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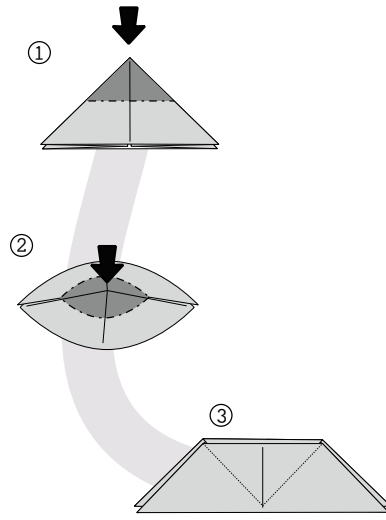
작가 인터뷰 : 김민창 80 page



- 접기 기호 (Symbols for folding) -

<p>골접기 (Valley fold)</p> <p>접기선이 그려진 곳이 음푹 들어가도록 접는 방법 (접고난 뒤의 모양이 골짜기와 비슷합니다)</p> 	<p>산접기 (Mountain fold)</p> <p>접기선이 그려진 곳이 위로 볼록 솟아오르게 접는 방법 (접고난 뒤의 모양이 산과 비슷합니다)</p> 
<p>접기선 내기 (Making a crease line)</p> <p>종이를 접었다 펴서, 접혀진 자국을 만드는 과정 (이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부분을 접습니다)</p> 	<p>뒤집기 (Turn paper over)</p> <p>종이를 회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뒤집는 과정</p> 
<p>계단 접기 (Pleat fold)</p> <p>산접기와 골접기를 연속으로 시행해서 계단과 같은 모양을 만드는 과정</p> 	<p>회전시키기 (Rotation)</p> <p>종이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위치만 바꾸는 과정</p> 
<p>등분 기호 (Division)</p> <p>동일한 간격으로 접으라는 표시</p> 	<p>시선 이동 (Viewpoint change)</p> <p>종이를 보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표시</p> 

- 접기 기호 (Symbols for folding) -

<p>확대해서 보기 (A magnified view)</p> <p>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기호</p> 	<p>주의할 부분 (Marked point)</p> <p>주의해서 봐야할 부분 (작은 원이나 별표로 표시합니다)</p> 
<p>잡아 당기기 (Pull out)</p> <p>종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거나 종이를 잡고 옆으로 끌어 당기는 기호</p> 	<p>누르기 (Push paper in)</p> <p>종이를 안쪽으로 눌러서 넣어 접는 과정</p> 
<p>오픈 싱크 (Open sink)</p> <p>표시된 부분 근처를 완전히 펴 다음 그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접는 방법 (완성된 다음 그 부분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p> 	<p>클로우즈드 싱크 (Closed sink)</p> <p>표시된 부분 근처를 펴지 않고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접는 방법 (완성된 다음 그 부분이 열리지 않습니다)</p> 

김도울 (KIM do-ul) 1996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살고 있고, 태릉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실 크리스 패턴(Crease Pattern)이 아닌 다이어그램(접기 방법)을 책에 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다이어그램이 실린 책이 한 권도 없어 대단히 슬펐습니다만, 세익 형님이 이번 작품전을 소개 해주셔서 정말 기쁩습니다. 이 책이 제 작품의 다이어그램이 실린 첫 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즈음에 초보적인 종이접기에 빠져서 이것저것 종이접기 책들을 따라 접었는데 모두 초보적인 작품들이라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종이접기는 없을까? 하면서 찾던 도중 네이버 종이접기 카페를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접는 법을 보고도 따라 접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품을 접을 수 없다는 사실에 오기가 생겨서 계속 여러 작가들의 어려운 작품들에 도전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 많은 작가들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단연 일본의 코마츠 히데오(小松英夫) 작가님으로, 개인적으로 종이접기 작가들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의 치밀하게 계산된 디자인과 극한까지 절제된 작품의 다듬기는 어떤 의미로 종이접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제가 창작한 '사슴'과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삼선 슬리퍼'의 접기 방법이 실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창작한 작품 중 '사자'와 '러시안 블루'라는 고양이 작품을 다이어그램화 해보고 싶네요. 저에게 종이접기는 놀이의 대상이었기에 그렇게까지 투철한 프로그래밍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즐겼기 때문에 중도에 활동을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고3이다보니 우선 눈앞에 닥친 입시를 끝내고 저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창작활동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Hello! I'm a high school student who living in Seoul of S. Korea. Actually it is first time that my design's diagram publishing, not Crease Pattern. I feel so sad that do not have any books which printed mine. but the editor KIM introduce for this, so I was very happy. this book is my first book that published my own design by diagram. I really appreciate for that. Thank you.

In elementary school, I was hooked on simple Origami & folding it, but all of them was too easy. so I thought that 'Does more difficult origami exist?' and I finally found an internet community about Origami. at that time, I met a great experience that have diagrams but could not folding, so I refuse to yield, I was challenge for many other's, and now I here. There is many artists in the world. but I really like that Designer. KOMATSU Hideo(小松英夫) in Japan. he is the best that I think. especially his minutely calculated designs and extreme understated shaping is the completion of Origami in my opinion.

In this book, the '3-lined sleeper' and 'deer's that very famous about Koreans was printed. and I want to makes diagrams for my cat design, named 'Russian Blue' and 'Lion' if I get a chance. Actually, the Origami was play to me. so I did not have any professional mind, but it is very good to me. it was my reason that I could this constantly. Now, I ready for scholastic ability test. after it, I want to restart my activity of New Origami Model's.

사슴 (D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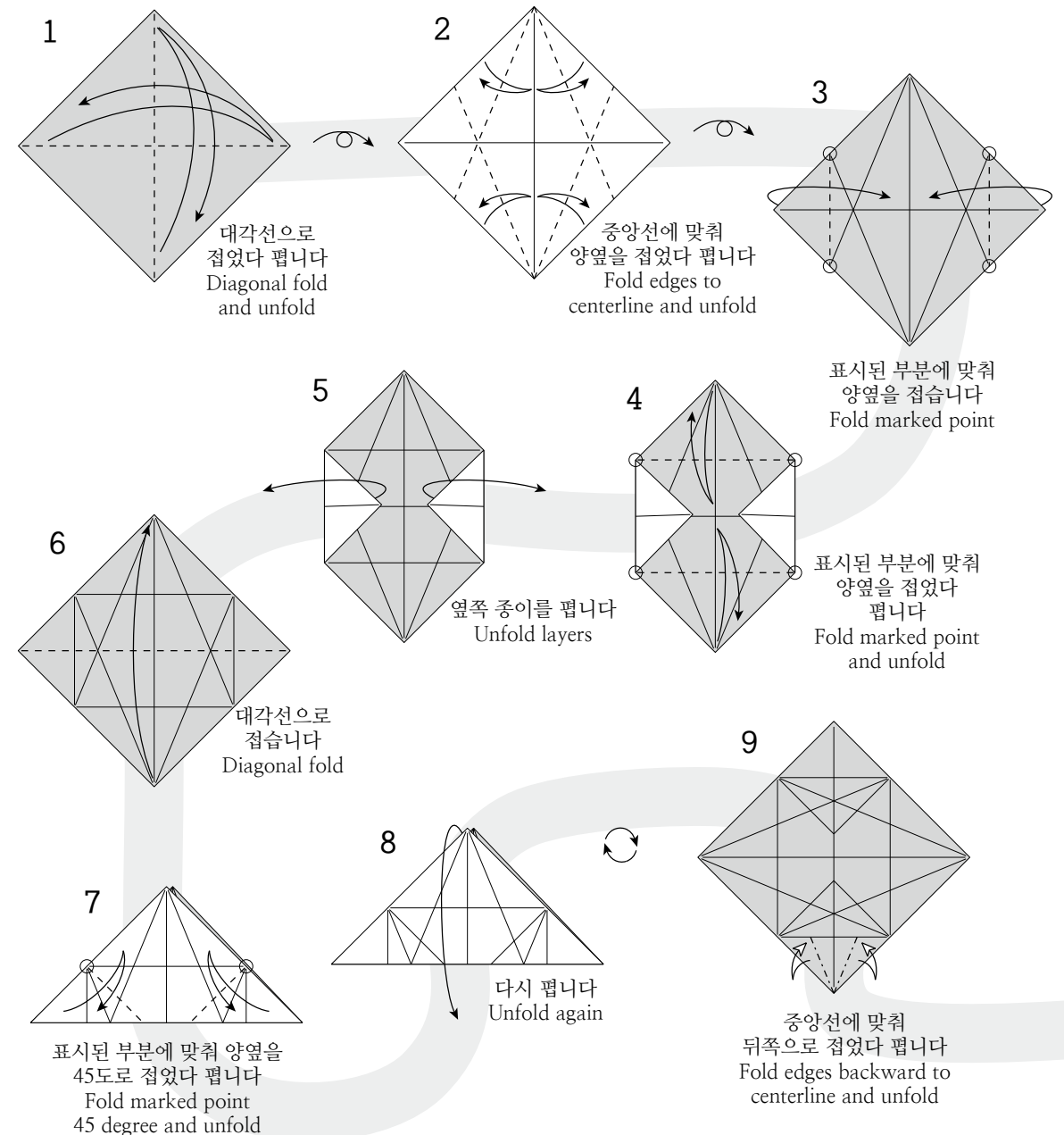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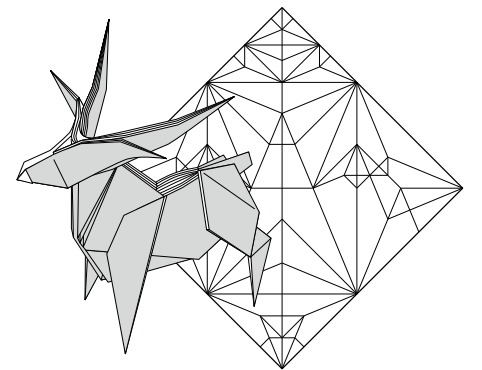
창작 : 김도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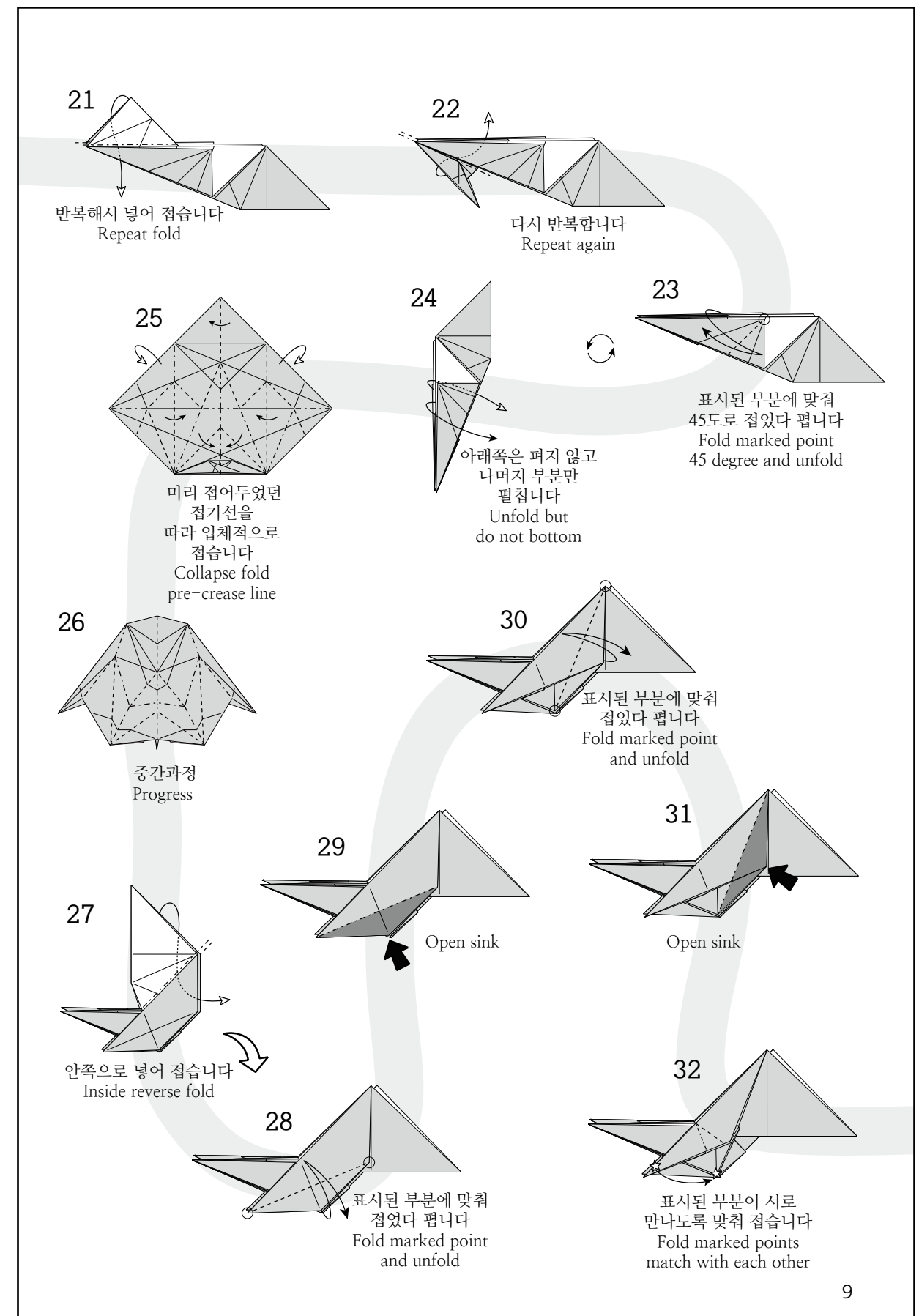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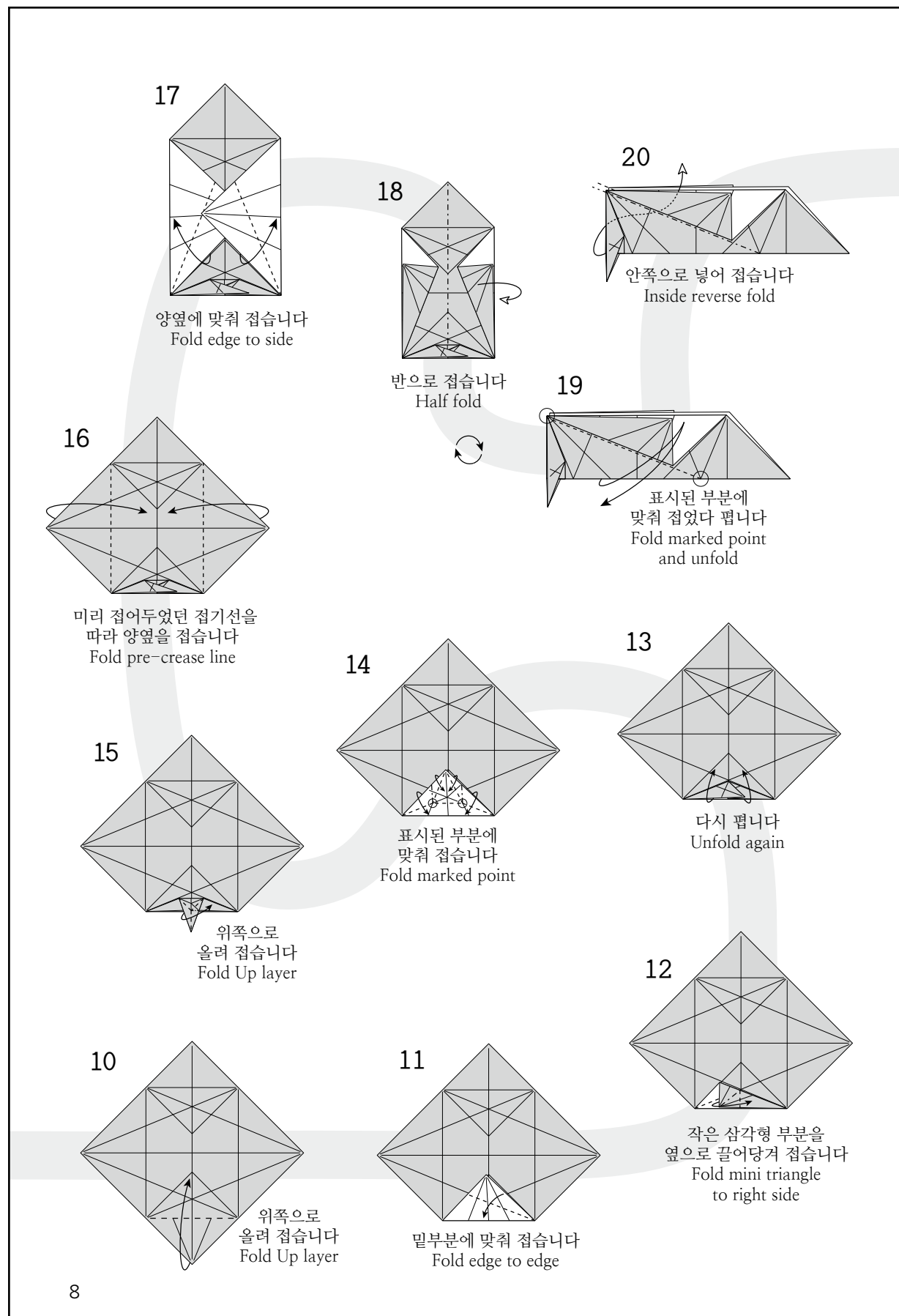
Design : KIM d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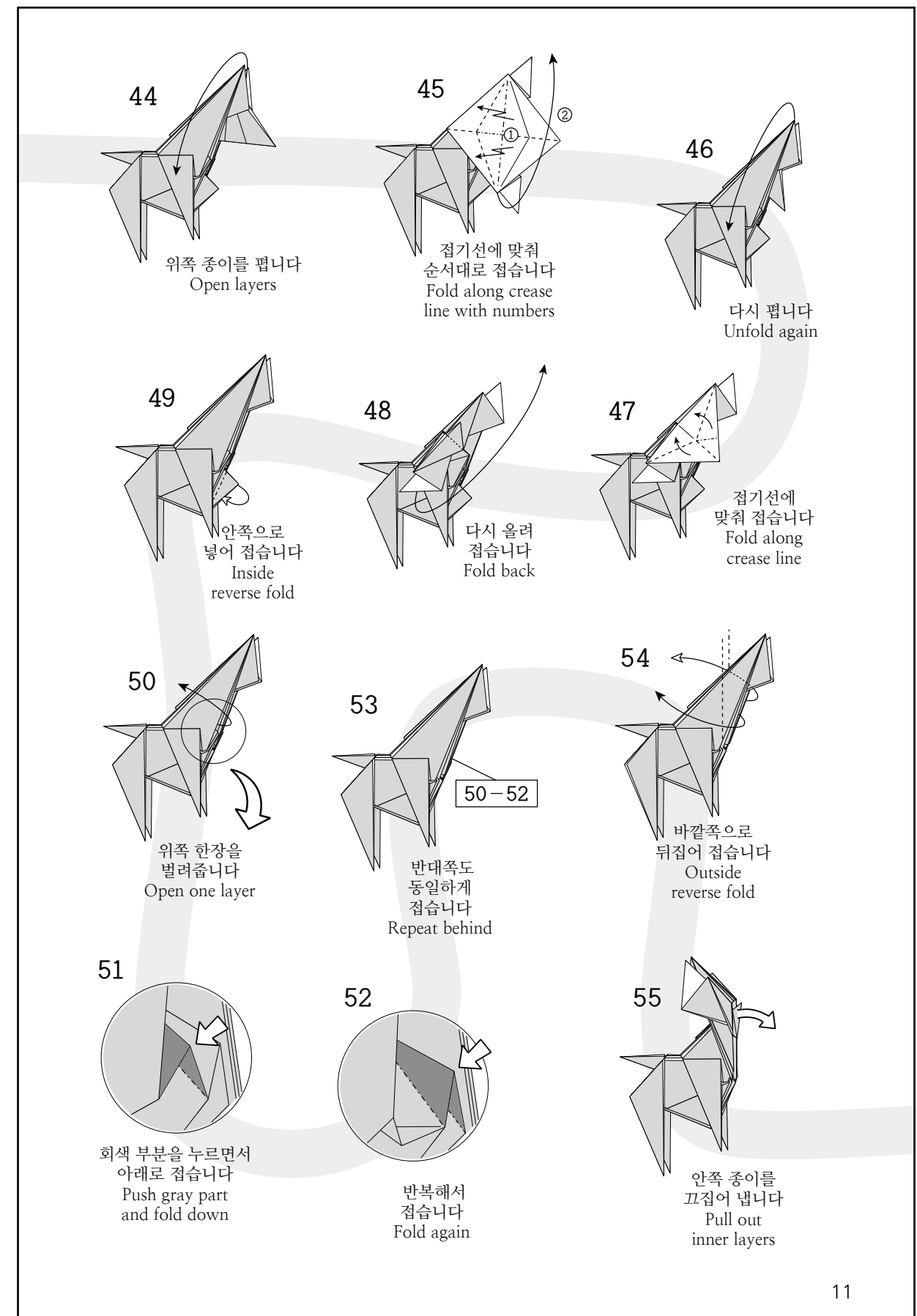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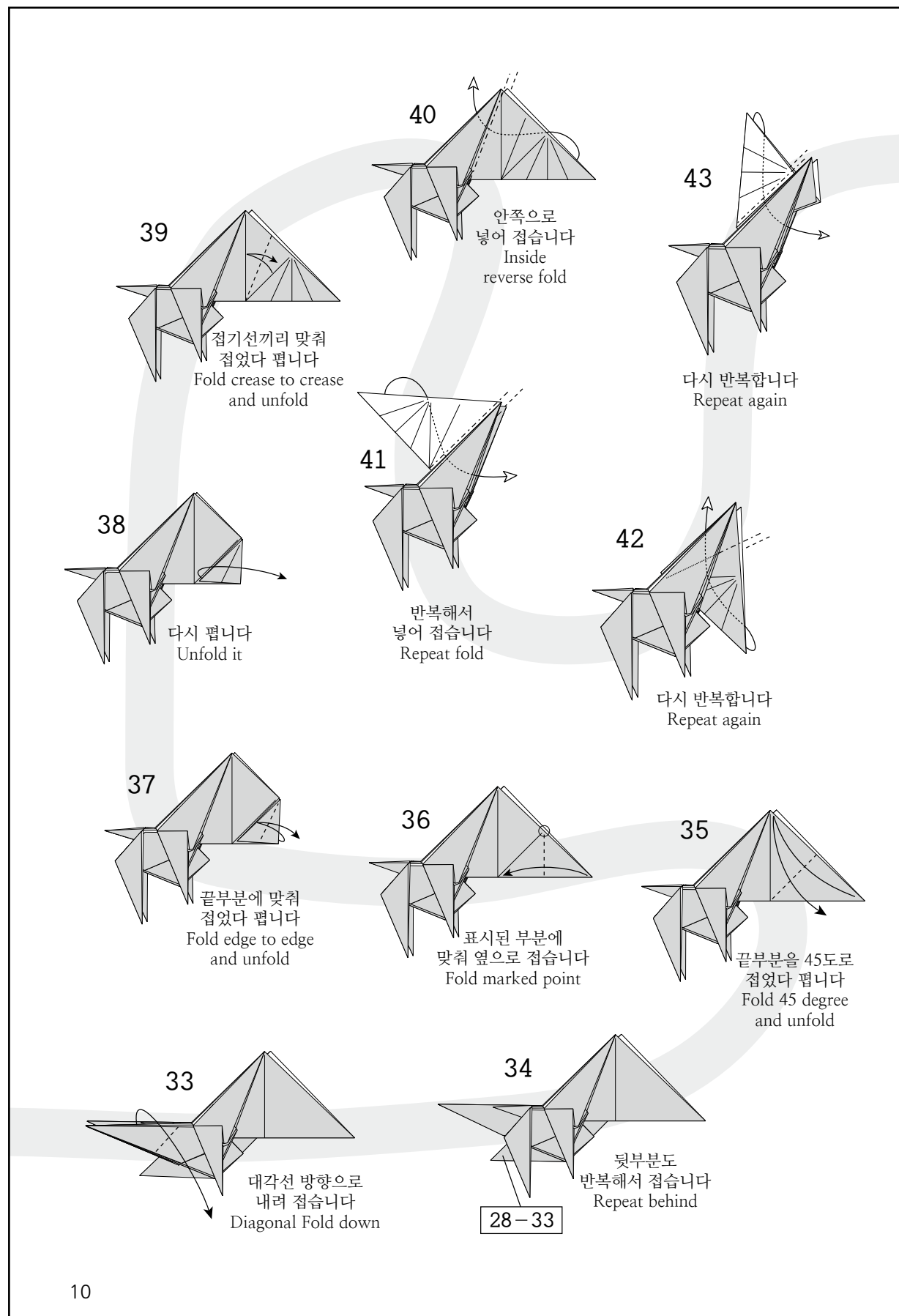
Date : 2012/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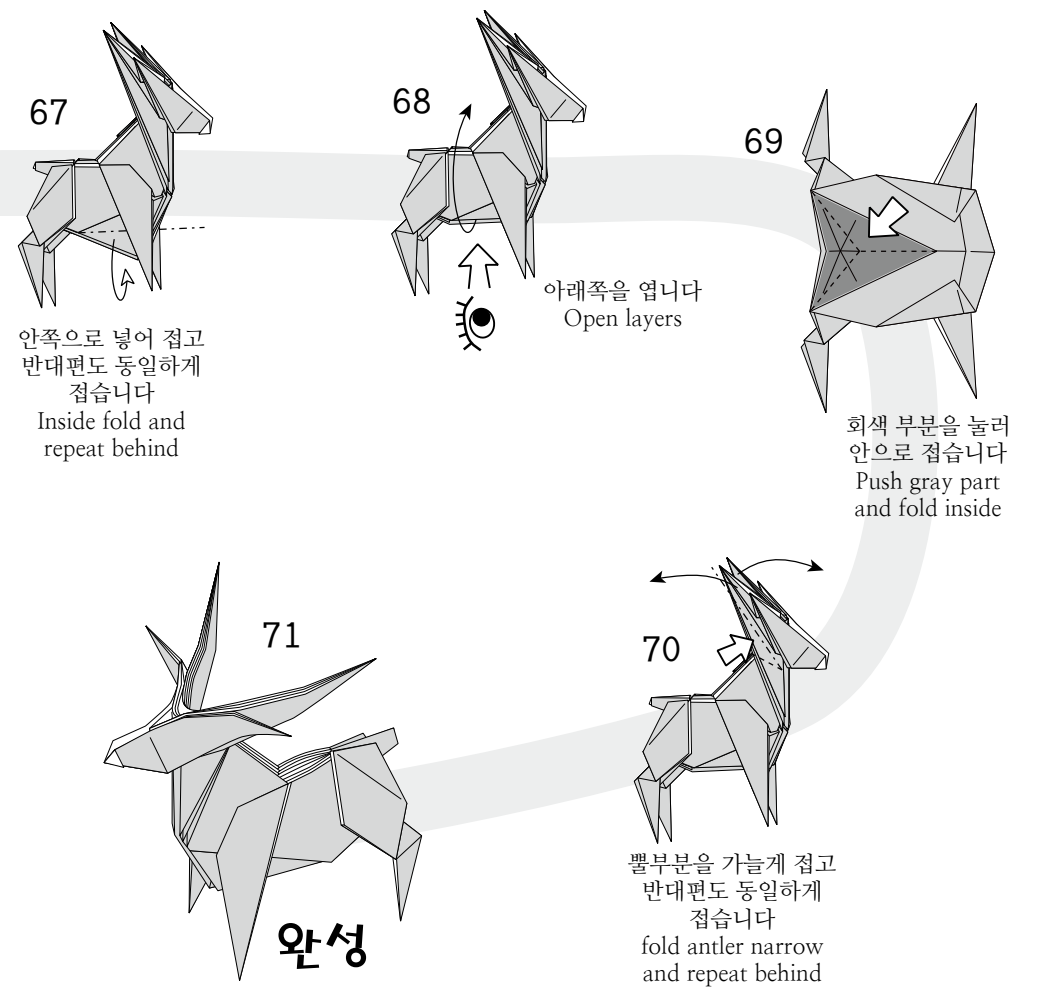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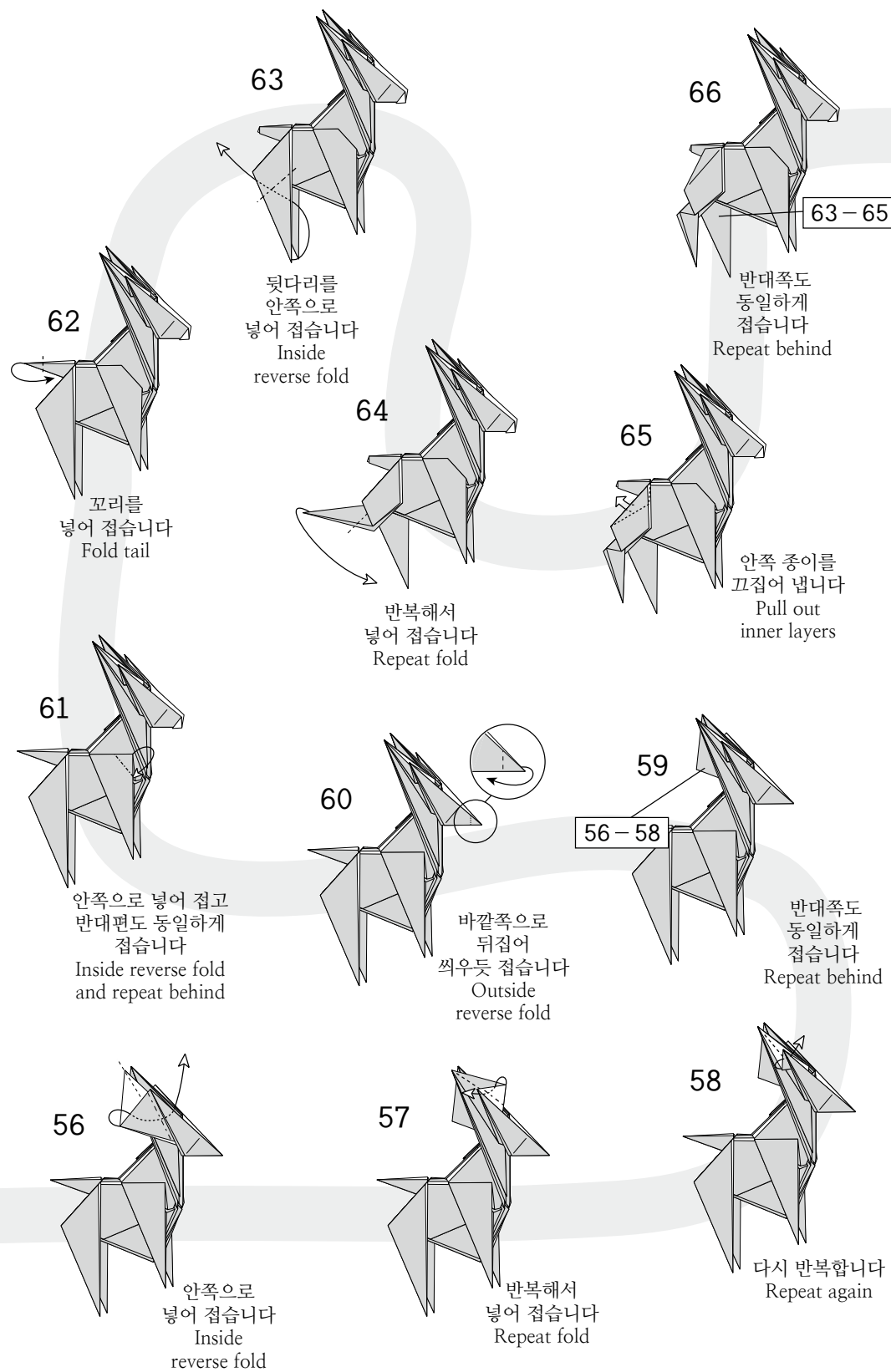
다이어그램 : 김세익

Diagrams : Se-ik KIM









삼선 슬리퍼 (3-Lined Sl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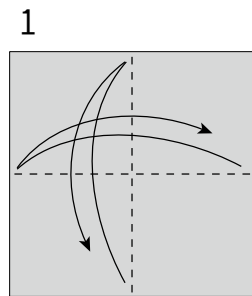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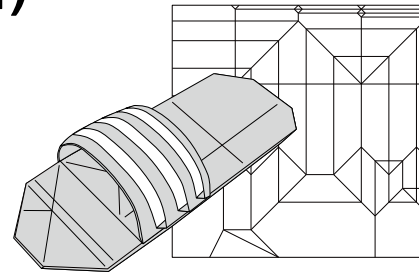
창작 : 김도울

Design : KIM d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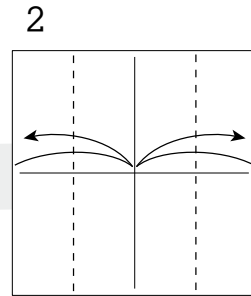
Date : 2011/08/08

다이어그램 : 김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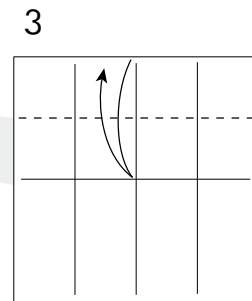
Diagrams : Se-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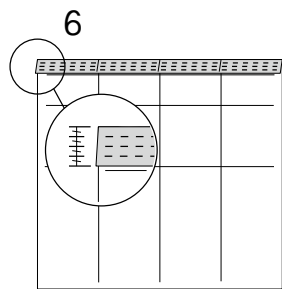
상하좌우로 절반씩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edg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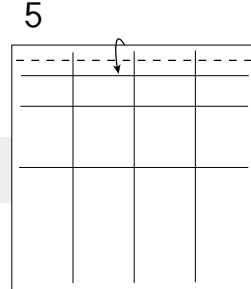
중앙선에 맞춰 양옆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s to
centerlin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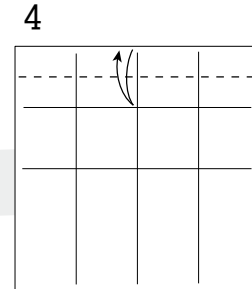
중앙선에 맞춰 위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centerlin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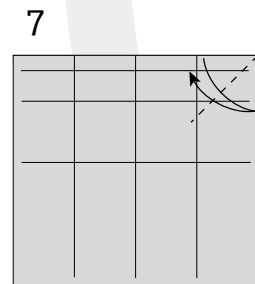
위쪽에 4등분
접기선을 냅니다
Divide 4 crease lines
on the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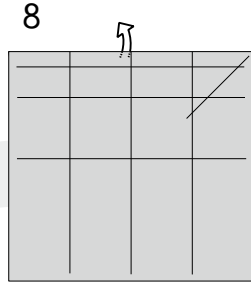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위쪽을
접습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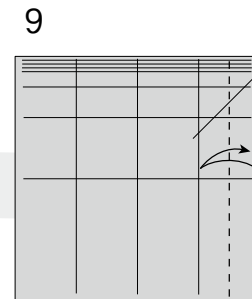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위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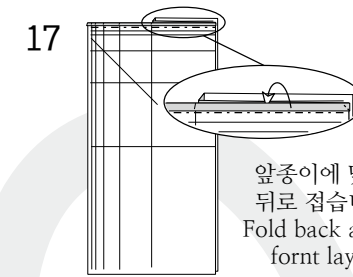
위쪽에 맞춰서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edg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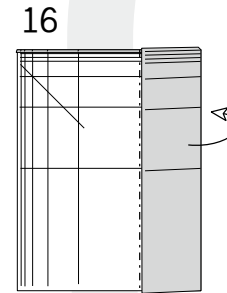
뒤쪽 종이를 펴니다
Unfold under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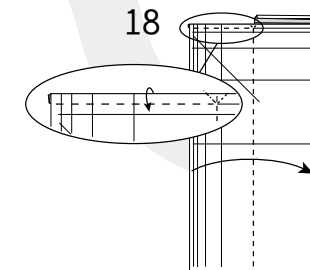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옆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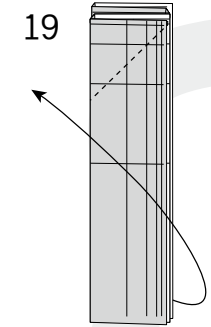
앞종이에 맞춰
뒤로 접습니다
Fold back along
front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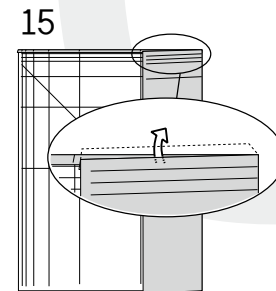
미리 접어두었던 접기선을
따라 뒤로 접습니다
Fold pre-crease line
to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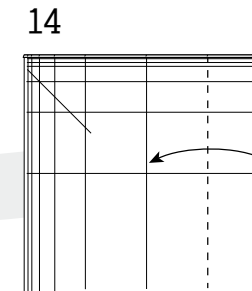
중앙선에 맞춰 옆을
접는 동시에 위쪽을 접습니다
Fold edges to
centerline and fold upper
layers at the sam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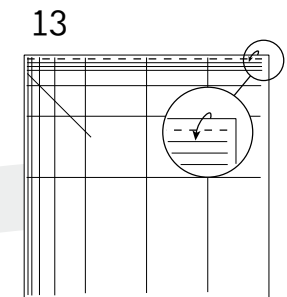
대각선 방향으로
올려 접습니다
Diagonal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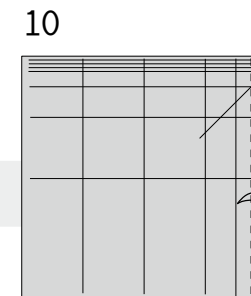
뒤쪽 종이를 끄집어
올립니다
Pull out under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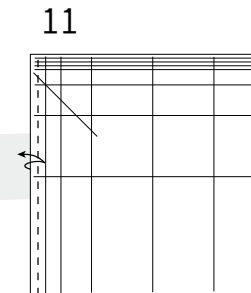
미리 접어두었던
접기선을 접습니다
Fold pre-creas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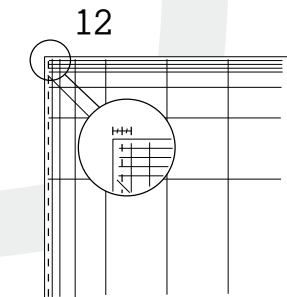
미리 접어두었던 맨위쪽
접기선을 접습니다
Fold pre-crease line



접기선에 맞춰 옆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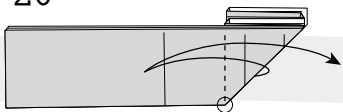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옆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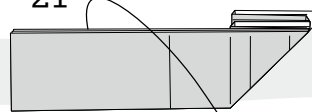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옆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d unfold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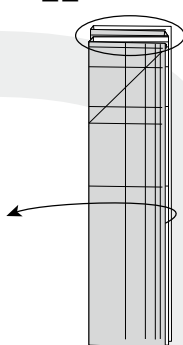
아래쪽 꼭짓점에 맞춰
접었다 펴니다
Fold layers to
left and unfold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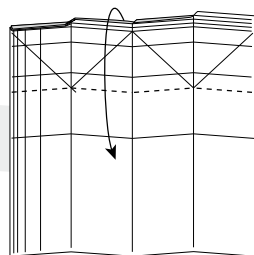
아래쪽으로 펴니다
Unfold layers
down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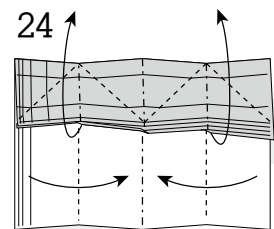


위쪽 표시된 부분은
그대로 둔 채 펴니다
Unfold layers but
do not open
marked layers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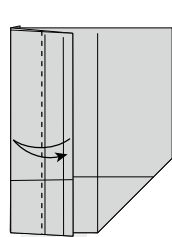


미리 접어두었던
접기선을
따라 아래로 접습니다
Fold pre-crease
line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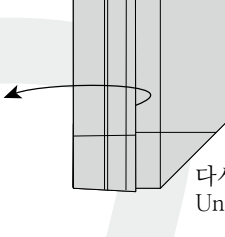
미리 접어두었던
접기선을
따라 입체적으로
접습니다
Collapse fold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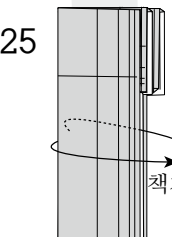
끝부분에 맞춰서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edge
and unfold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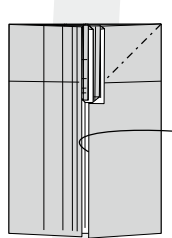
다시 펼칩니다
Unfold again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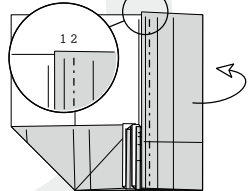
책처럼 뒷쪽을 펼칩니다
Open like book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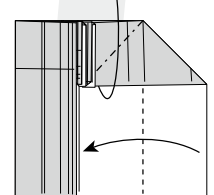
위쪽 한장을 펼칩니다
Open one layer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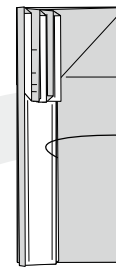
끝에서 2번째 접기선을
따라 뒤쪽으로 접습니다
Fold back along
2nd crease lin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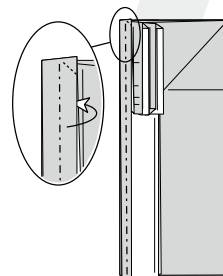
위쪽을 올리는 동시에
옆부분을 접습니다
Fold edge to center
and fold upper side at
the same time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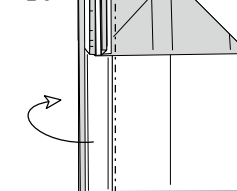
안쪽 한장을
벌려줍니다
Open
one layer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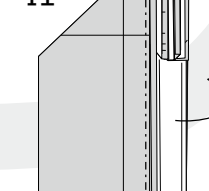
위쪽 한장을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Fold one layer
to insid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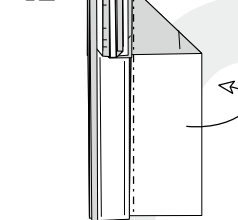
위쪽 접힌 부분을
따라 뒤쪽으로 접습니다
Fold layers back along
edge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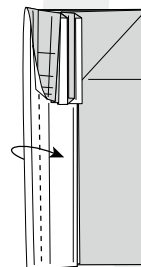
반복해서
접습니다
Fold again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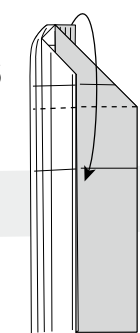
반복해서
접습니다
Fold again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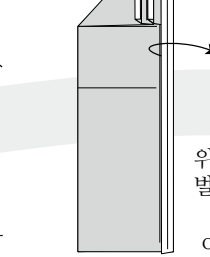
옆쪽을
오른쪽으로
접습니다
Fold layer
right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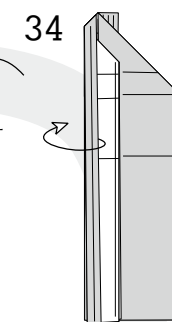


위쪽을
아래로
접습니다
Fold upper
layers down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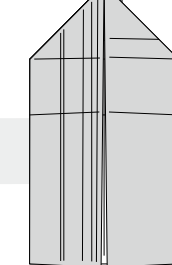


위쪽 한장을
벌려줍니다
Open
one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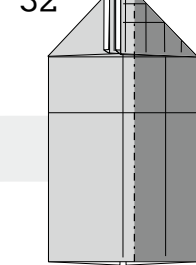


윗부분을 뒤집어
썩워 접습니다
Cover up with
front layer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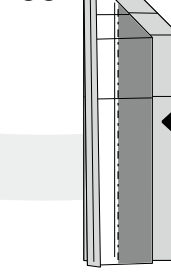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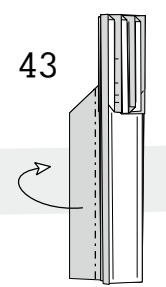


Closed s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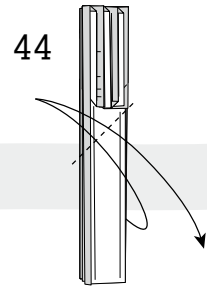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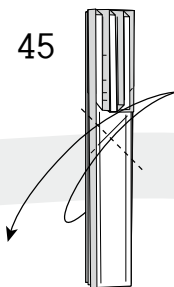
Closed s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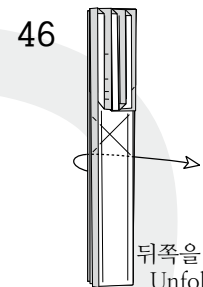
반복해서
접습니다
Fold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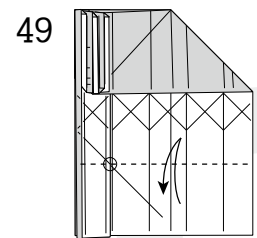
대각선 방향으로
올려 접습니다
Diagonal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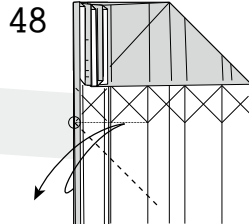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올려 접습니다
Diagonal Fold
another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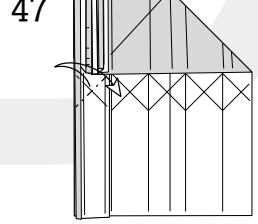
뒤쪽을 펼칩니다
Unfold back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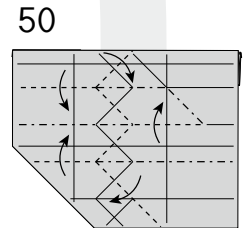
교차점에 맞춰서
접었다 펴니다
Fold at cross point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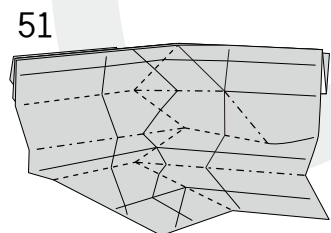
대각선 방향으로
접었다 펴니다
Diagonal Fold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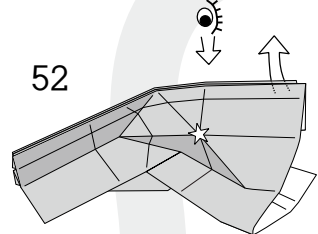
대각선 방향으로
접었다 펴니다
Diagonal Fold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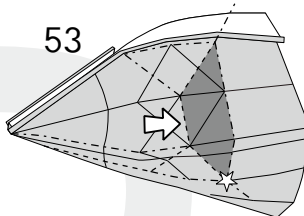
미리 접어두었던
접기선을
따라 입체적으로
접습니다
Collapse fold
pre-creas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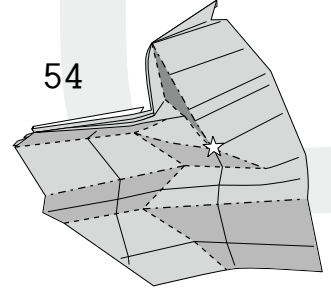
중간과정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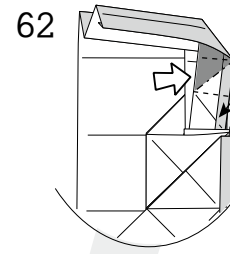
위쪽을 펼칩니다
Unfold upper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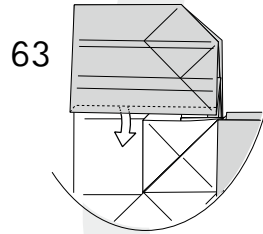
회색 부분을 누르면서
접어 넣습니다
Push gray part
and fold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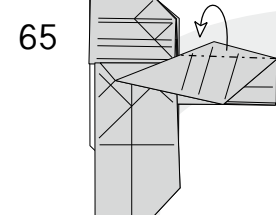
중간과정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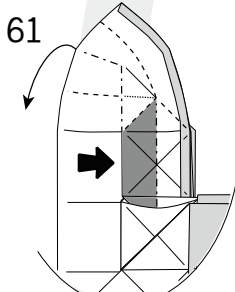
회색 부분을 누르면서
내려 접습니다
Push gray part
and fold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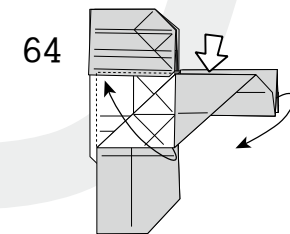
안쪽 부분을
끄집어 냅니다
Pull out inner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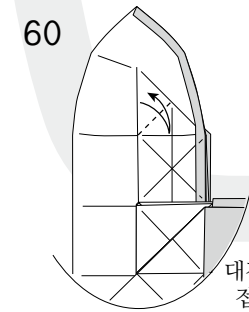
뒤쪽으로
접습니다
Fold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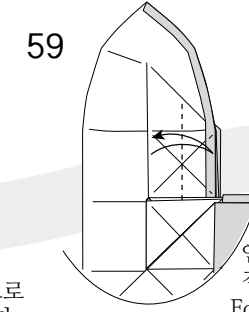
회색 부분을 클로우즈드
싱크
하면서 내려 접습니다
Closed sink
and fold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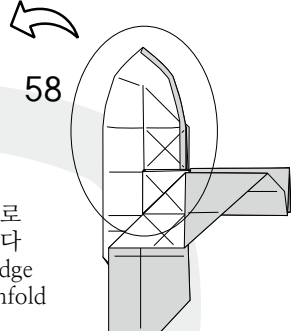
점선 부분까지 오도록 최대한
끌어 올린 다음 위쪽을
눌러줍니다
Pull out as possible as
and push the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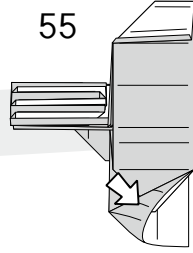
대각선 방향으로
접었다 펴니다
Diagonal Fold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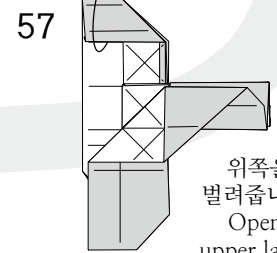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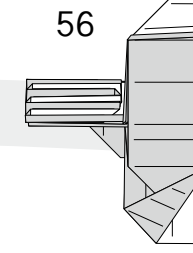
안쪽을 반으로
접었다 펴니다
Fold inside edge
to edg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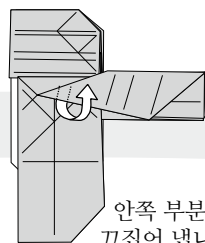
위쪽을
벌려줍니다
Open
upper layer



아래쪽을
눌러줍니다
Push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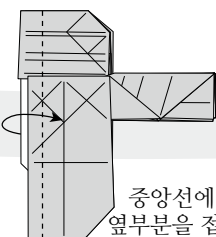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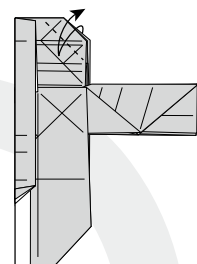
안쪽 부분을
끄집어 냅니다
Pull out inner layer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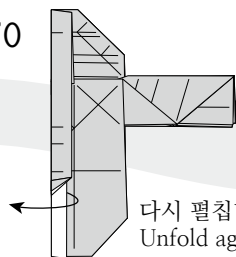
중앙선에 맞춰
옆부분을 접습니다
Fold edges to
centerline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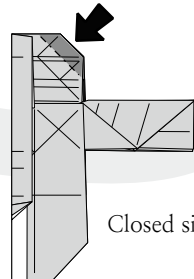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위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d unfold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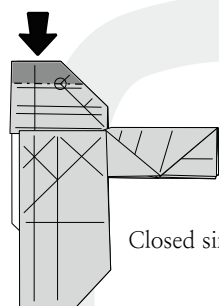
다시 펼칩니다
Unfold again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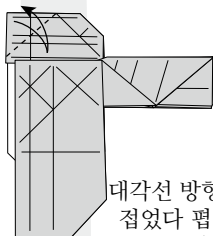
Closed sink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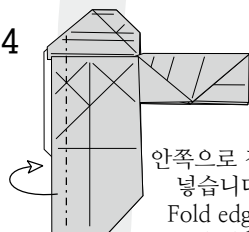
Closed sink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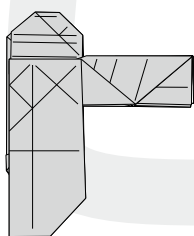
대각선 방향으로
접었다 펴니다
Diagonal Fold
and unfold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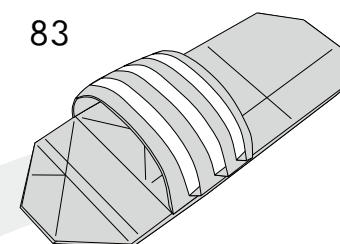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Fold edges
to inside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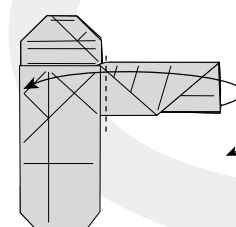
Closed sink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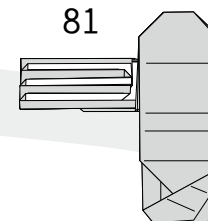
완성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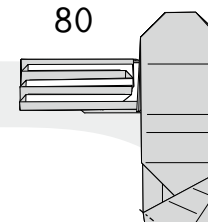


슬리퍼 윗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줍니다
Fold sleeper's
upper side round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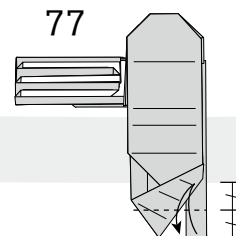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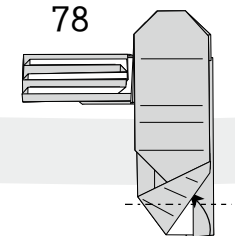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Push vertices to inside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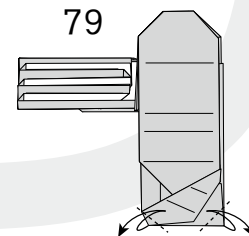
아래쪽을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 and unfold

78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Fold edges to inside

79



대각선 방향으로
접었다 펴니다
Diagonal Fold
and unfold

유태용 (YOO tae-yong) 1996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 작품의 다이어그램을 책에 실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부족한 작품이지만 실리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이접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서점에서 일본 작가인 카와하타 후미아키(川畑文昭)의 '종이접기 세계의 공상동물'(원제: おりがみ 世界の空想動物)이라는 책을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이때부터 종이접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어렵고도 복잡한 작품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카미야 사토시(神谷哲史) 작가의 작품집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카미야 사토시 작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 사이에서도 워낙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작가인지라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 다른 작품들도 다이어그램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드라마 각시탈을 보고 창작한 각시탈 작품을 꼭 다이어그램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캐릭터이고, 동시에 드라마에도 등장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종이접기란 종이로 사물을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장르에서는 추상적인 느낌이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편이지만, 종이접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종이접기 작품을 좋아하고 많이 접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고, 저 또한 그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다른 작가는 일본의 모리스에 케이(森末圭) 작가입니다. 모리스에 케이 작가는 다른 작가들이 잘 접지 않는 굉장히 참신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 냅니다. 그가 창작한 '증기 자동차(蒸気自動車)'나 '피스 메이커(Peace maker : 미국 서부 시대에 인기 있었던 권총 모델)'와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참신한 작품들을 창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간단하면서도 나타내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이 잘 잡힌 작품을 창작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극 사실주의적인 아주 어렵고도 복잡하지만 사물의 특징을 자세하게 표현한 작품을 창작해왔었는데, 점점 창작을 해 나가면서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그 사물의 특징을 잘 잡아낸 그러한 작품에 매력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작품들의 창작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Hi, I'm a student who have studying abroad in Japan. I really glad to publishing my model's diagram. and It is an honor to me. Few years ago, I met a book named 'Origami sekai no kusou doubutsu' by KAWAHATA Humiaki(川畑文昭). it was my origami beginning. After it, I feel for exciting about origami. and when I see his book- Yes, KAMIYA Satoshi's(神谷哲史)- I become aware of more complex Origami. KAMIYA is well known in many of Origami designers. so if you have interest in Origami, you listened his name.

In this time, I think about that I want to make my another model's diagram. Especially I want is the 'Kaksi-tal'(the korean traditional mask). It has original comic book, and made by drama. My model was originate in drama. so it may be has copyright trouble to make a diagram. I'm really sorry about that.

To me, the Origami is the work which express an object by paper. In picture, it is possible that show abstract feel or shape. but Origami dosen't. Origami fans are very young, so representation of an object is suitable for it. And I also love it. Personally, I like that designer. MORISUE Kei(森末圭) in Japan. His design is very novelty which another designer do not. To see his model like 'Steam Automobile' or 'Peace maker', everybody can knows that his design is very brilliant.

In conclusion, my plan is design which not complex but has definite feature of model. Thus far, I designed very complex and detailed models. But I get along folding, I feel charm of an 'simple but has feature' design. So I will challenge it.

박쥐 (B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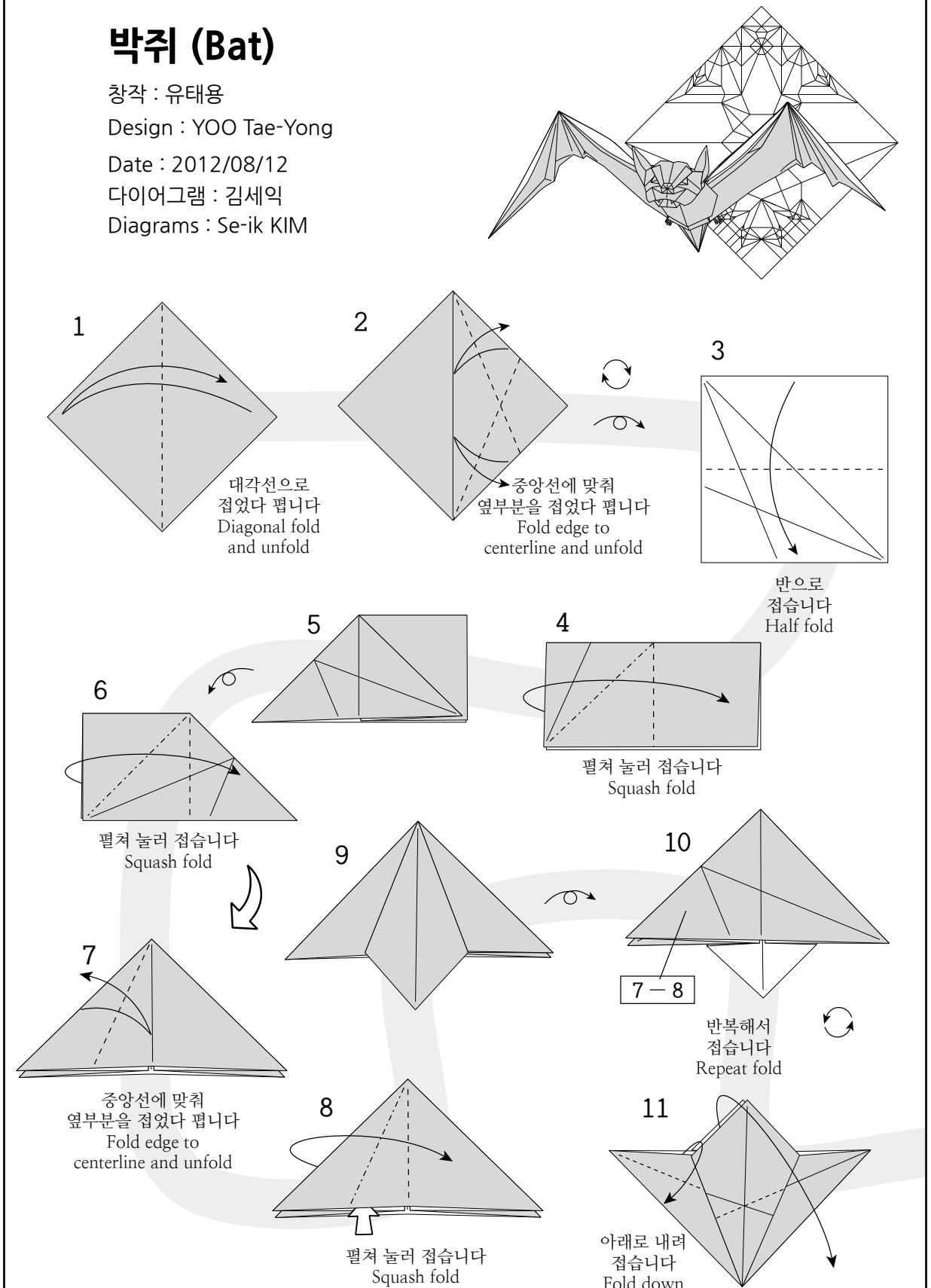
창작 : 유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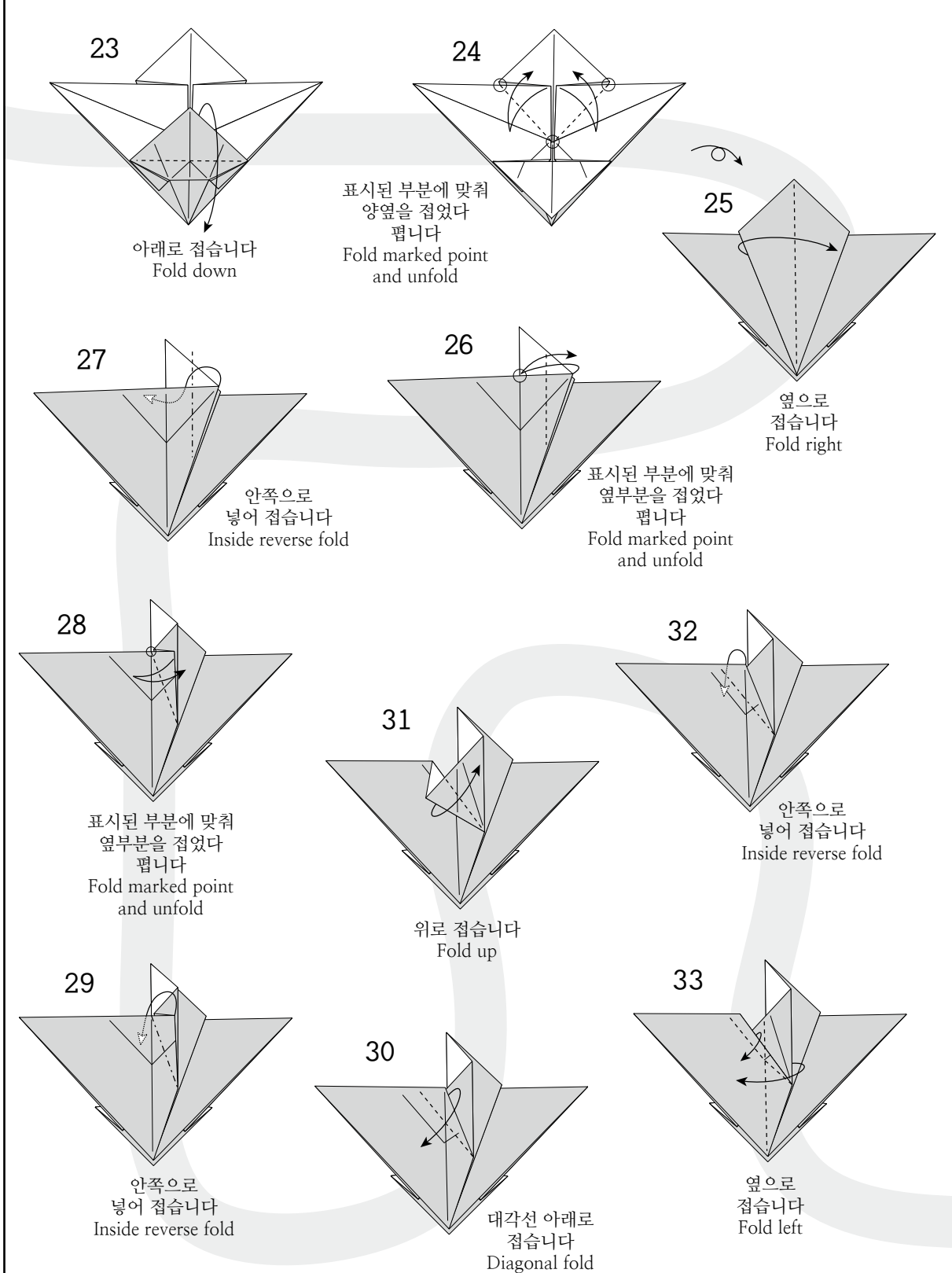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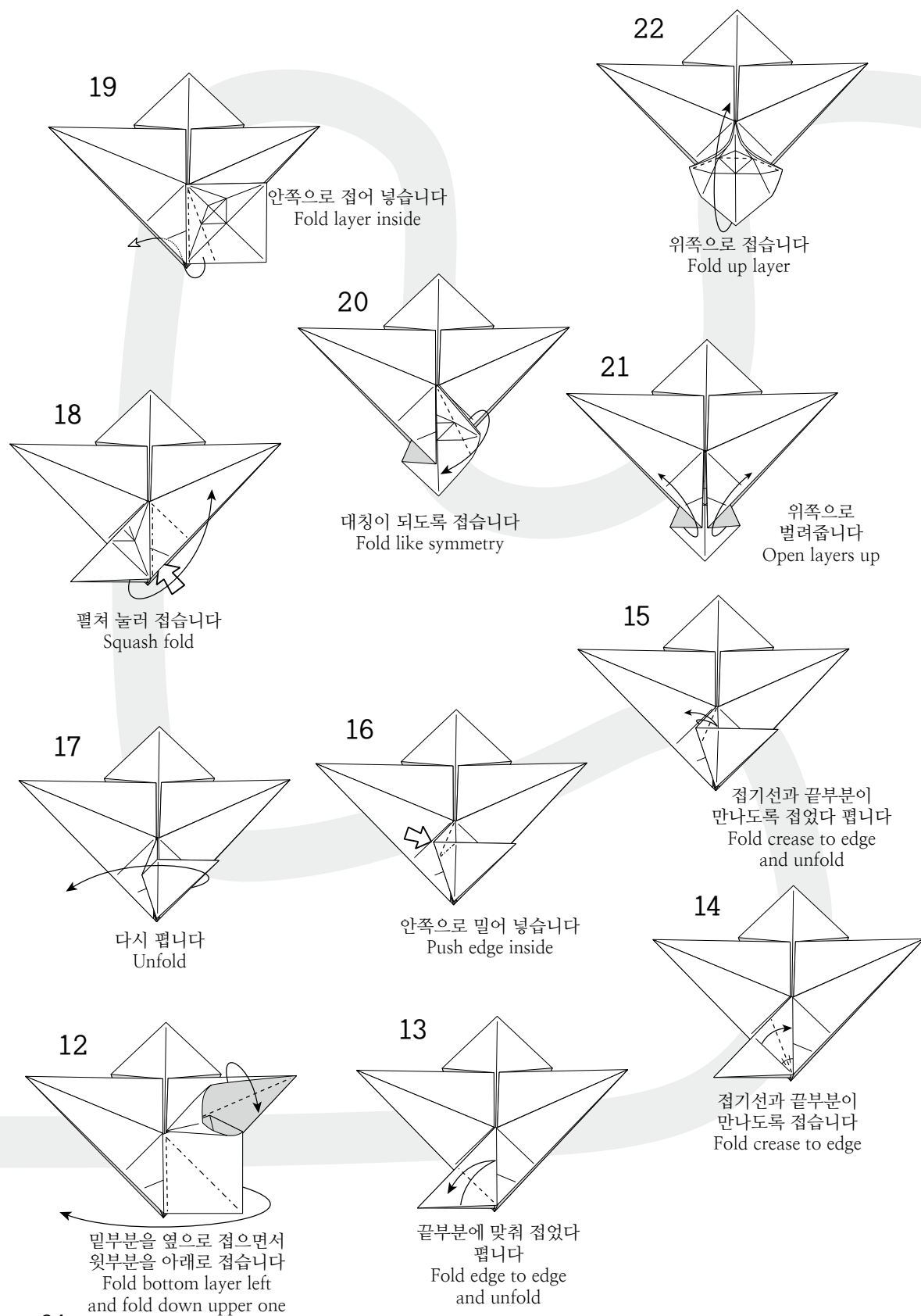
Design : YOO Tae-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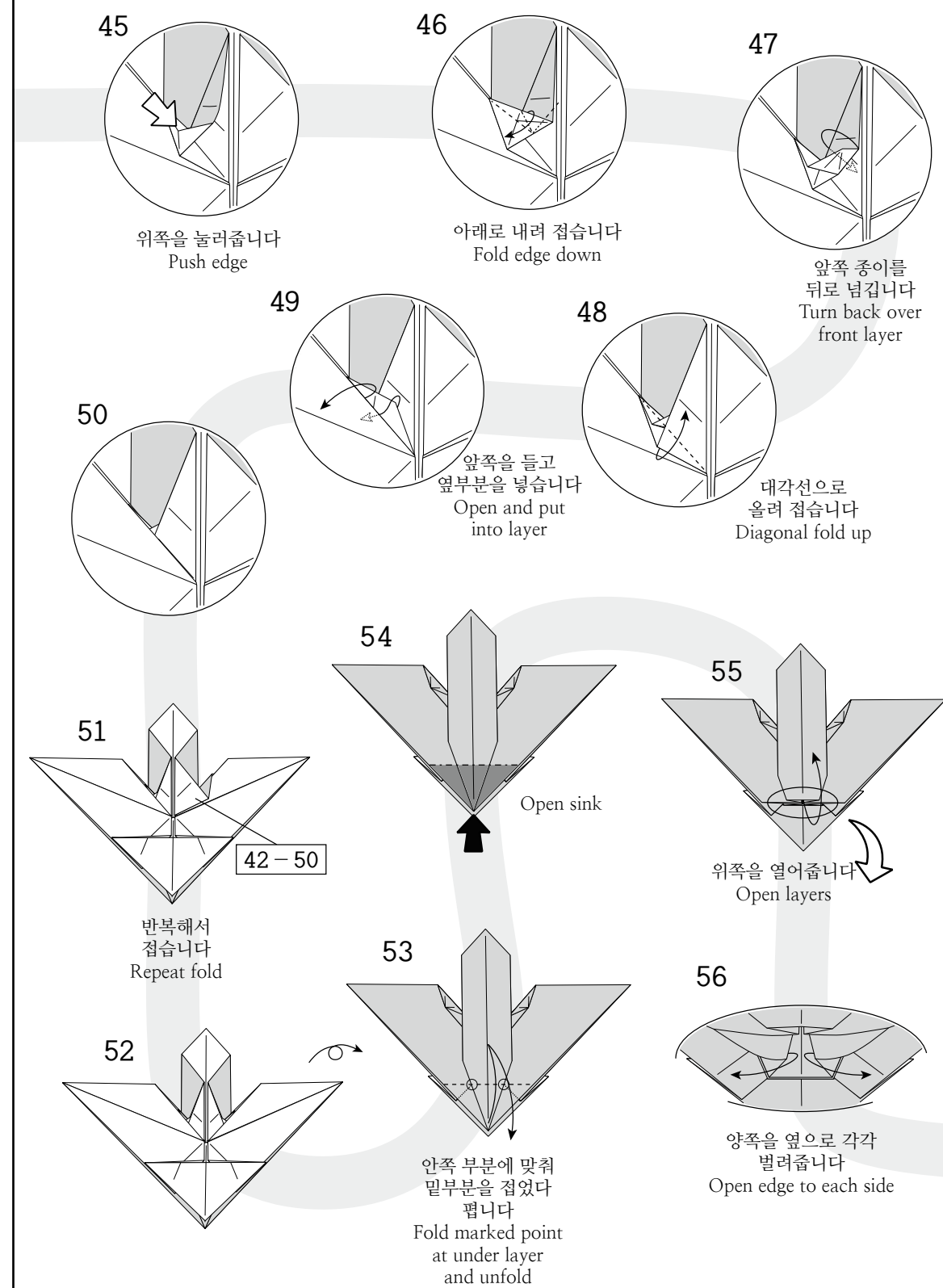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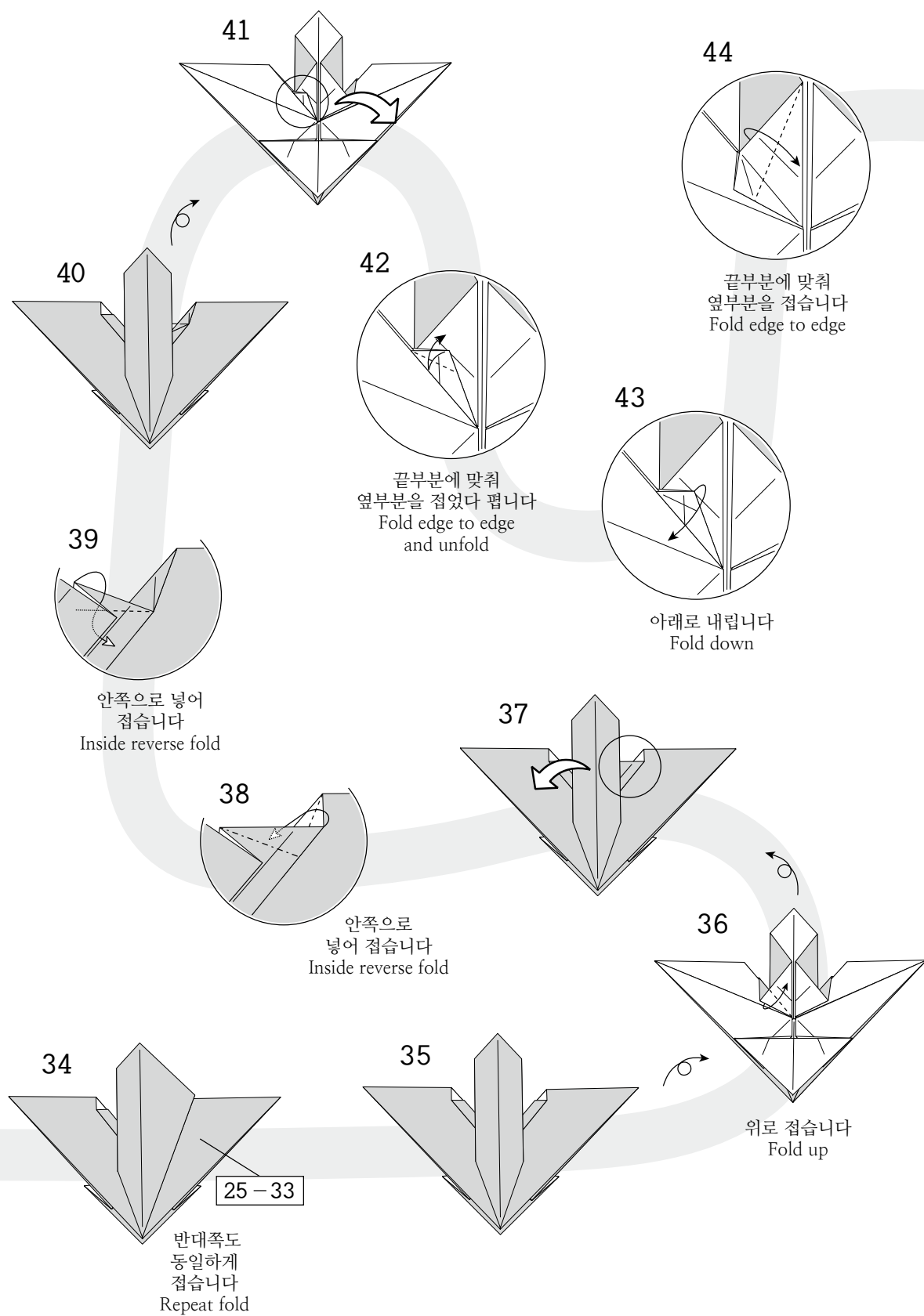
Date : 2012/08/12

다이어그램 : 김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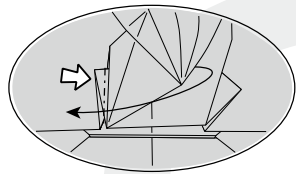
Diagrams : Se-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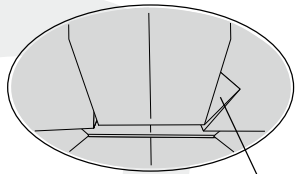


64



안쪽으로 눌러 접고
다시 뒹굽니다
Inside reverse fold
and close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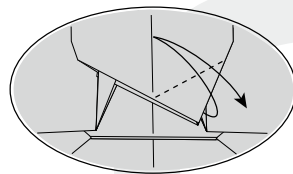
65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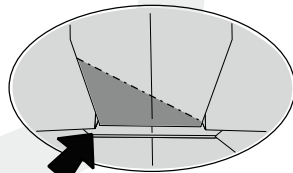
59-64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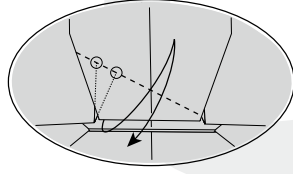
66번과 동일하게 접었다
펼칩니다
Fold layer like
66 and unfold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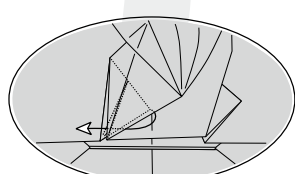
Closed sink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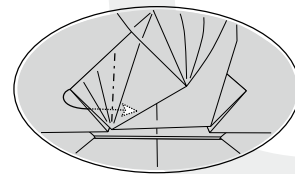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올려 접었다 펼칩니다
Fold layer as far as
it possible and unfold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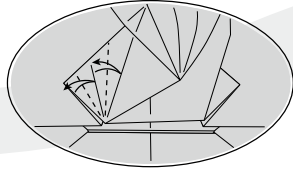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Outside reverse fold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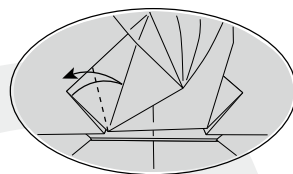
안쪽으로
넣어 접습니다
Inside
reverse fold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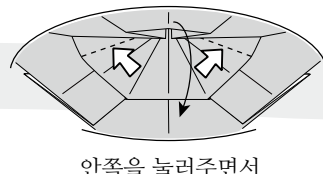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옆부분을 접었다 펼칩니다
Fold edge to crease
and unfold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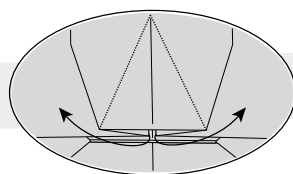
접기선에 맞춰
옆부분을 접었다 펼칩니다
Fold edge to crease
and unfold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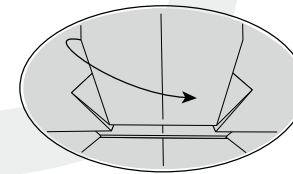
안쪽을 눌러주면서
윗쪽을 내립니다
Push inside and
close layer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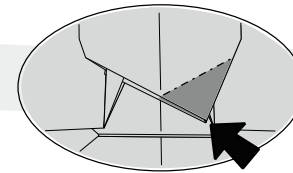
양쪽을 옆으로 각각 접습니다
Fold edge to each side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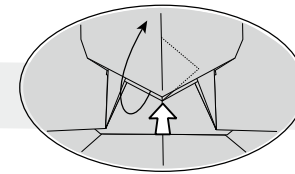
옆쪽을 벌려줍니다
Open layer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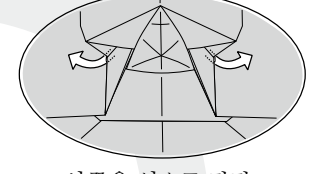
Closed sink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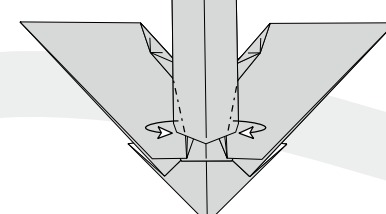
위쪽을 열어주며
안쪽 부분을 눌러줍니다
Open layer and push inner one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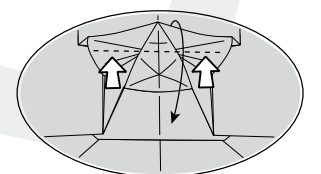
양쪽을 옆으로 각각
벌려줍니다
Open edge to each side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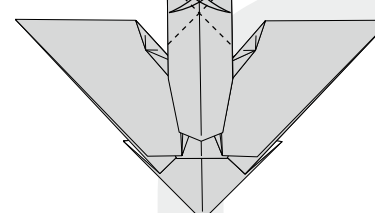
밑부분에 맞춰 각각 뒤로
접습니다
Fold each edge to back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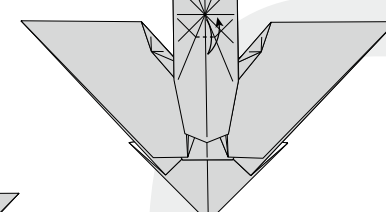
안쪽으로 눌러 접고
다시 뒹굽니다
Inside reverse fold
and close layer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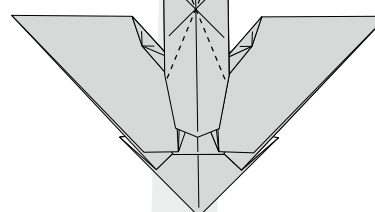
가장자리에 맞춰
윗부분을 각각 접었다 펼칩니다
Fold edge to
edge and unfold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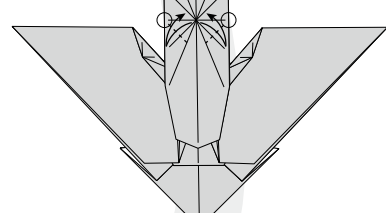
접기선 끝에 맞춰
접었다 펼칩니다
Make a crease that
connect crease lines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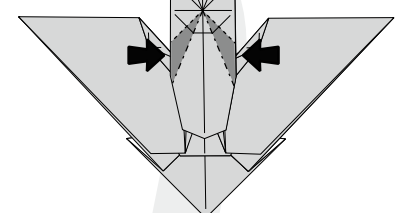
접기선끼리 만나도록
접었다 펼칩니다
Fold crease to
crease and unfold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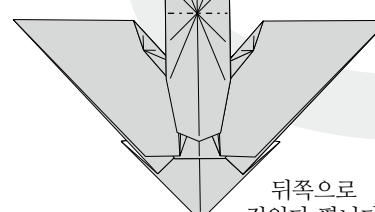
표시된 부분에 맞춰
양옆을
45도로 접었다 펼칩니다
Fold marked point
45 degree and unfold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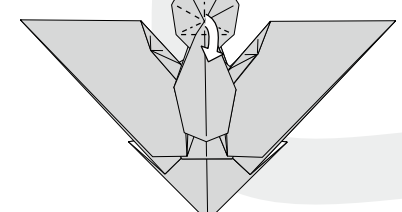
회색 부분을 눌러
넣습니다
Push gray part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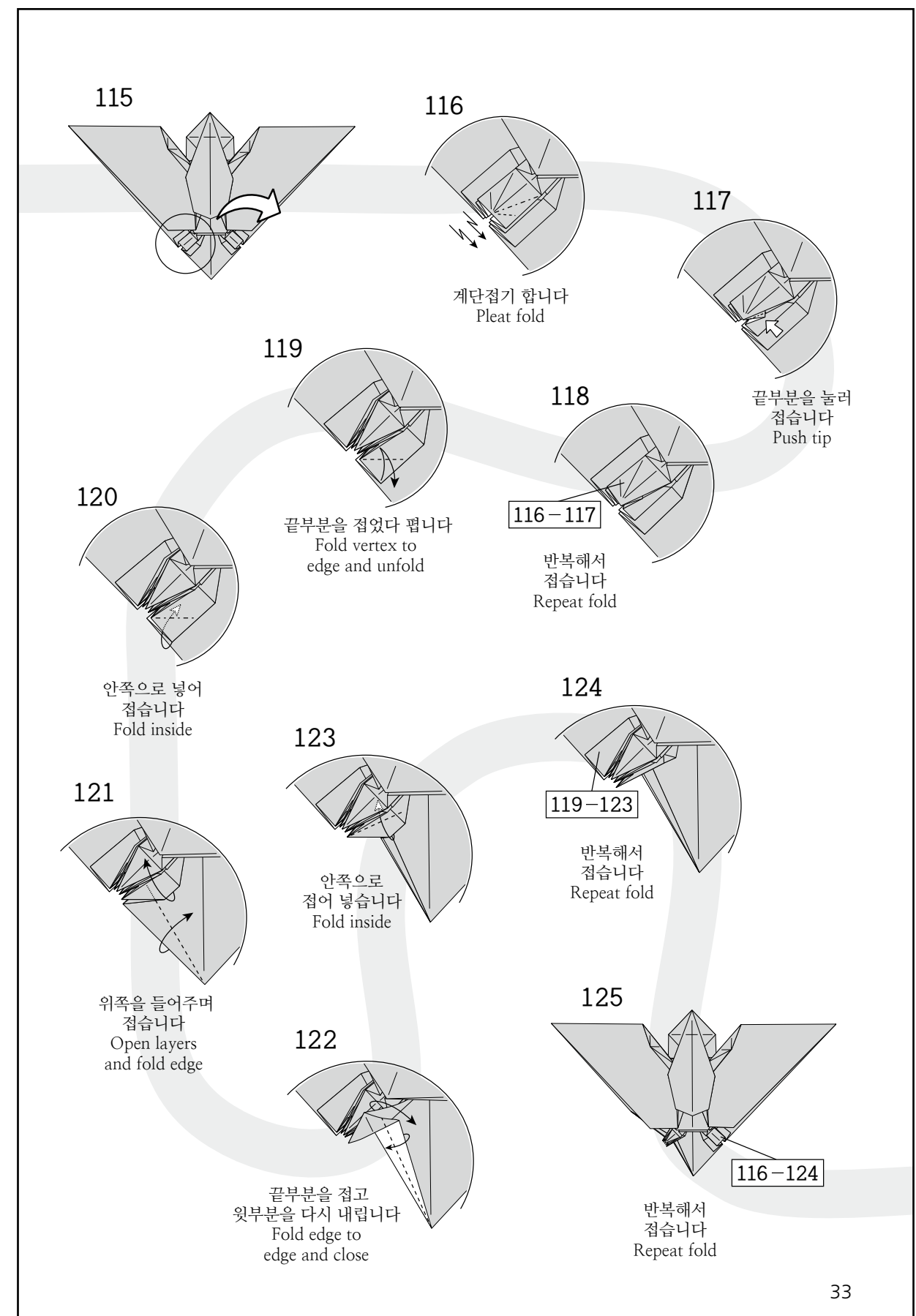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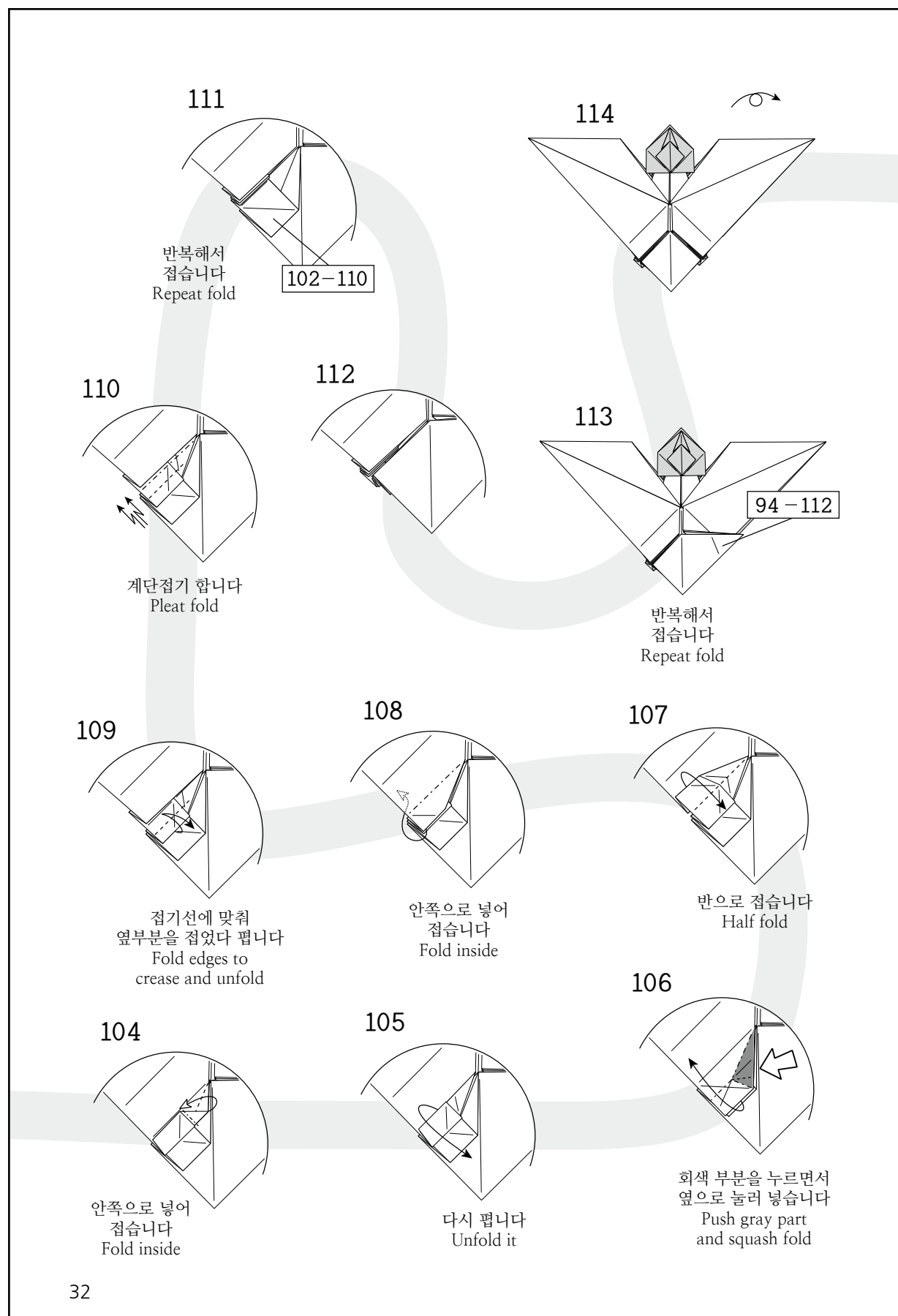
뒤쪽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Fold back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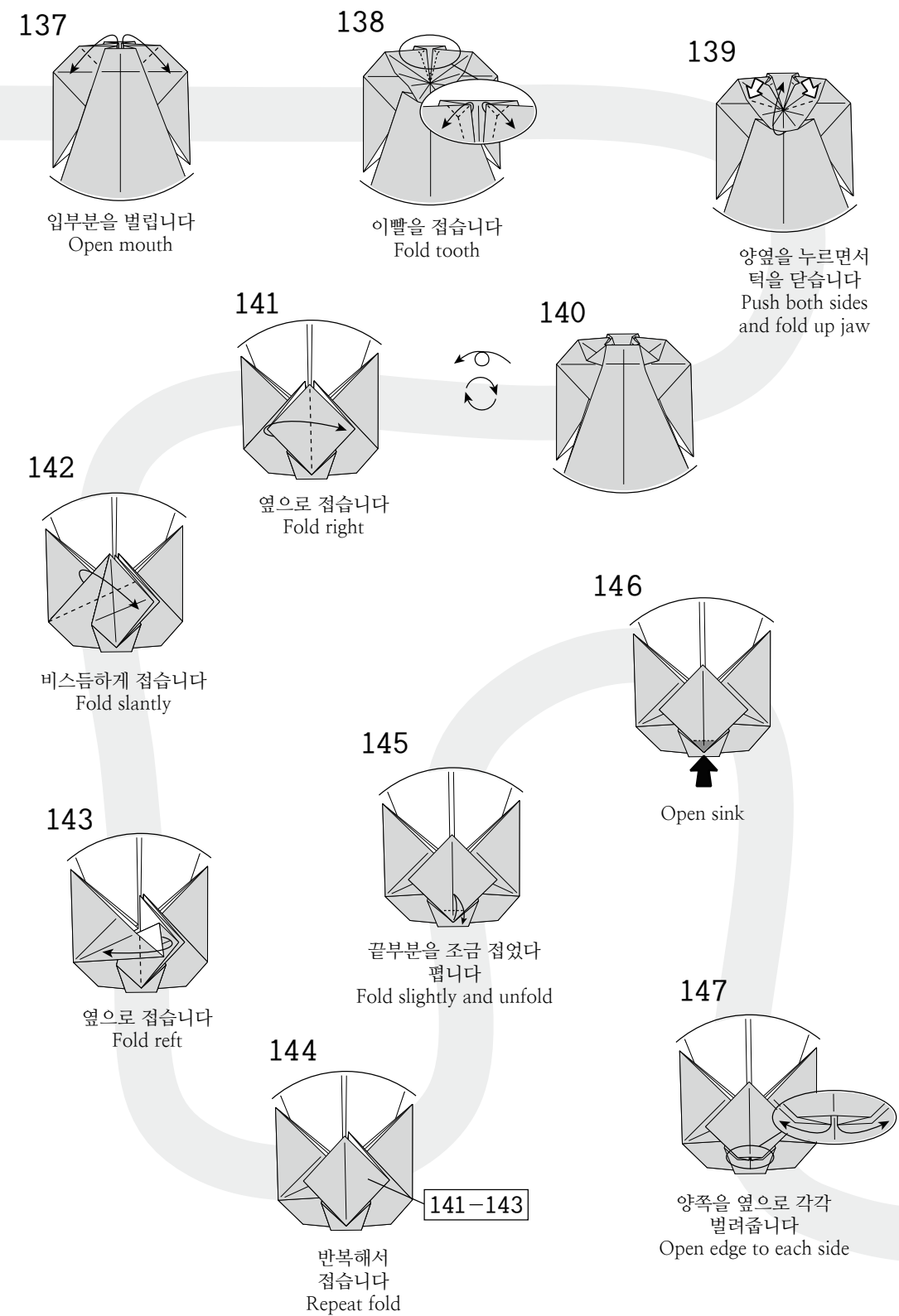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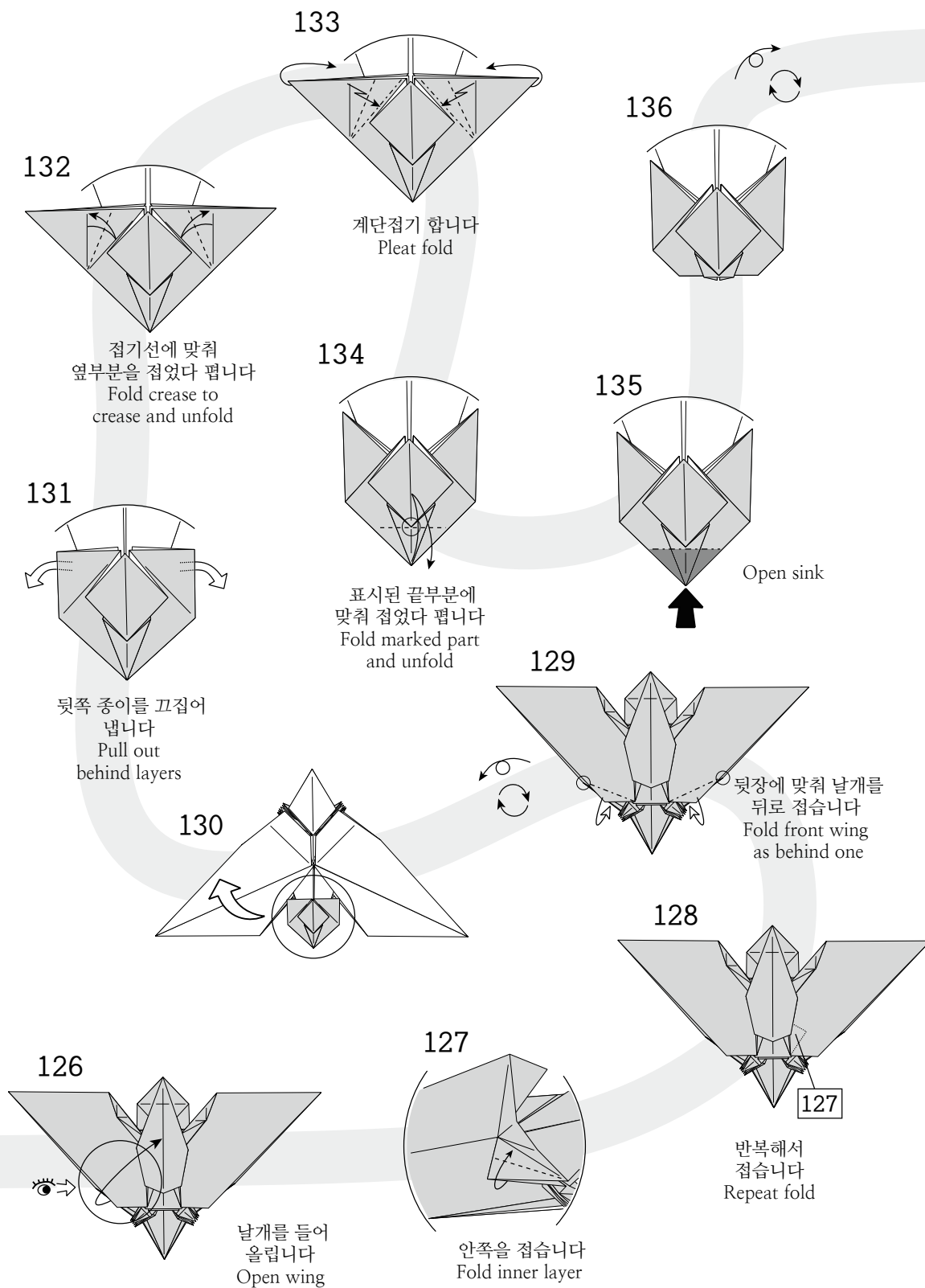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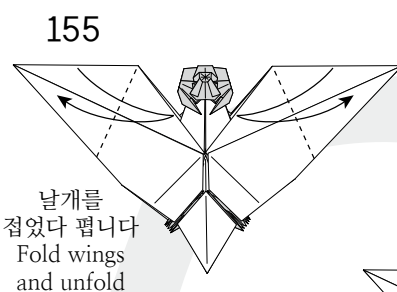


앞으로 당기면서
옆으로 접습니다
Pull out upper layer
and fold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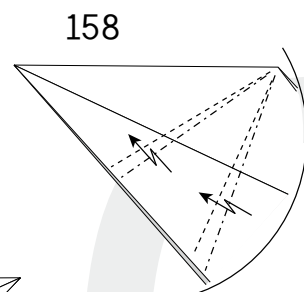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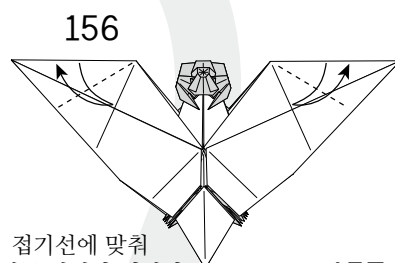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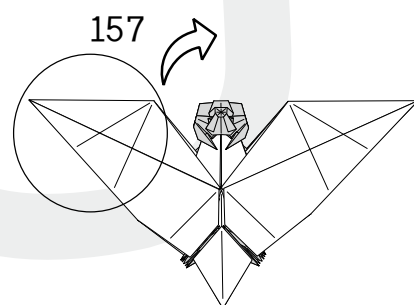
155
날개를
접었다 펴니다
Fold wings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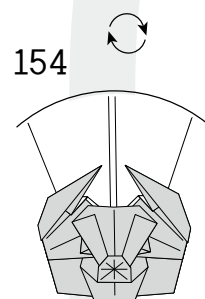
158
계단접기 합니다
Pl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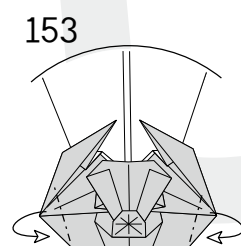
156
접기선에 맞춰
날개를 접었다 펴니다
Fold edges to
creas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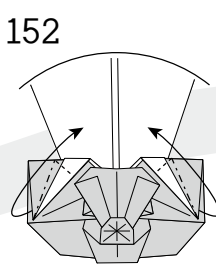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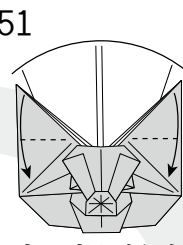
154
얼굴 완성
Face compl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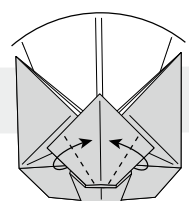
153
얼굴을
다듬습니다
Shape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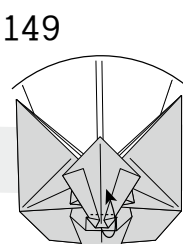
152
귀를 올려
접습니다
Fold ear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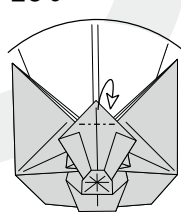
151
양쪽 귀를 접습니다
Fold ears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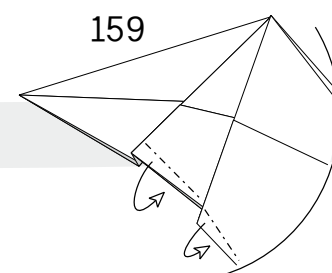
148
양옆을 접습니다
Fold edges
to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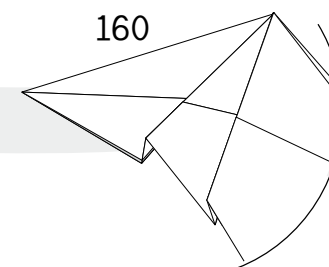
149
코를 접습니다
Fold n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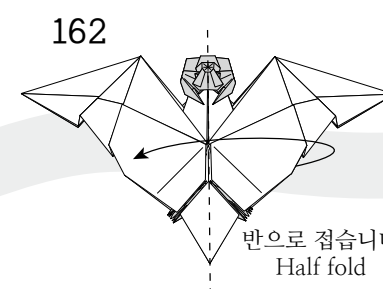
150
뒤로 접습니다
Fold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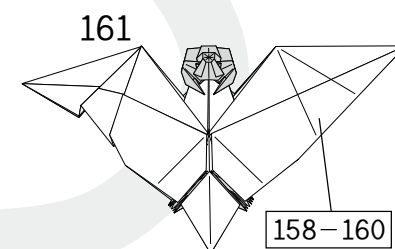
159
뒤로 접습니다
Fold back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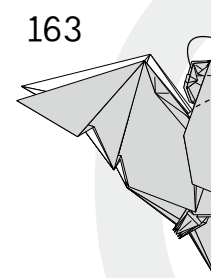


162
반으로 접습니다
Half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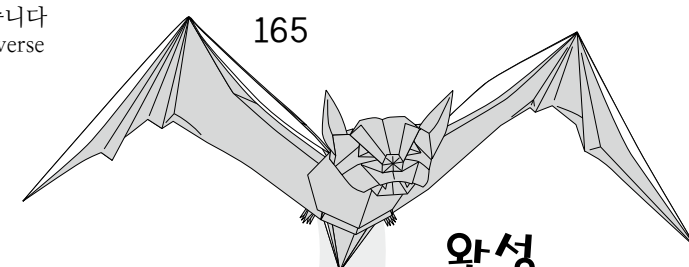


161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158-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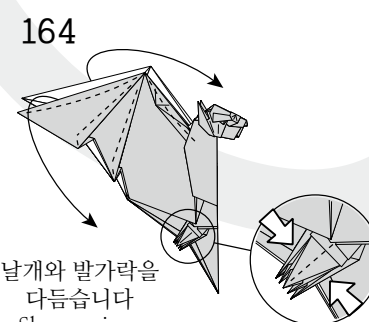


163
머리를 접습니다
Outside reverse
fold



165

완성



164
날개와 발가락을
다듬습니다
Shape wings
and toes

이인섭 (LEE in-seop) 1992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고, 서울 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실제 제 작품의 다이어그램이 책에 실린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 오리가미 탄테이단 컨벤션 북(折紙探偵団コンベンション折り図集)에 제 다이어그램을 투고해서 실린 적이 있어서 인지, 처음 다이어그램이 책에 실릴 때보다는 약간 덤덤한 편입니다.

제가 종이접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6살 때 저희 어머니가 종이학을 접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종이학을 제가 접어보고 싶어서 종이접기 책을 보고 접기를 따라한 것이 제 종이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종이접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리게 된 작품 이외에도 제가 창작한 '헬릭스(Helix)', '기린(Qilin)', '에델바이스(Edelweiss)' 등등의 많은 작품들을 다이어그램화 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유명 작가들처럼 작품집을 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종이접기란 조각, 회화나 다름없는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체계(여기서는 다이어그램이나 Crease Pattern을 의미합니다) 존재하는 특이점이 있는 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른 작가로는 미국의 브라이언 찬(Brian Chan), 일본의 카미야 사토시(神谷哲史)와 호조 타카시(北條高史) 작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호조 타카시 작가가 창작한 '대천사 가브리엘(Gabriel)'입니다. 정말 좋아해서 실제로 4~5번 정도 완성해 봤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종이접기에 관한 계획은 제 작품을 다른 사람도 접을 수 있는 난이도 내에서 다른 사람이 접은 적 없는 특이한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회화를 종이접기로 구현해 시리즈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Hello. I'm a university student who living in Gwacheon S. Korea. Actually, it is not my first time that my model's diagram published. I was submit my design to JOAS Origami tanteidan convention book, so I feel placid than my first time.

When I was 6 years old, my mother gave me 'orizuru'. I want to fold it, so I try to fold it by my own hand with many of books, that was my beginning of Origami. After it, I keep doing Origami until now. I want to make diagrams for my model besides L&D, Helix, Qilin, Edelweiss etc. And my ultimate aim is publishing my own works book like famous artist. To me, the Origami is an art that the same with sculpture or painting, and it is a craft that has characteristic which have a method -diagram or CP- for folding.

My favorite designer is Brian Chan in U.S.A, KAMIYA Satoshi(神谷哲史) & HOJYO Takashi(北條高史) in Japan. I love that model, HOJYO's Gabriel. I was folded it about 4~5 times.

After this, I will design something which no one folded ever in lower level that anybody could fold it. In my plan, I'll make well-known pictures by Origami.

Life and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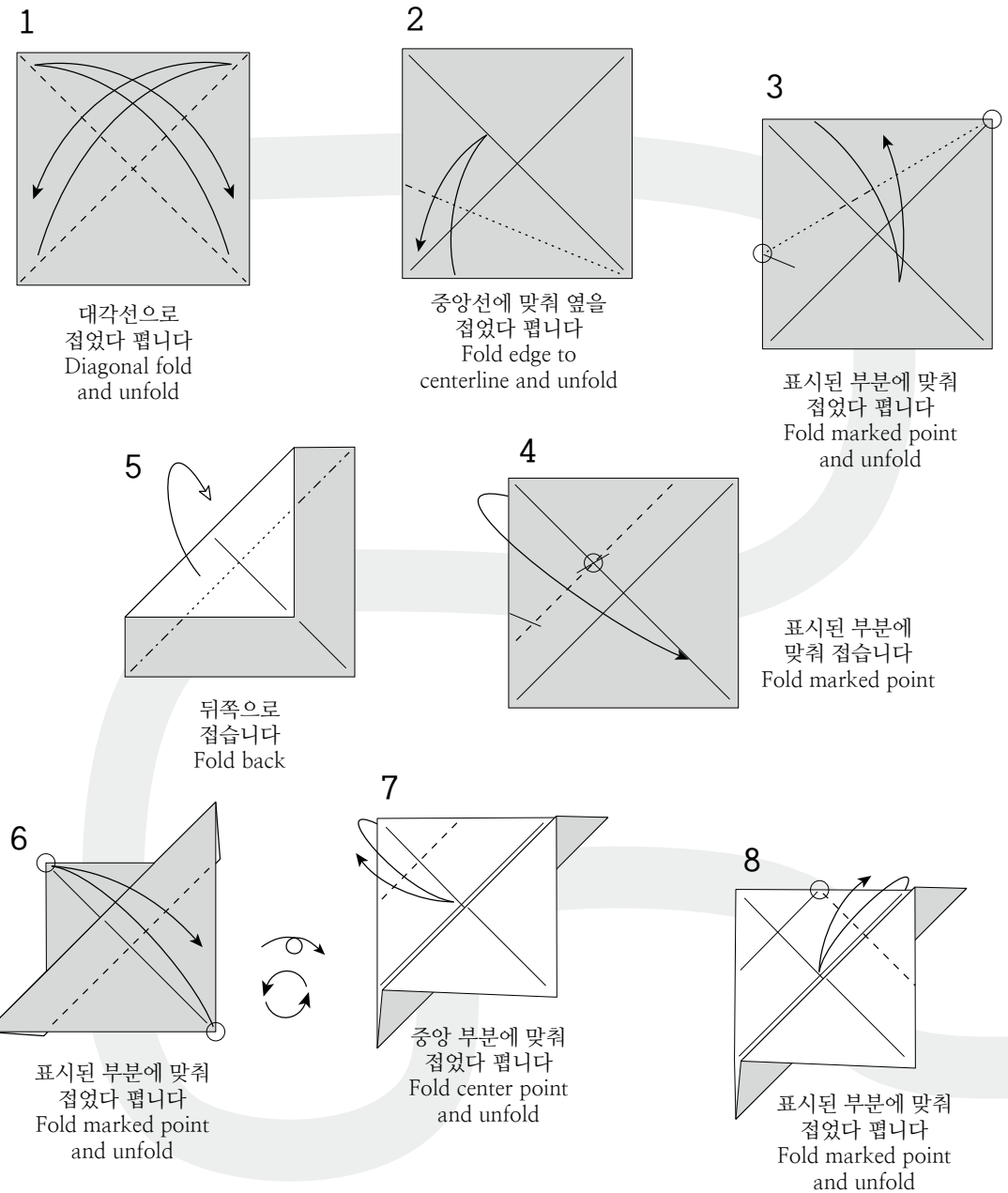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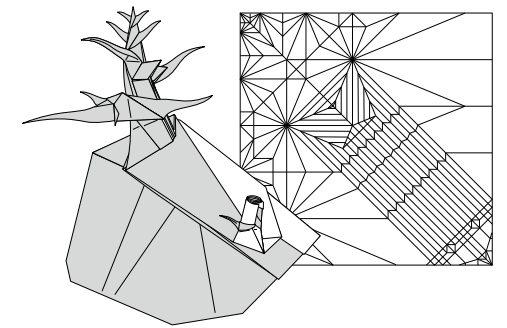
창작 : 이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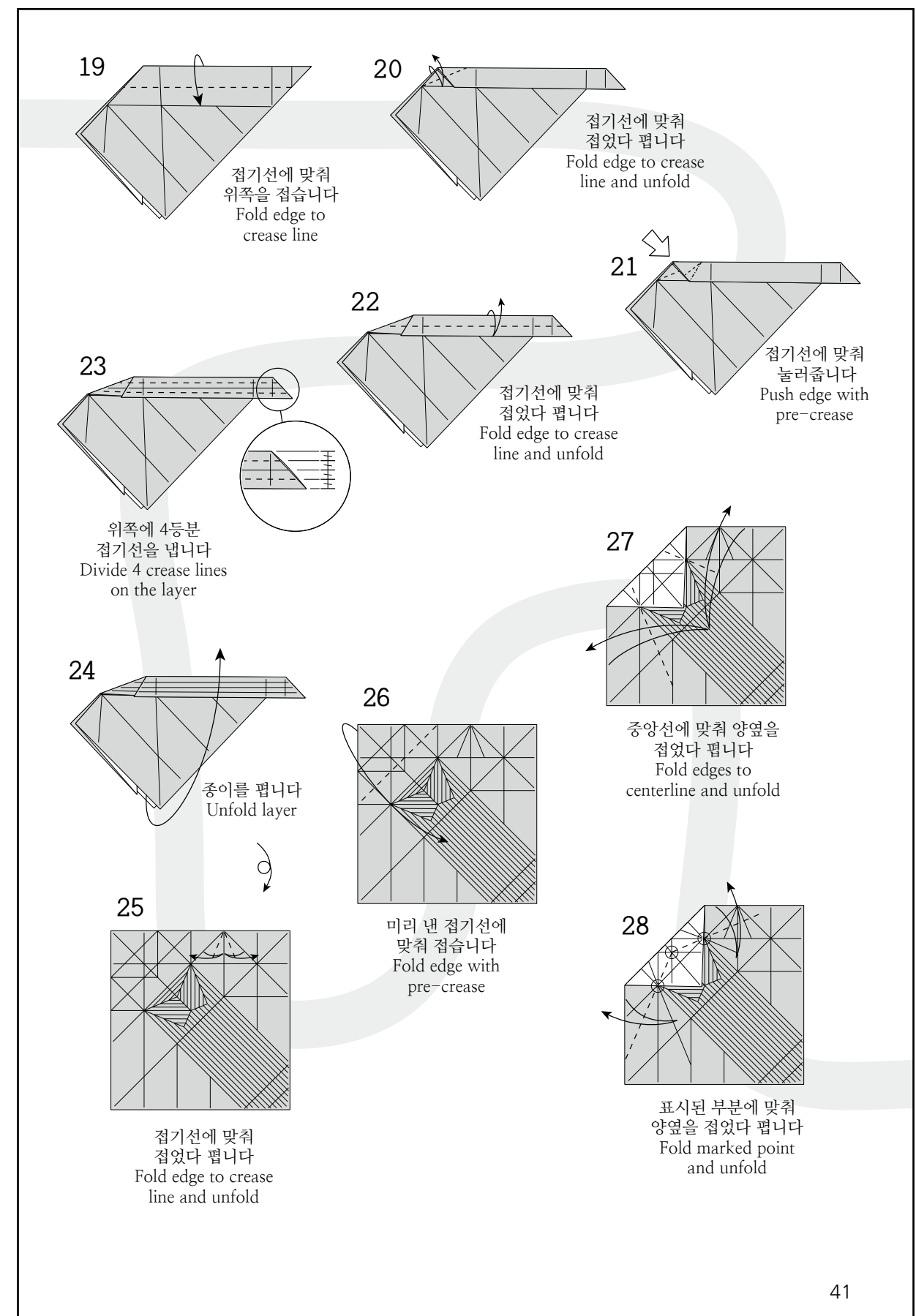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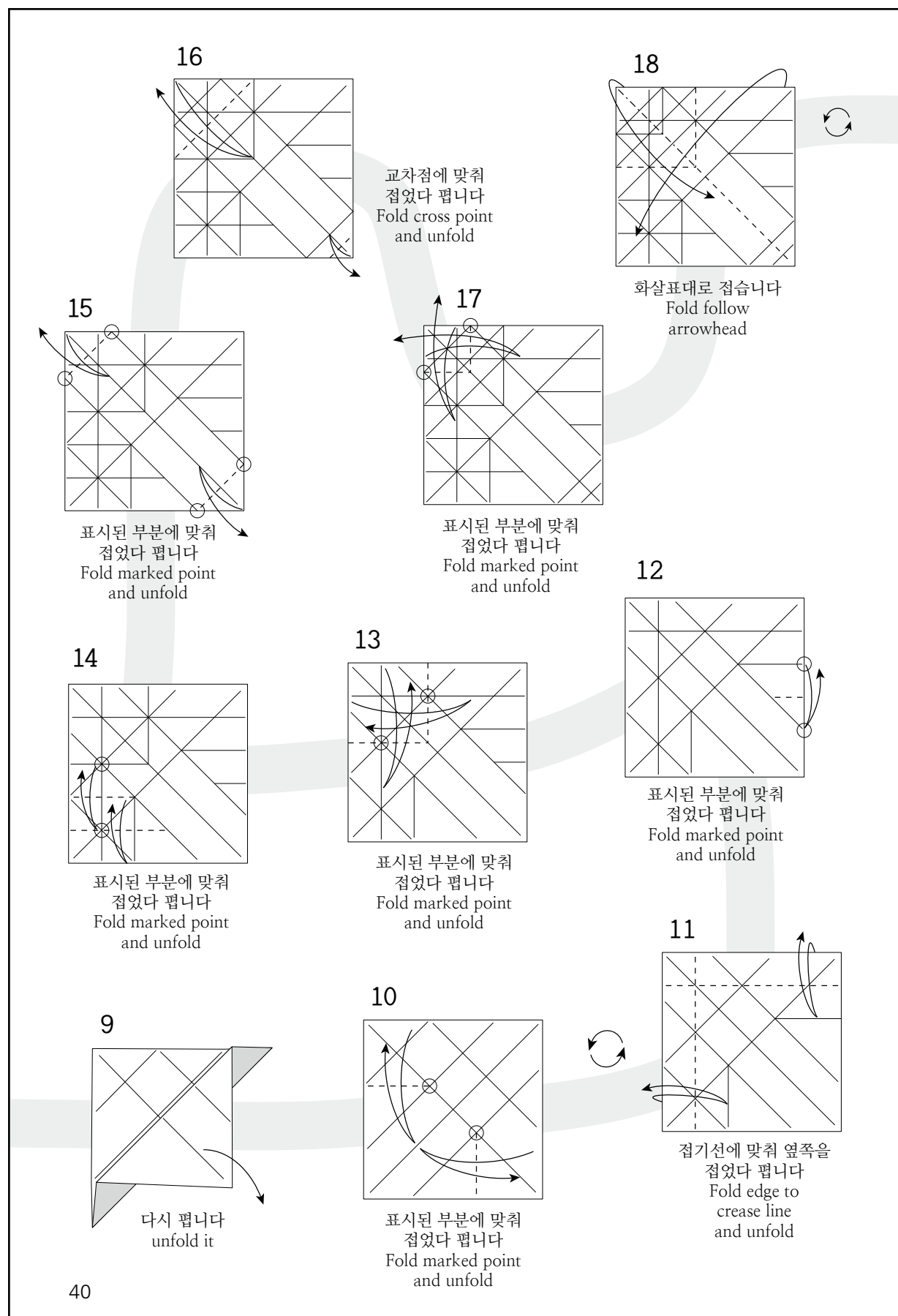
Design : LEE in-S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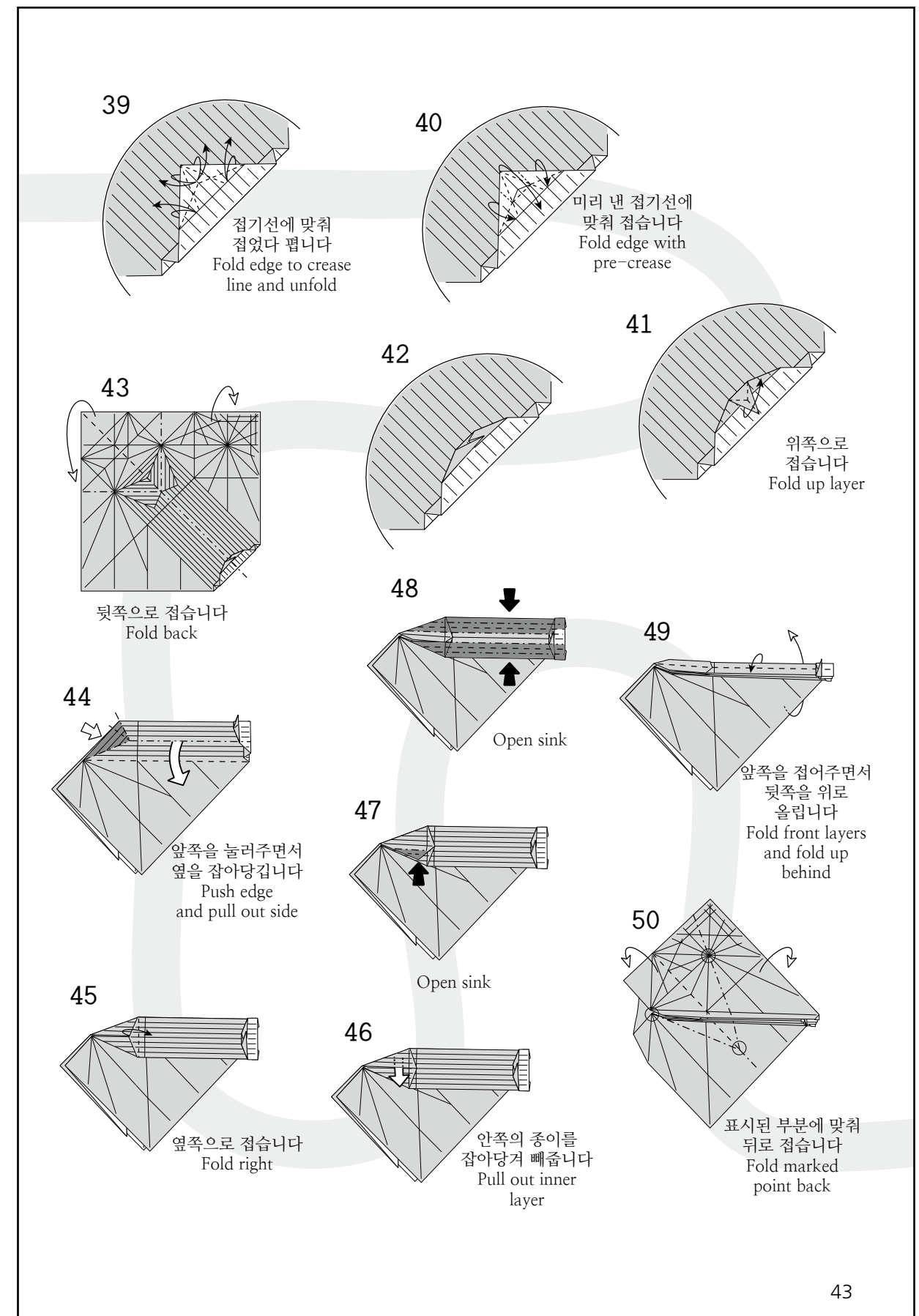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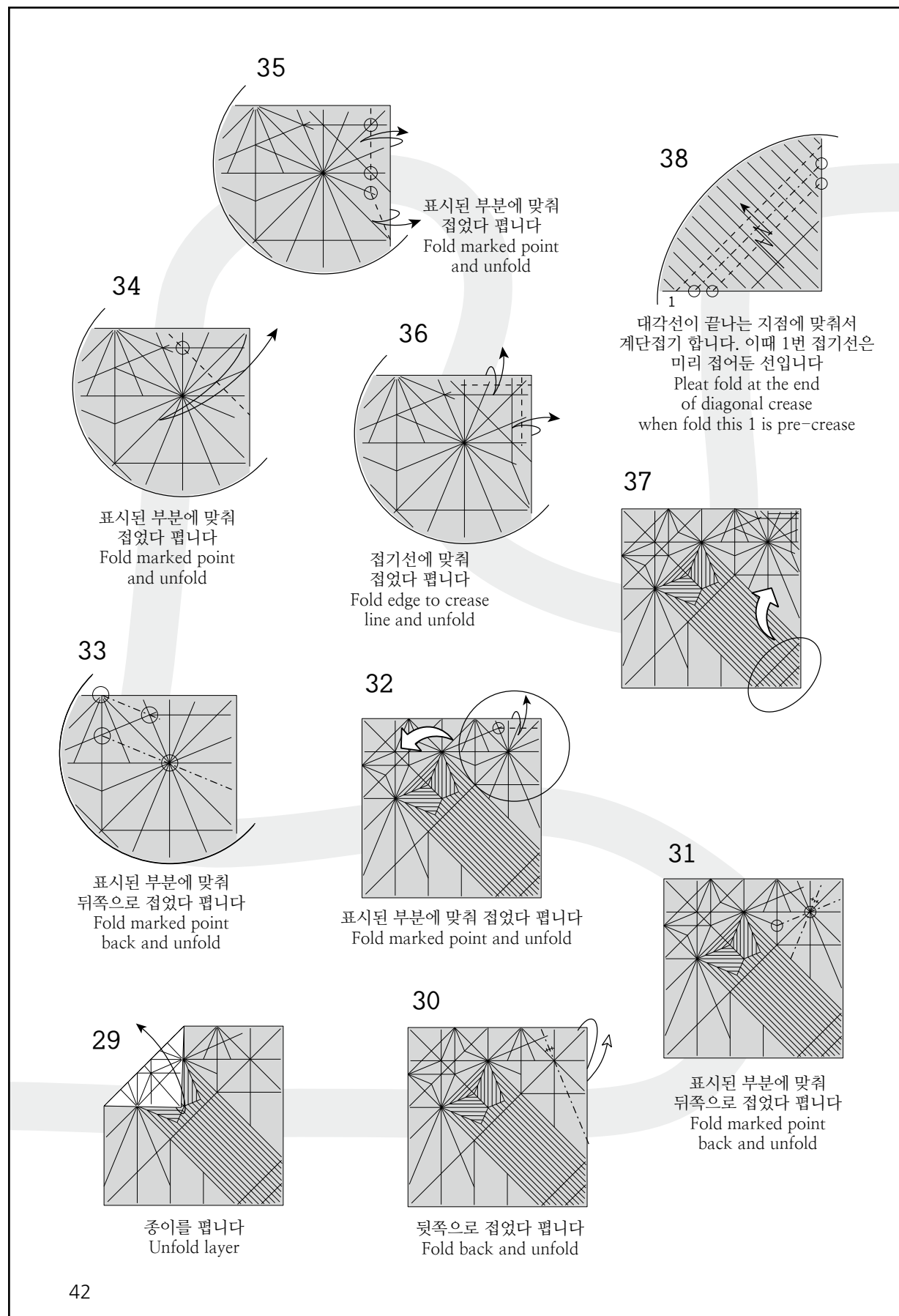
Date : 2013/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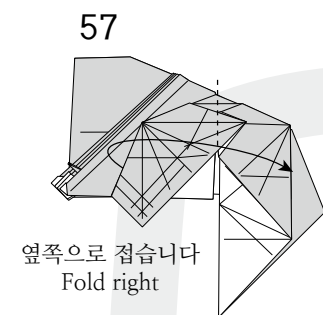
다이어그램 : 김세익

Diagrams : Se-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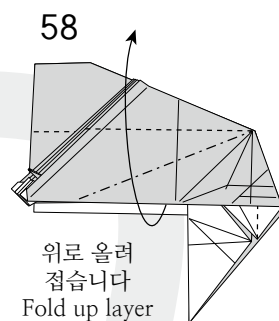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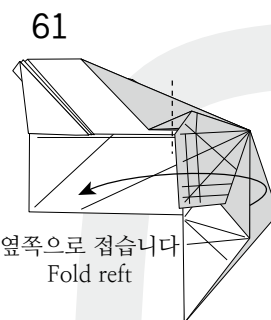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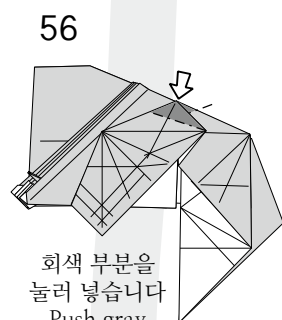
57
옆쪽으로 접습니다
Fold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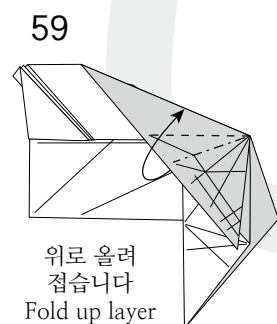
58
위로 올려
접습니다
Fold up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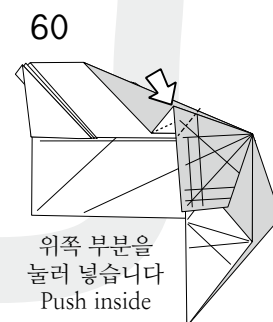
61
옆쪽으로 접습니다
Fold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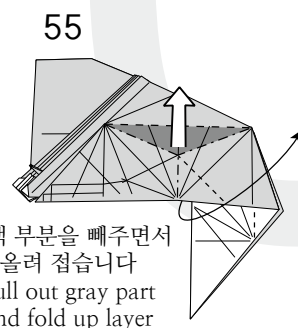
56
회색 부분을
눌러 넣습니다
Push gray
part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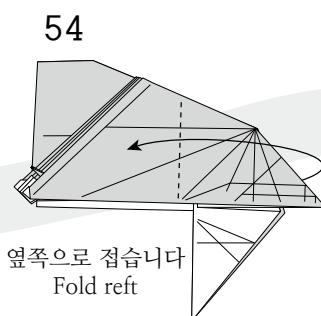
59
위로 올려
접습니다
Fold up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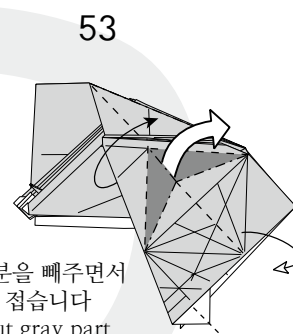
60
위쪽 부분을
눌러 넣습니다
Push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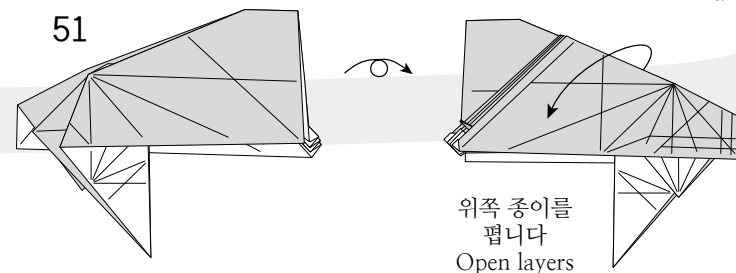
55
회색 부분을 빼주면서
올려 접습니다
Pull out gray part
and fold up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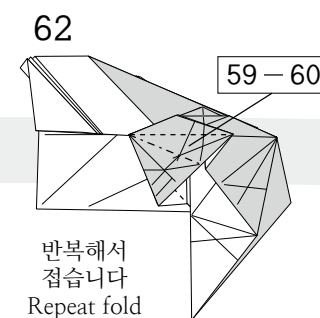
54
옆쪽으로 접습니다
Fold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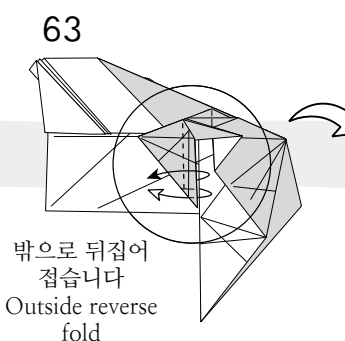
53
회색 부분을 빼주면서
다시 접습니다
Pull out gray part
and fold creas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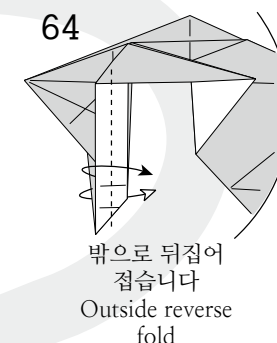
52
위쪽 종이를
펼칩니다
Open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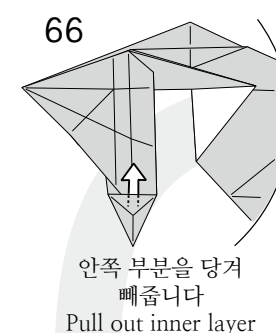
62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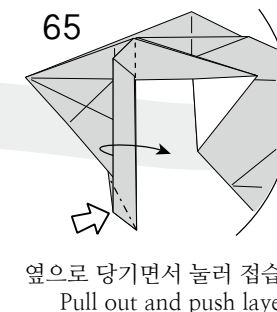
63
밖으로 뒤집어
접습니다
Outside reverse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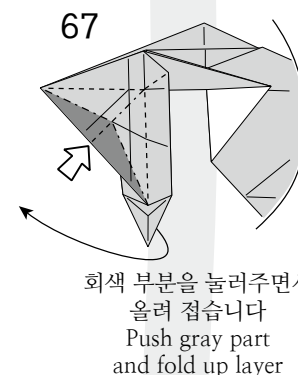
64
밖으로 뒤집어
접습니다
Outside reverse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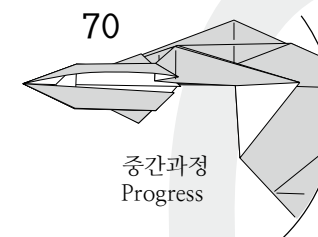
66
안쪽 부분을 당겨
빼줍니다
Pull out inner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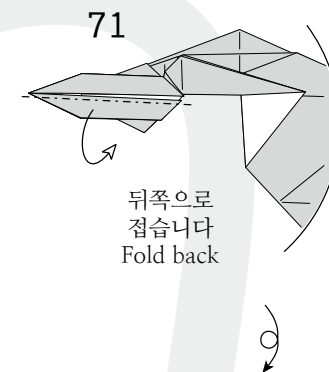
65
옆으로 당기면서 눌러 접습니다
Pull out and push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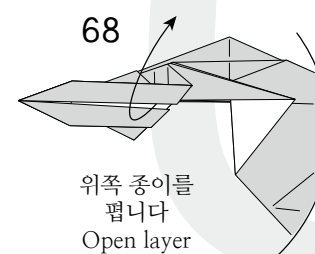
67
회색 부분을 눌러주면서
올려 접습니다
Push gray part
and fold up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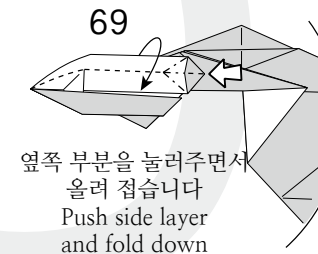
70
중간과정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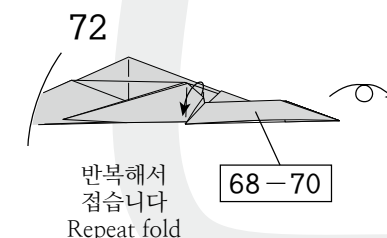
71
뒤쪽으로
접습니다
Fold back



68
위쪽 종이를
펼칩니다
Open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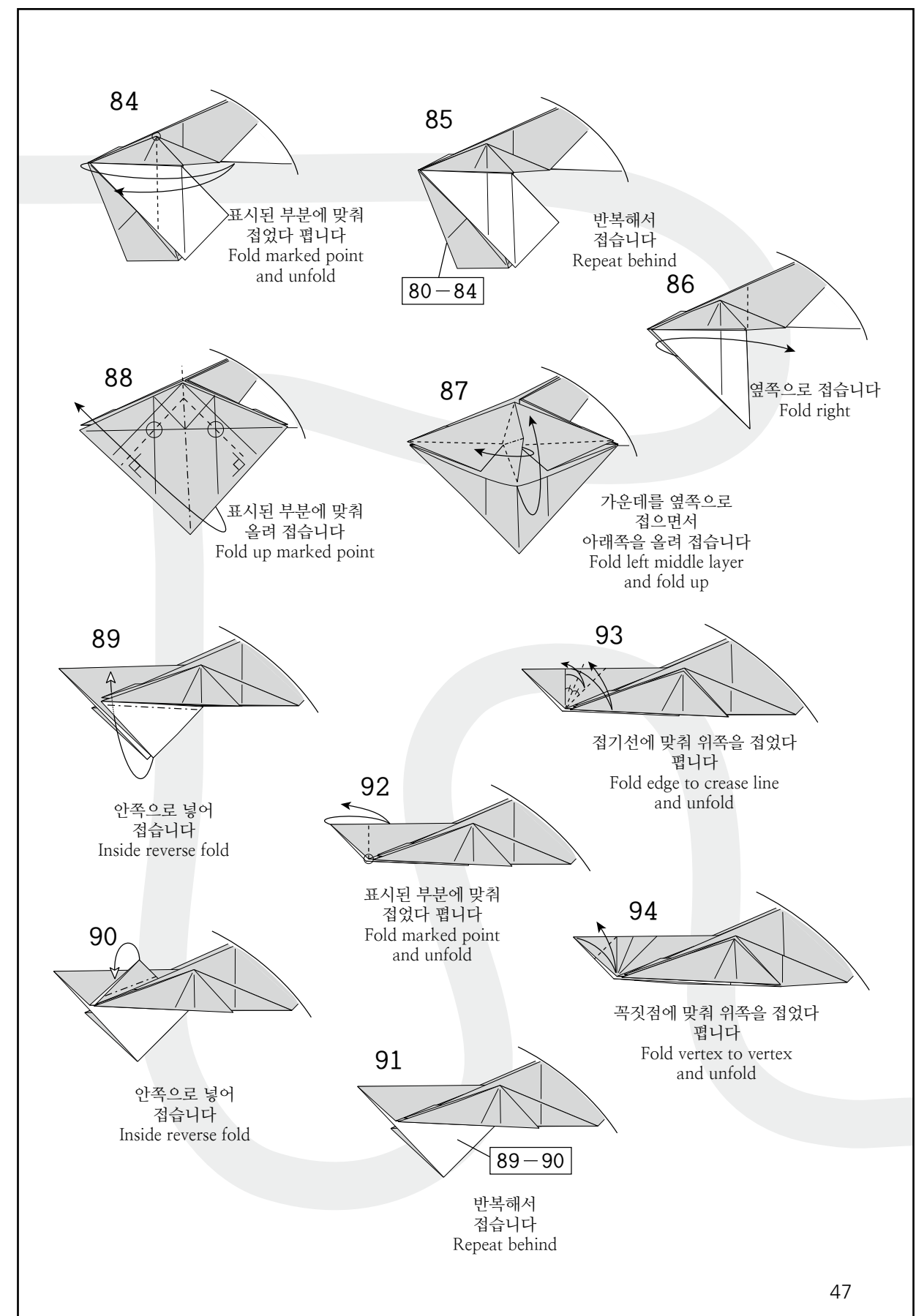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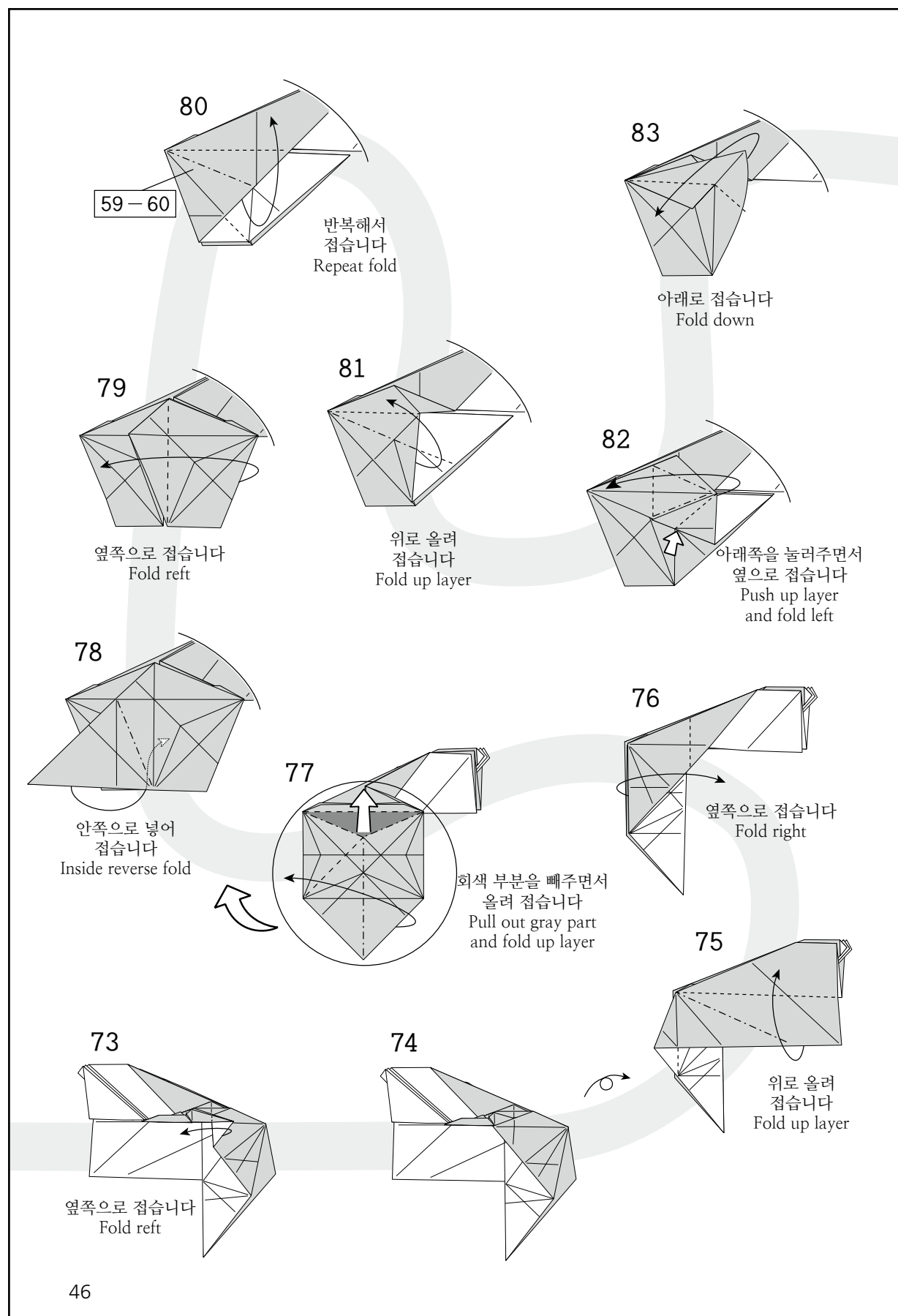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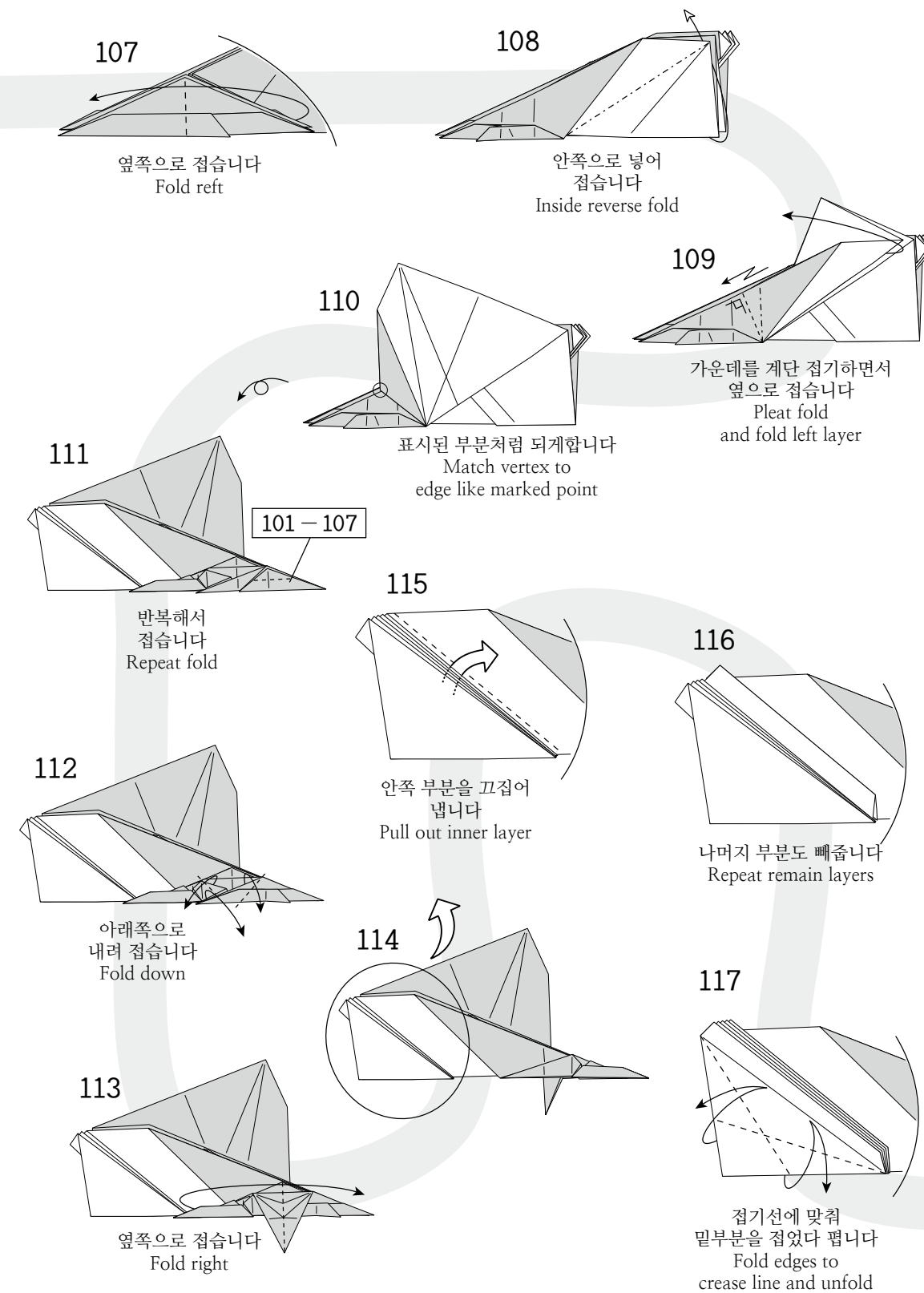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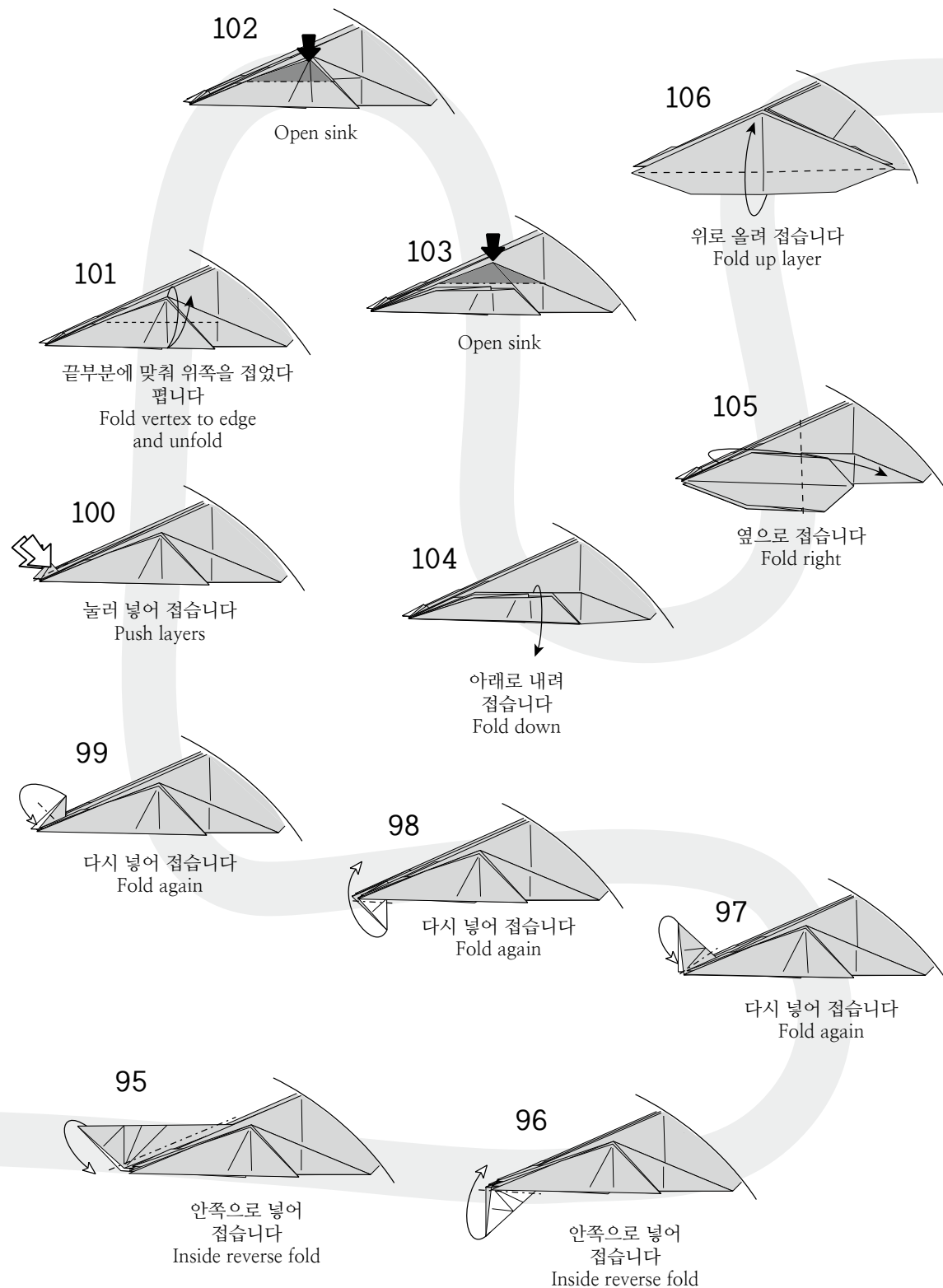
69
옆쪽 부분을 눌러주면서
올려 접습니다
Push side layer
and fold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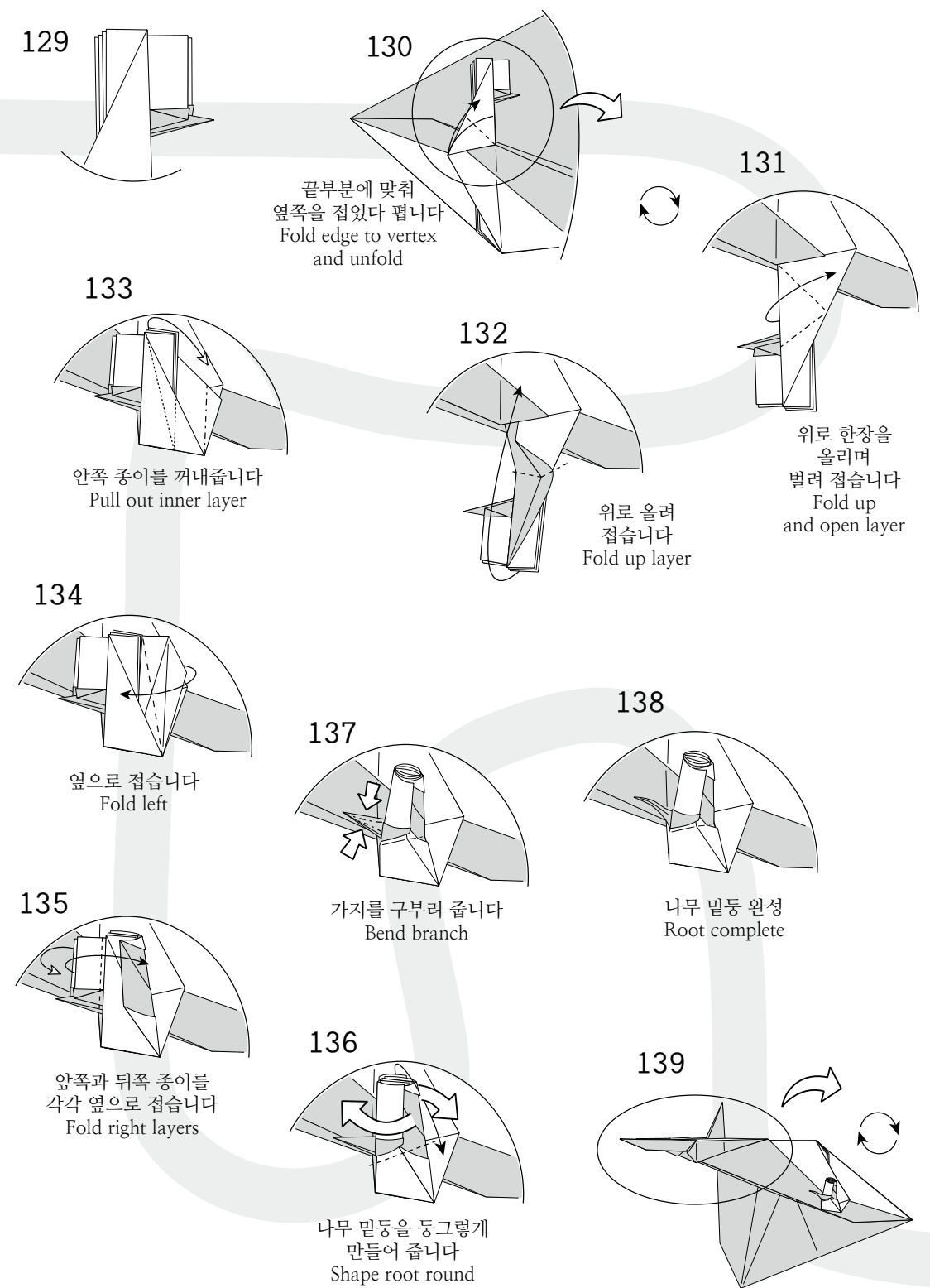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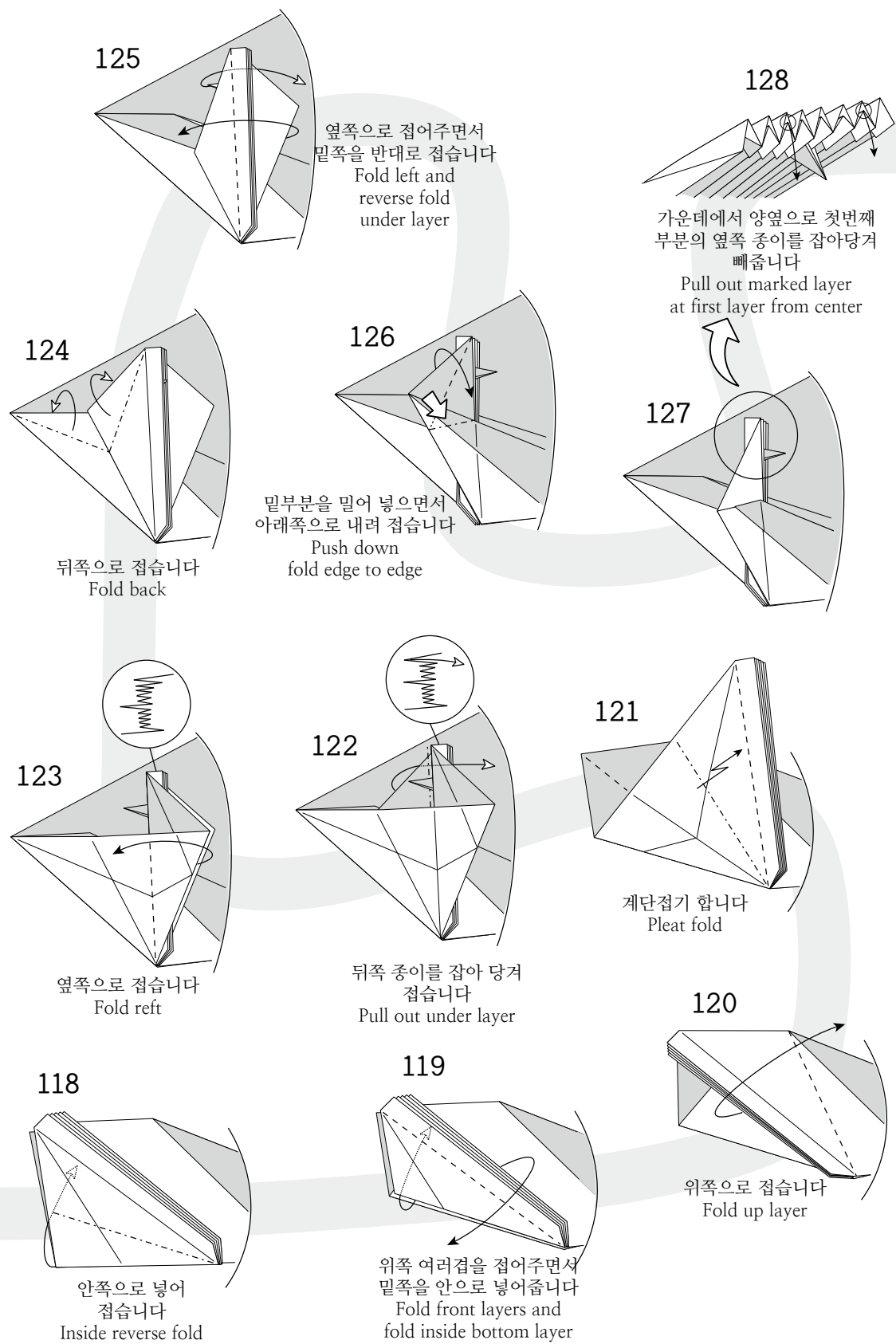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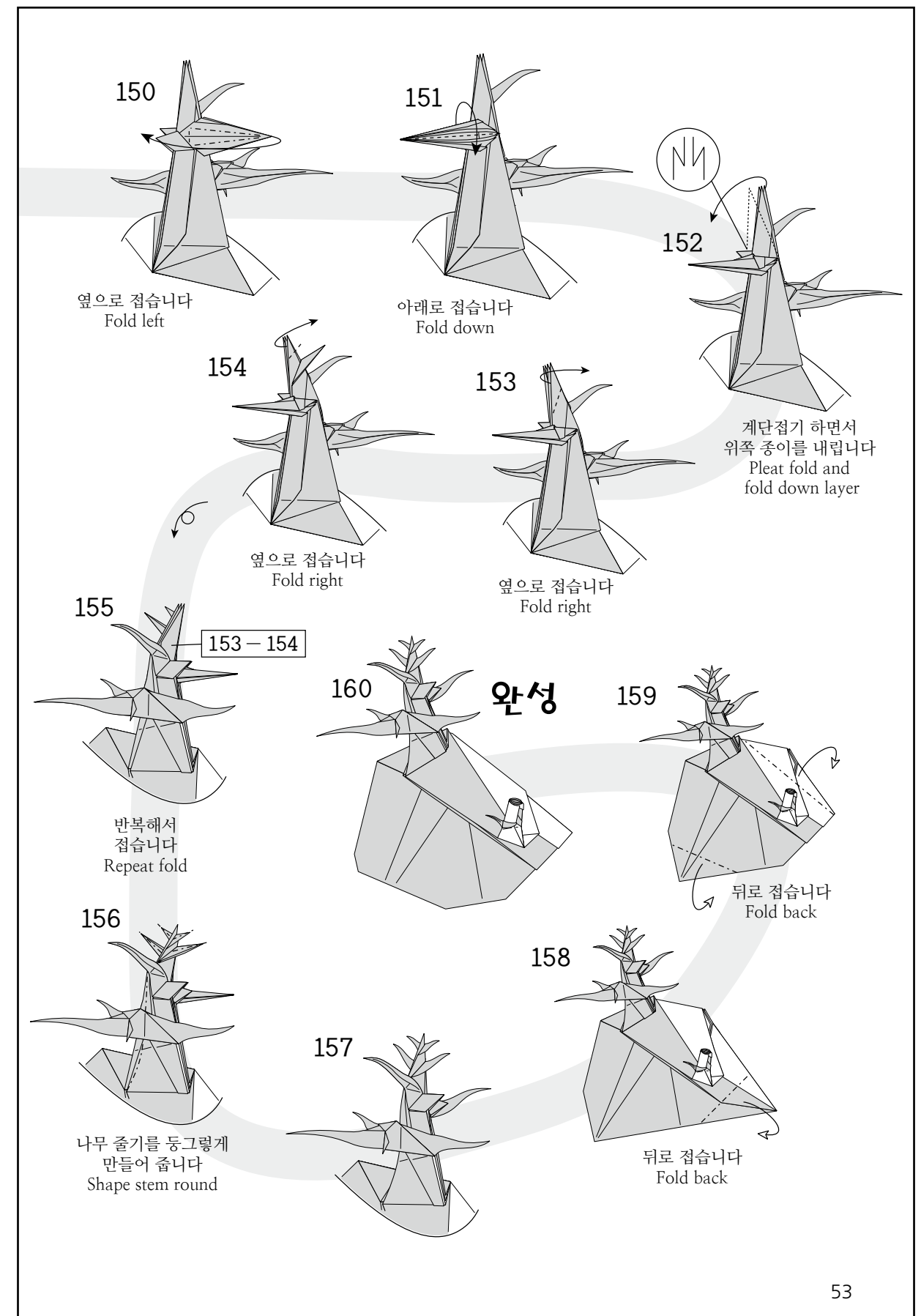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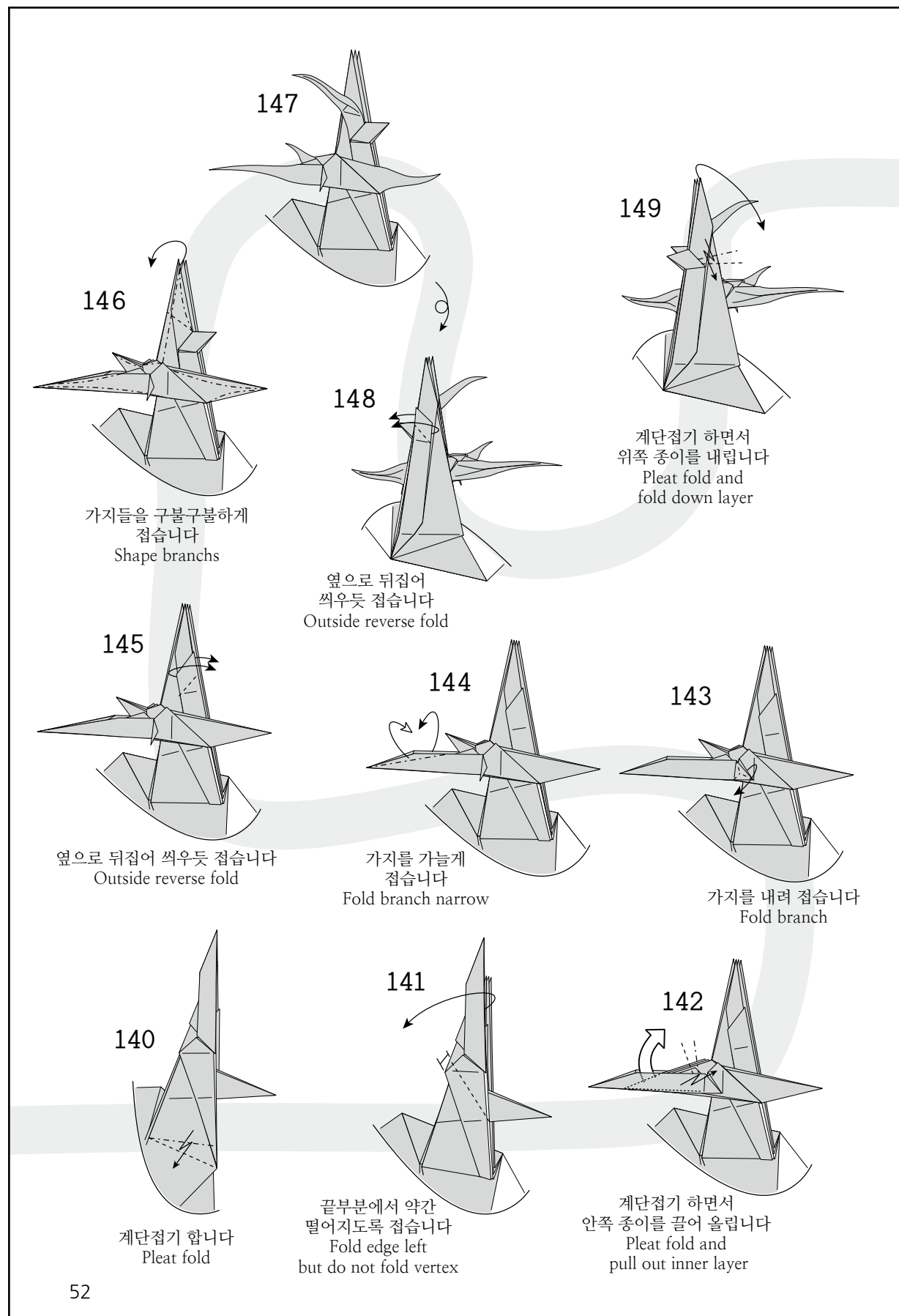
72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68-70









장용익 (JANG yong-ik) 1991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군복무를 얼마 전에 끝마치고 그간 중단했던 종이접기 창작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요즘 아이들과 달리 놀거리가 많이 부족했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분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성격 덕분에 자연스럽게 만들며 놀기를 시작했고,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종이를 이용해 종이접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작가로는 스위스의 쉬포 마보나(Sipho Mabona) 작가가 있습니다. 쉬포 마보나 작가는 실험적인 도전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놀라습니다. 그가 하는 작업들은 제가 꿈꿔오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쉬포 마보나 작가가 스포츠 업체 광고를 종이접기로 촬영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언젠가는 마보나 작가처럼 여러 디스플레이 작업도 해보고 실험적인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존경하는 작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은 바로 우리나라의 서원선 작가님입니다. 서원선 작가님께서는 종이접기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근대의 창작 종이접기는 더욱 복잡하고 더욱 어려워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서원선 작가님께서는 항상 종이접기의 본질을 담아 작업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서원선 작가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현재 학업인 디자인과 종이접기를 연계해서 실험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접촉해보면서 창작 예술 종이접기의 활용 분야를 꾸준히 찾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종이접기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광고, 출판, 전시회, 교육 분야지만 가장 큰 틀은 설치미술로 정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하게 될 여러 작업들을 이용해서 살을 붙이고 다듬어서 궁극적으로는 종이접기가 회화, 조각에 뒤지지 않는 조형예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종이접기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종이접기가 아동의 교육목적과 취미 수준에 그쳐 있지만 예술의 본질적인 것을 담아내서 한 분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Hi. I am a student who has studying design in university. I was discharged from R.O.K army recently. and restart my own design & folding. I was born in countryside that has not many of toys or playing games. And my parents was so busy, too. so I had many times alone. Therefore I like craft & disassembly. Consequently I play with make something. and the paper was best object to play with.

I observe carefully that guy. Sipho Mabona in swiss. he has doing many experimental challenge, and I always feel surprise about that. His works are which I dreamed. this is the reason for it. Aactually, Mabona made a CF for sports company by Origami. I want to do that, too. And SEO won-sun that my respect artist in KOREA. his bearing about Origami is very wonderful. The modern Origami has more complex trend, but he is different. he always doing essential Origami. So I admiration for him.

At the end, I hope to challenge which has combine Origami with my design study. Besides design, I want to contact various area. and finding artistic Origami's application field. Today, the Origami area is AD, Publishing, exhibitions, educations. but I will have a frame for installation art. and refine it. In the end, the Origami being a better plastic arts than picture or sculpture. One more thing, my ultimate plan is breaking The Origami's stereotype. it's general purpose is chidren's educations and hobby. but I will try to it will be an art. And gain the recognition of everyone's.

복어 (Pu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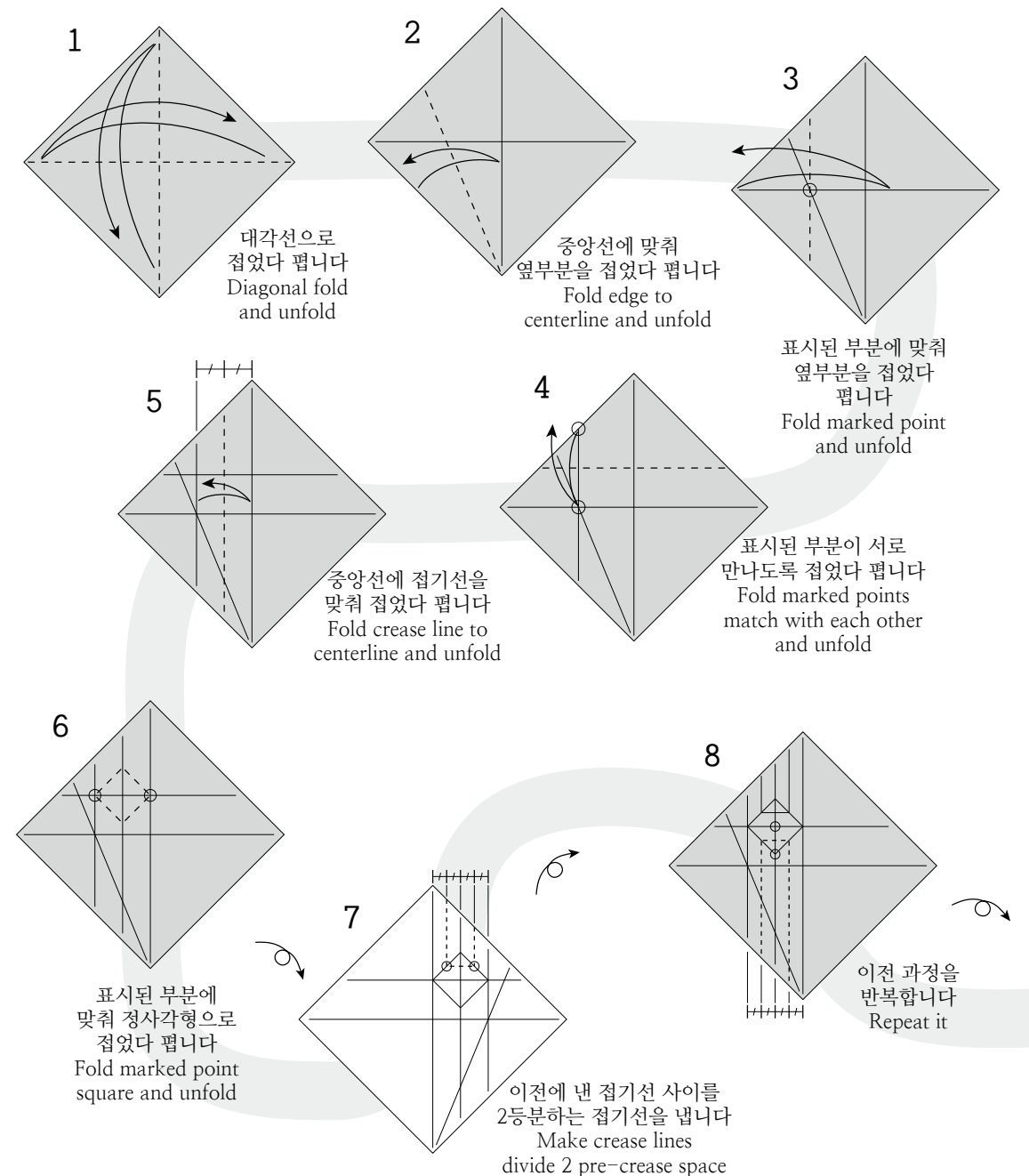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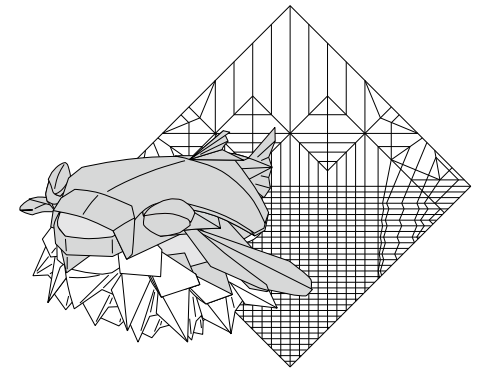
창작 : 장용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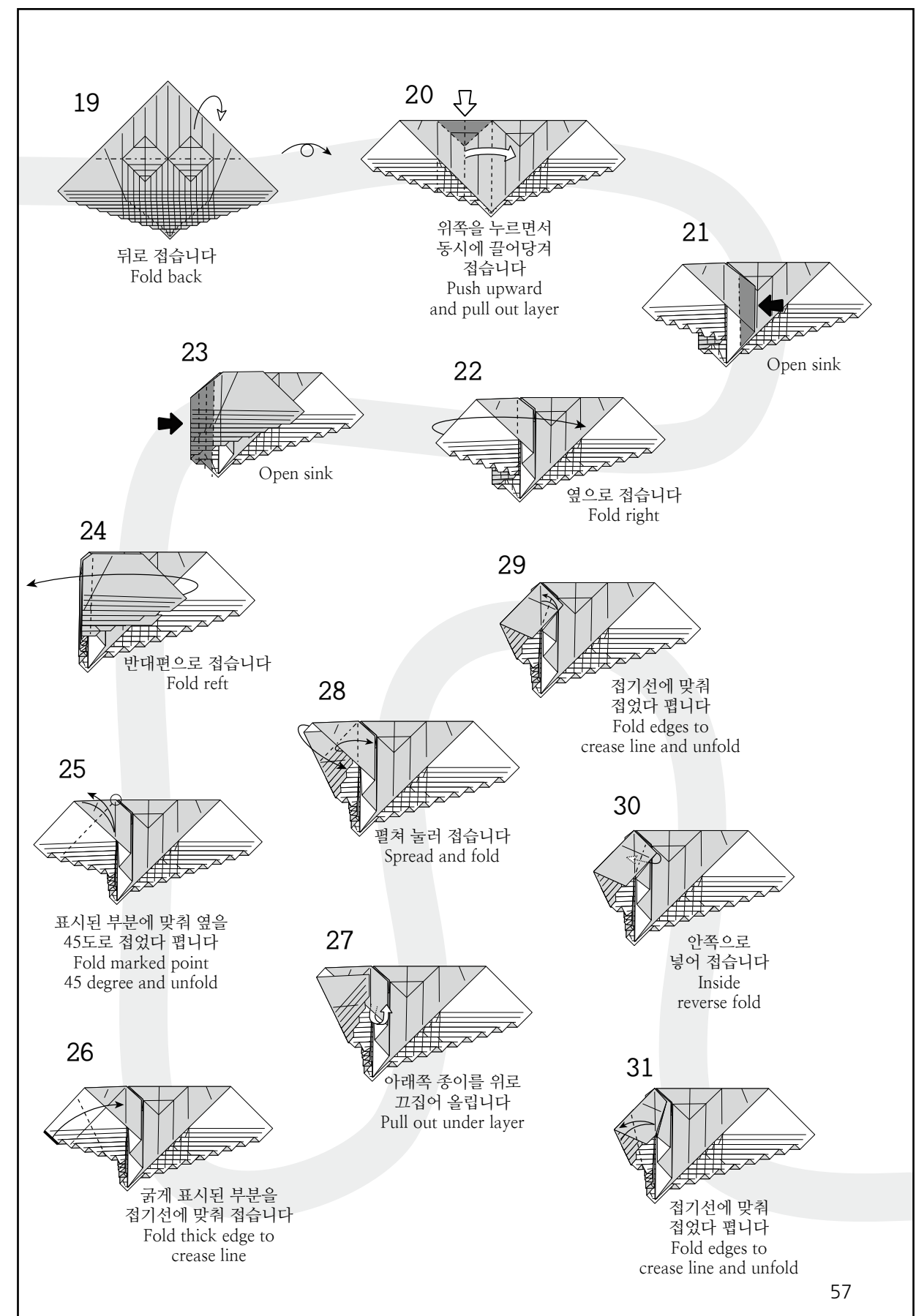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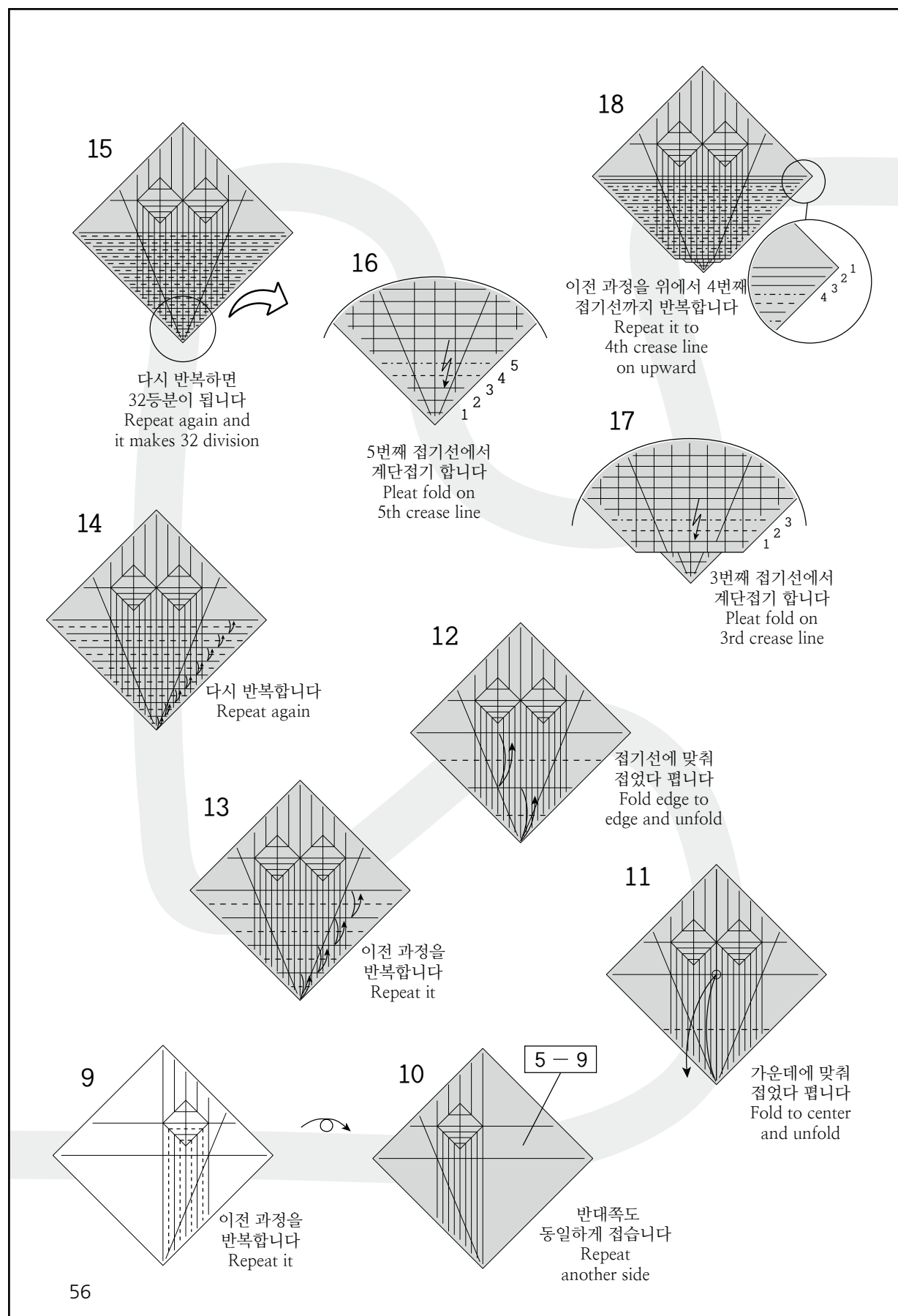
Design : JANG yong-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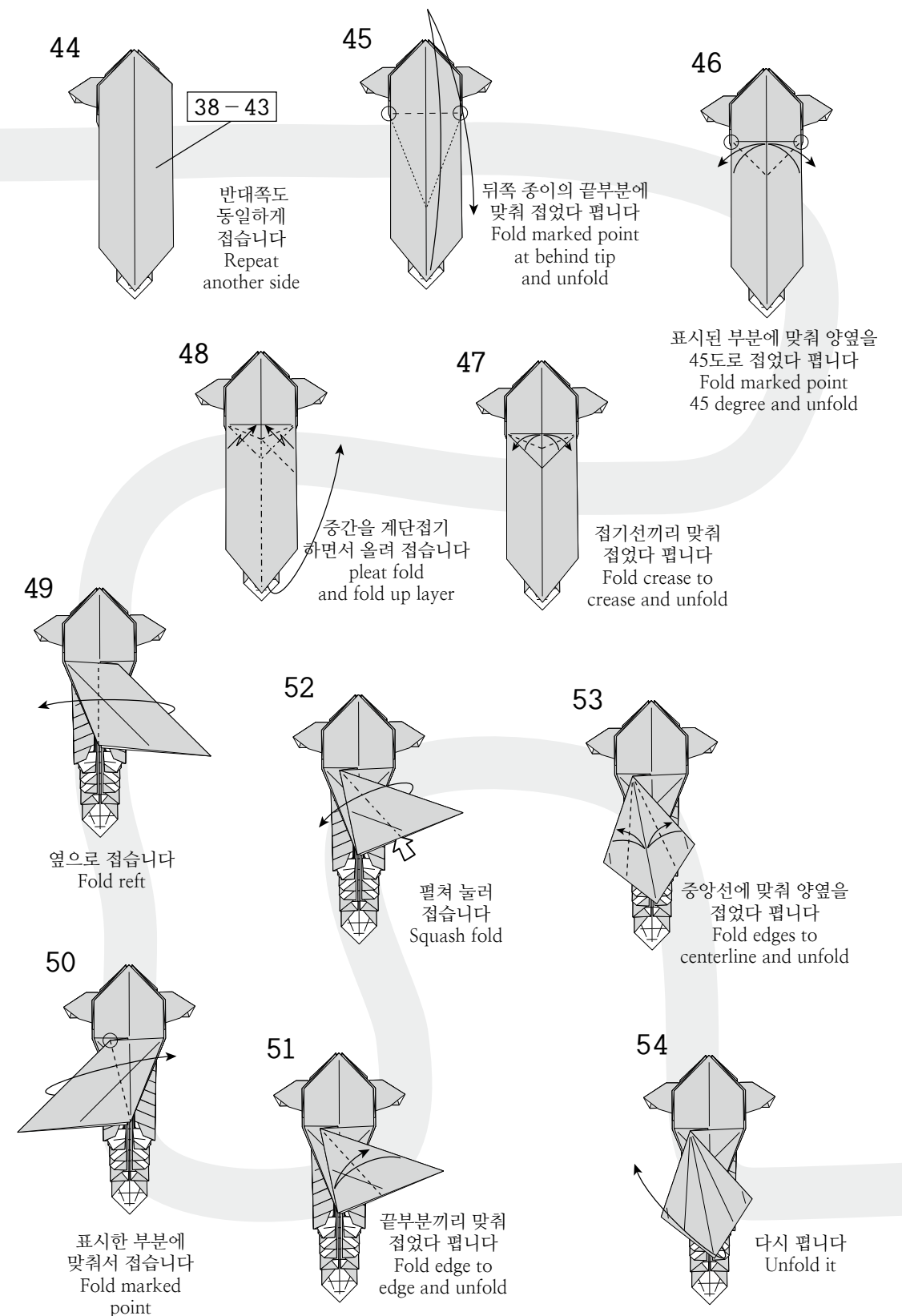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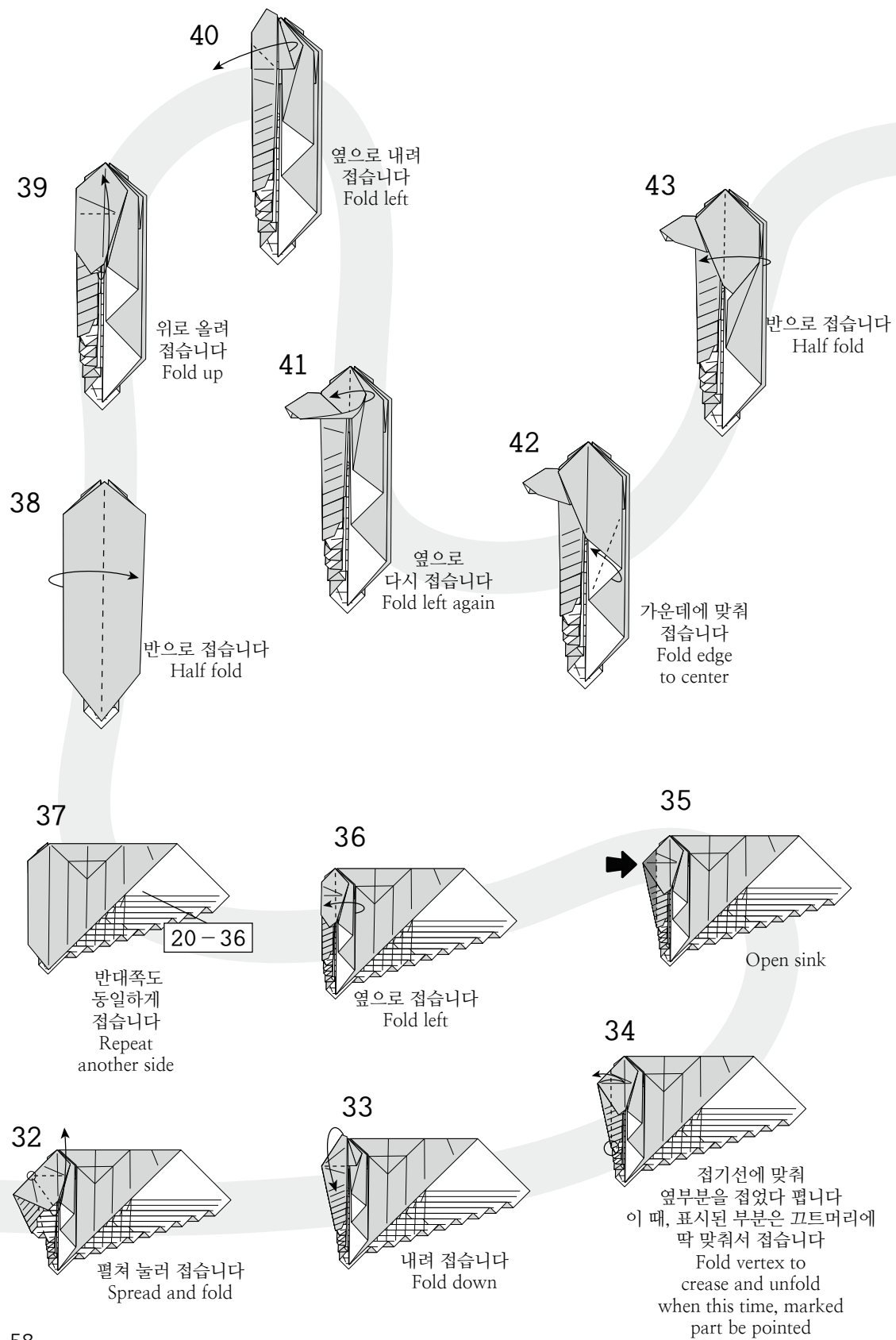
Date : 2014/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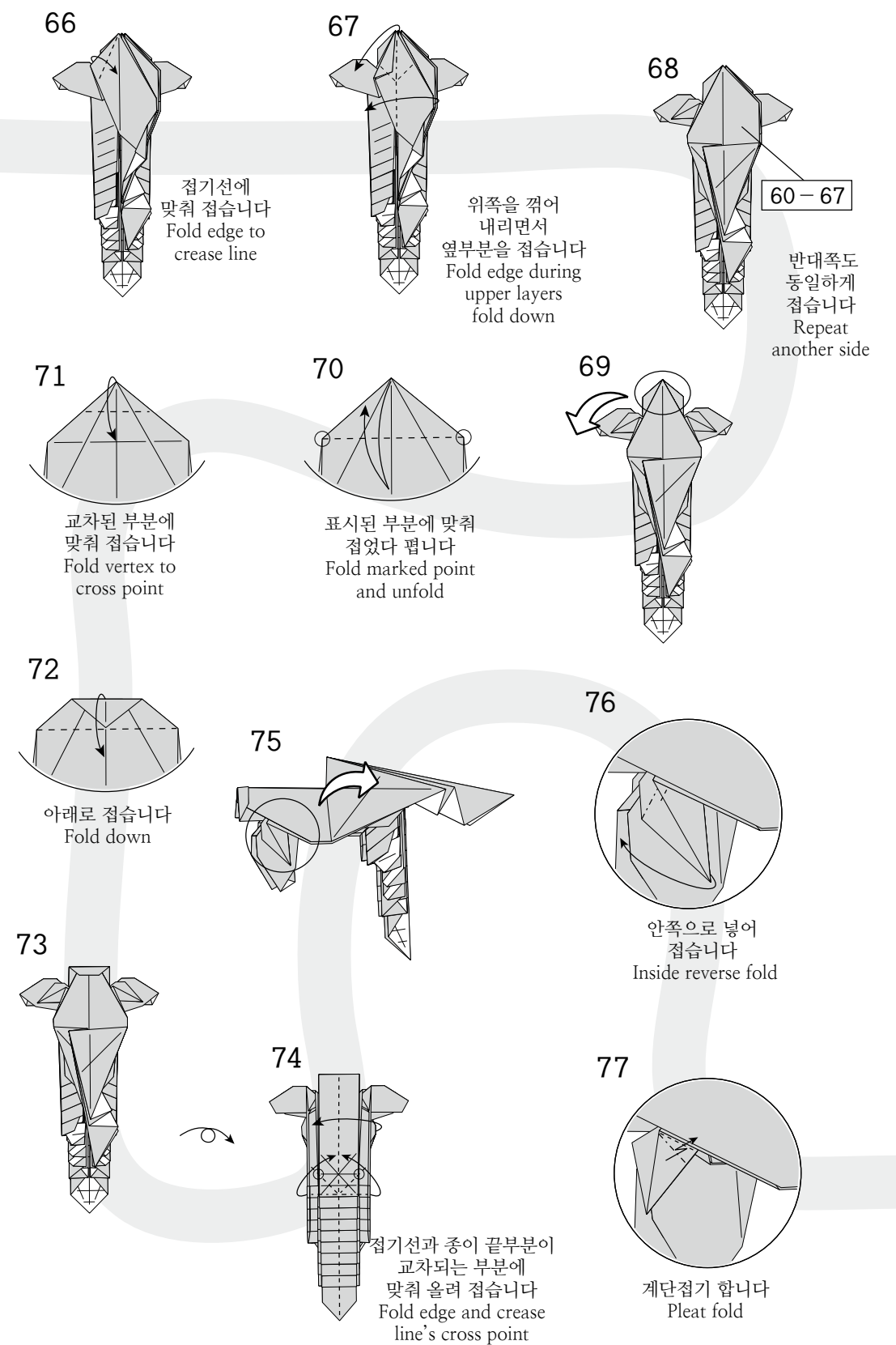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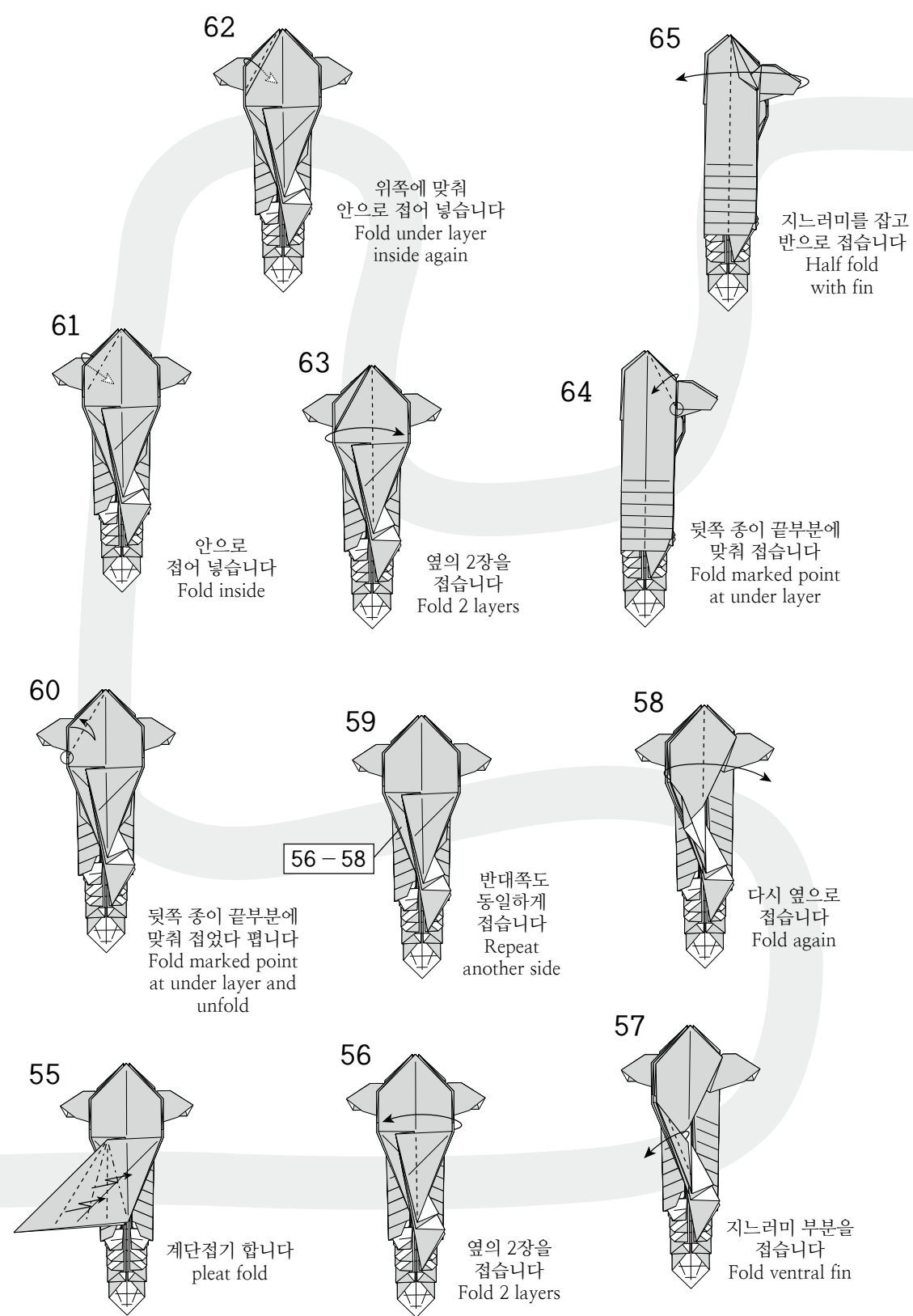
다이어그램 : 김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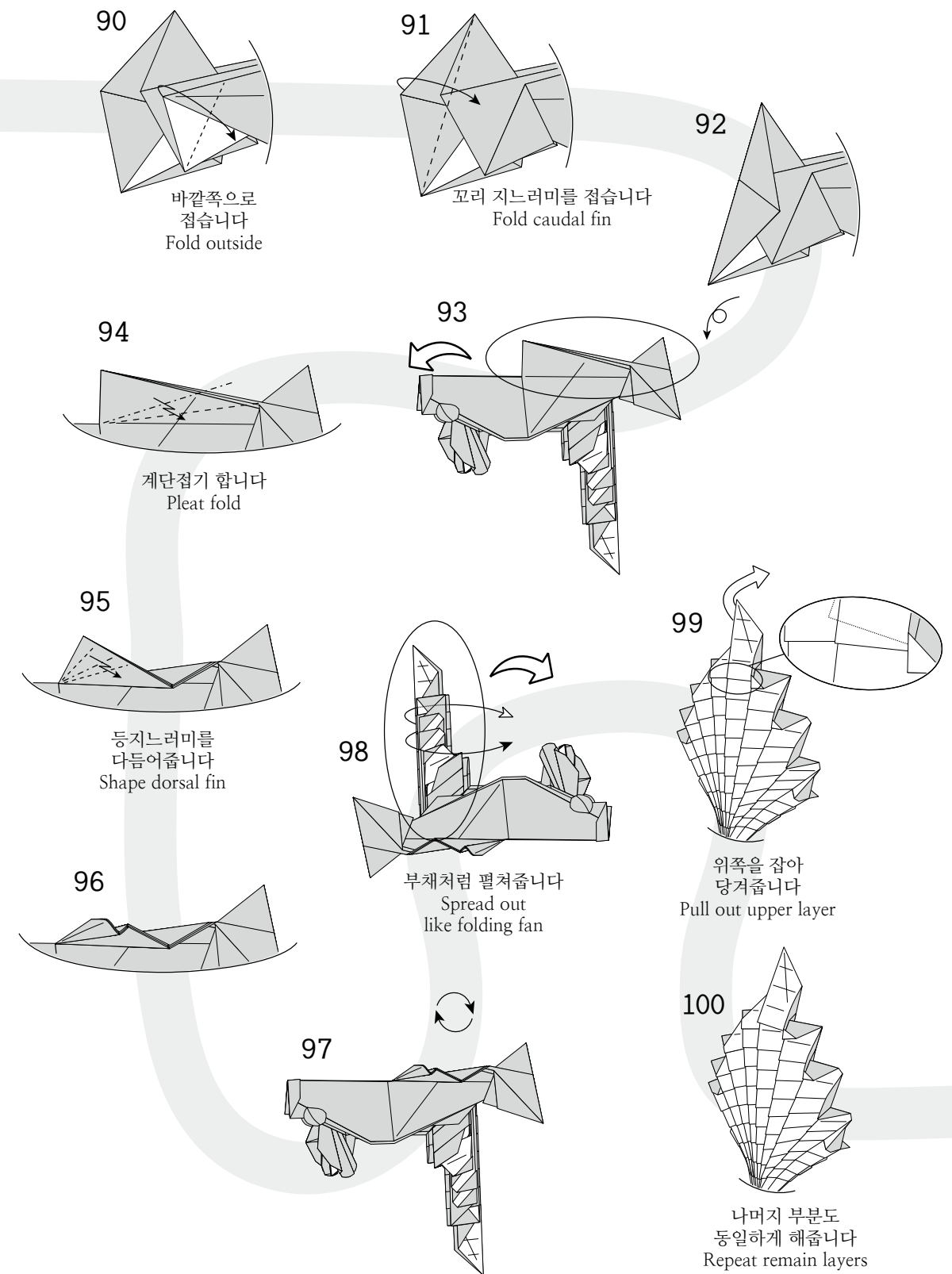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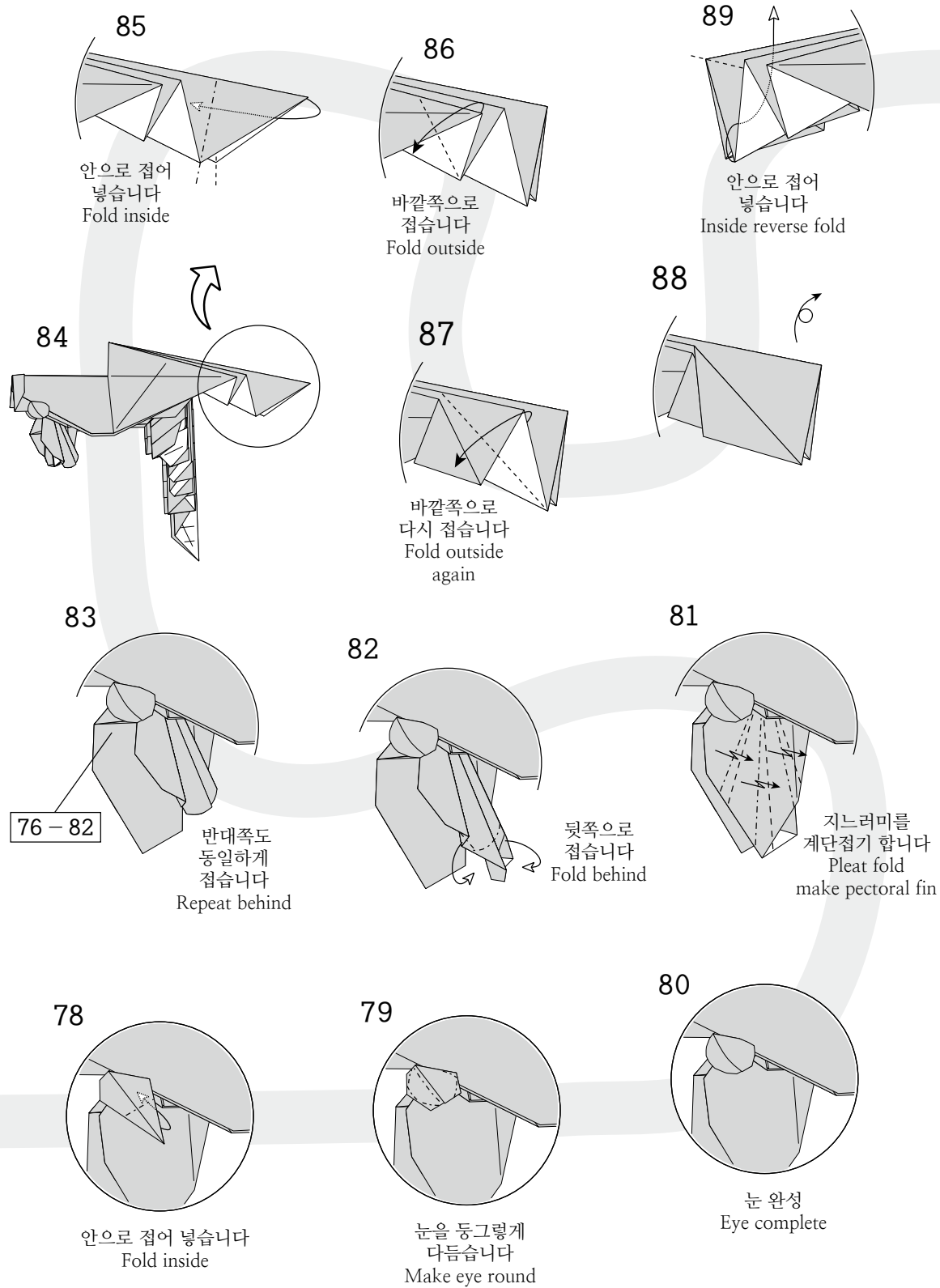
Diagrams : Se-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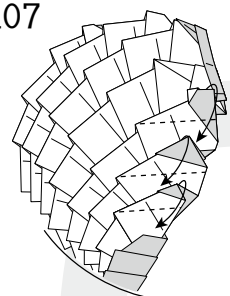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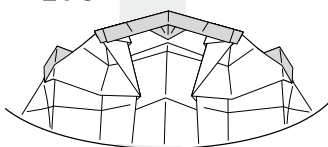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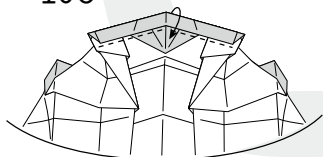


옆부분을 내려
접습니다
Fold edges down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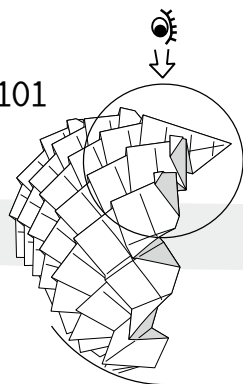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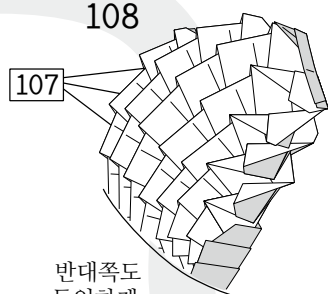


다시 내려 접습니다
Fold edges down again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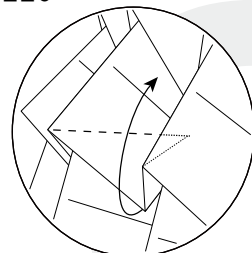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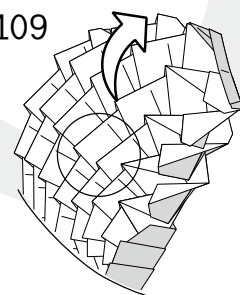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습니다
Repeat behind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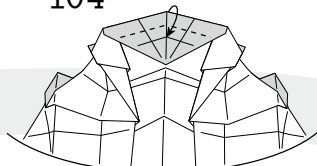


안으로 접어
넣습니다
Inside reverse fold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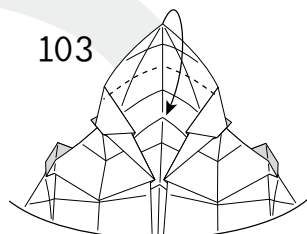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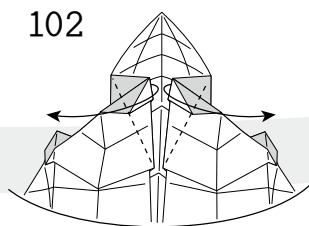
교차점에 맞춰
윗부분을 접습니다
Fold edges to
cross point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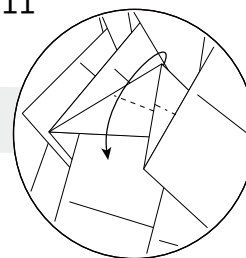
끝부분과 끝부분이
만나도록 접습니다
Fold vertex to vertex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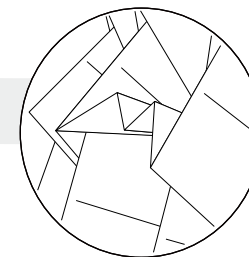
양옆을 바깥으로 접습니다
Fold edges to outside

111



아래로 내려
접습니다
Fold down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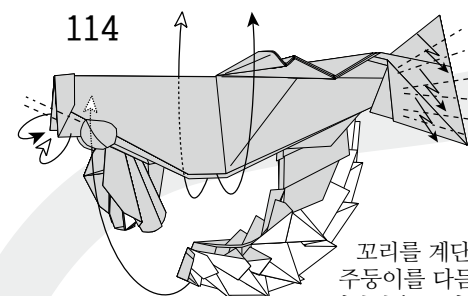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Repeat remain layers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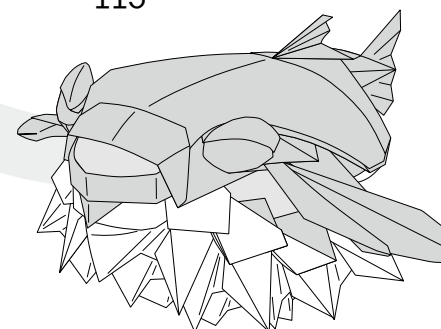


114



꼬리를 계단접기하고
주둥이를 다듬어준 다음,
배부분을 끌어 올려 둥글게
해줍니다
Pleat fold caudal fin
and shape mouth, body

115



완성

김세익 (se-ik KIM) 198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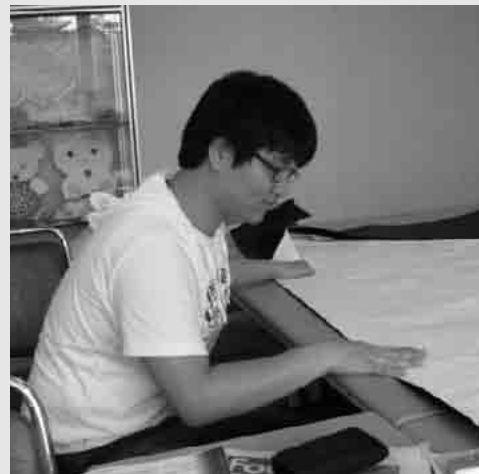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의 편집자를 맡은 사람입니다. 9살 때부터 종이접기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일을 해온 시간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종이접기에 관련된 일은 대부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귀여운 교육용 종이접기부터 정말 어렵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은 접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슈퍼 컴플렉스 계열 작품까지... 약 20년이란 세월 동안 종이접기와 관련된 일을 쫓 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에 닿은 곳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 제작이었습니다.

사실 종이접기 작품은 접는 방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품의 창작만큼이나 이러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는 사람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여태까지 많은 작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아까운 작품이 하나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계속 제작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 능력과 여건이 받쳐주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구입하신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을 최대한 즐기면서 접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작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전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아보세 출판사와 후원해 주신 한국제지와 한국창작종이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해 준 작가 친구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 책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2014. 06.18-



Hello! I am the Editor who has drew in this diagrams. My origami life is about 20 years, when i started it 9 and until now. So I spend many times for origami, and I almost had all of works about it. Very simple & cute origami for education, and too complex to fold it generally. I did all of it. and I finally got this. The diagramming.

Actually, the origami models are very important. And Folding sequence, as well. Sometimes, the diagrams are all of them. But it is too difficult to draw it. It takes so many times, and needs patience. As a result, many of models been forgotten by people. So I think that I will save this for many of origami designs. Of course, till my ability & conditions are allowed. I want to know you that how many peoples are try to make this book. And enjoy it! Many of Koreans has good talent for origami. and I tell you that by this.

In conclusion, I thank you for publishing. ABOSE the publisher, Hankuk Paper and KOREA Paperfolding Research Center the sponsor. And all of my precious Designer friends.

I pray for publication of next year.

톱상어 (Japanese saw sh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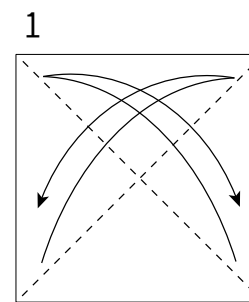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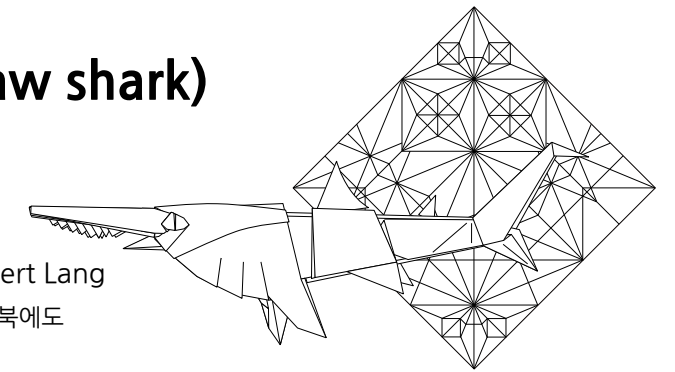
창작 & 다이어그램 : 김세익

Design & Diagrams : se-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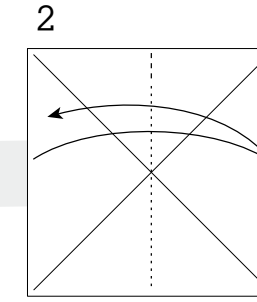
Date : 2009/06/12

Inspired by John Montroll and Robert L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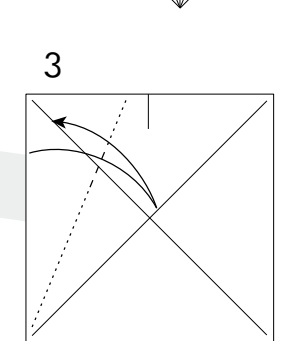
※ 이작품은 제1회 코리아 종이접기 컨벤션북에도 접는 방법이 실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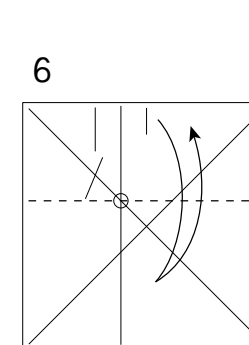
1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니다
Diagonal fold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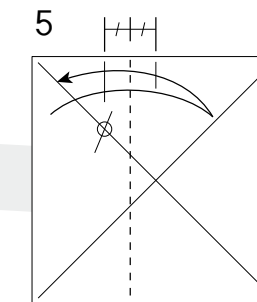
2
가운데 윗부분만
접었다 펴니다
Fold upper sid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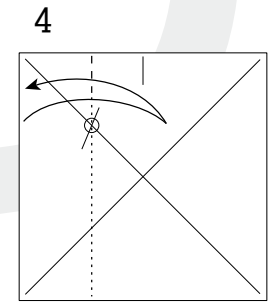
3
대각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니다
Fold to diagonal
creas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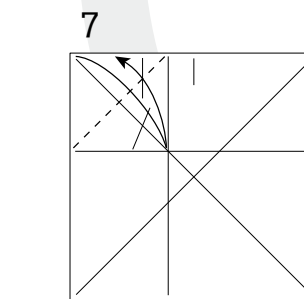
4
표시된 부분에 맞춰서
접었다 펴니다
Fold marked part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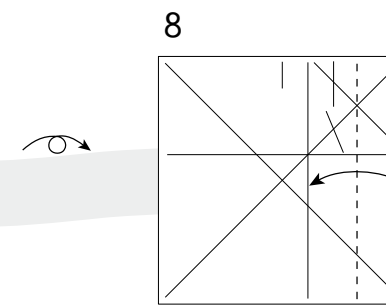
5
윗부분 접기선 사이를
2등분해서 접었다 펴니다
Fold half point between
2 lines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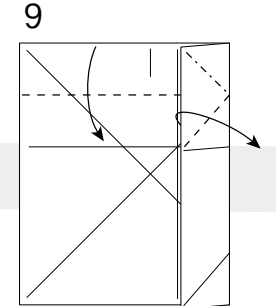
6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수직으로 접었다 펴니다
Fold marked part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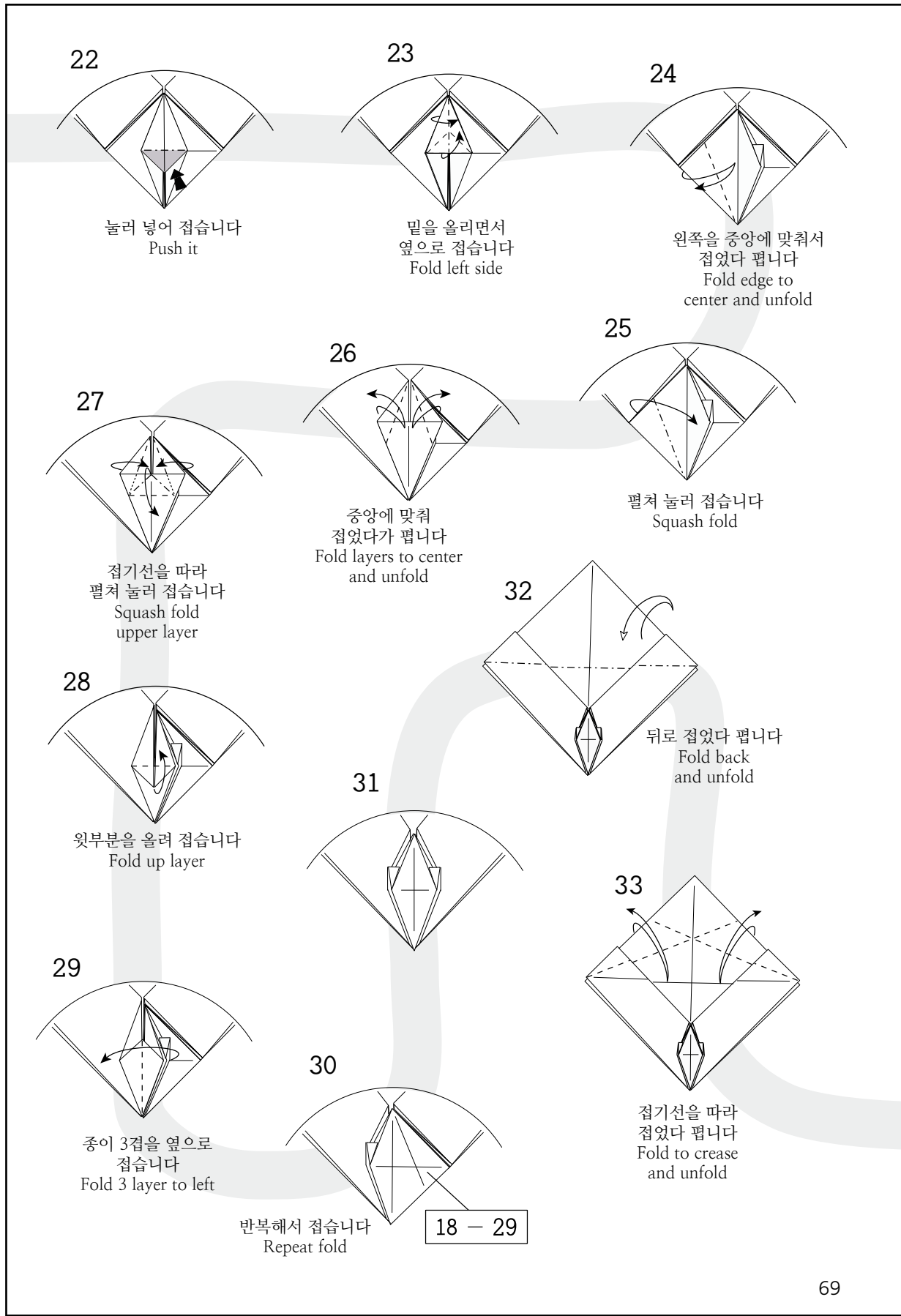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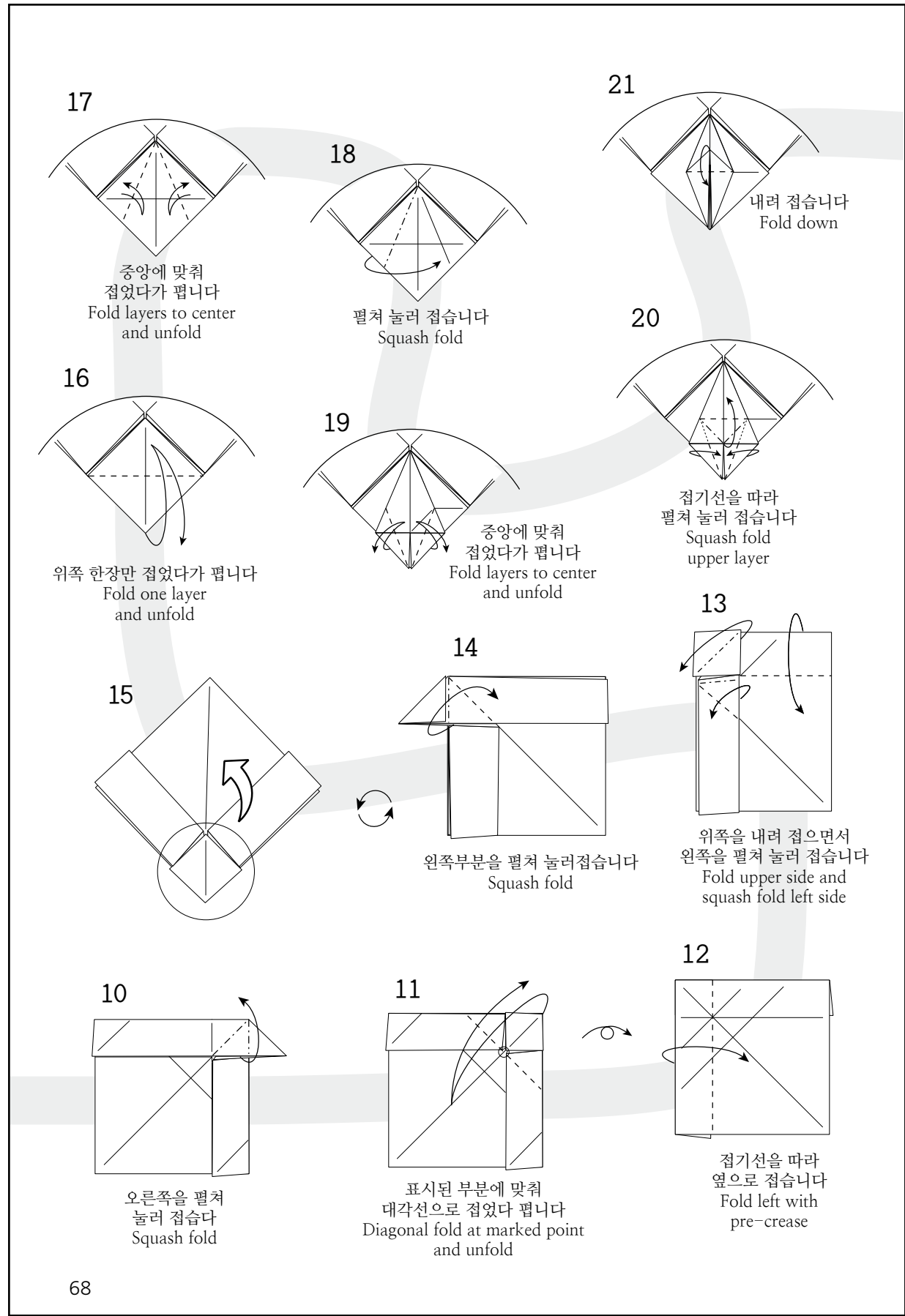
7
위쪽 정사각형에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니다
Diagonal fold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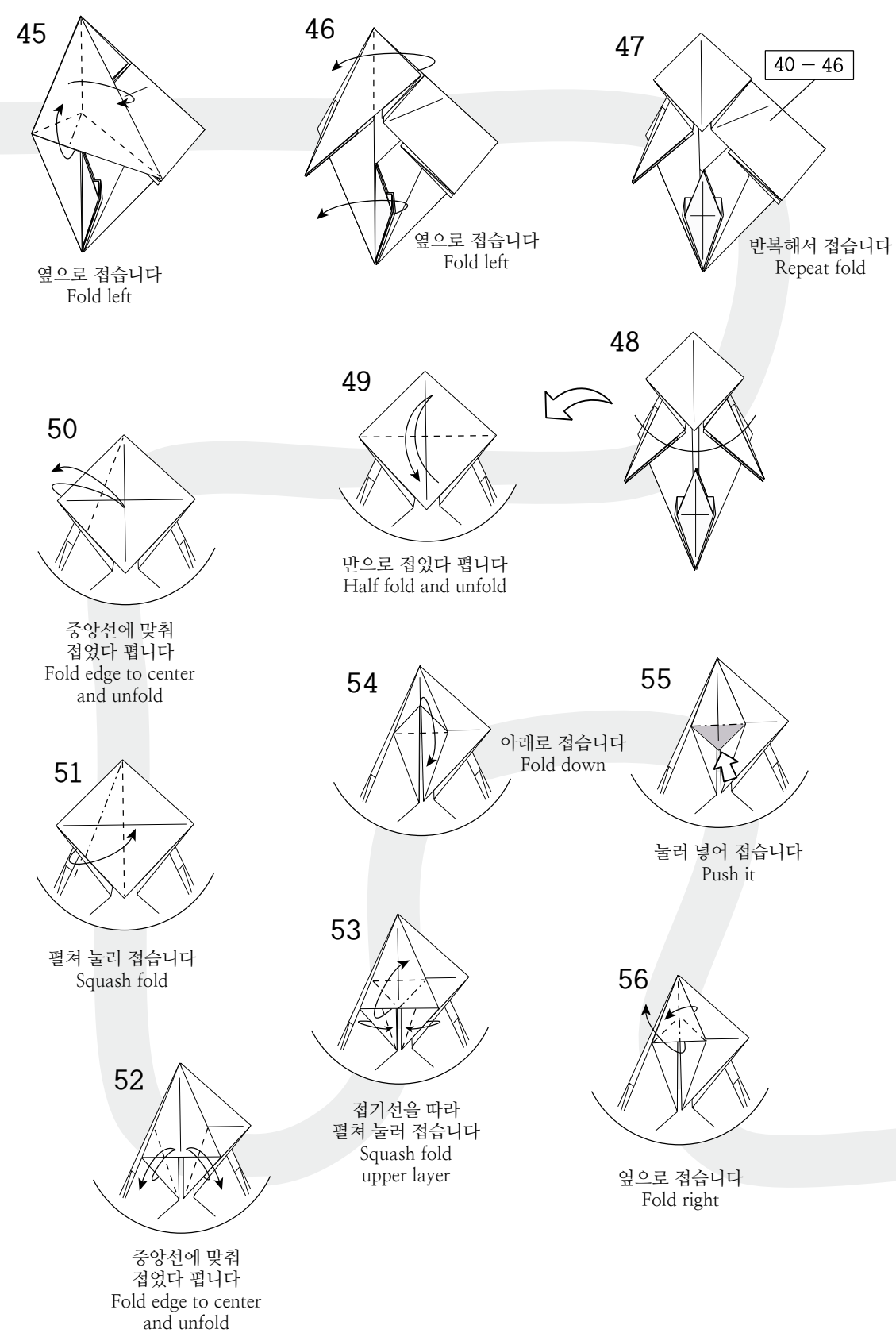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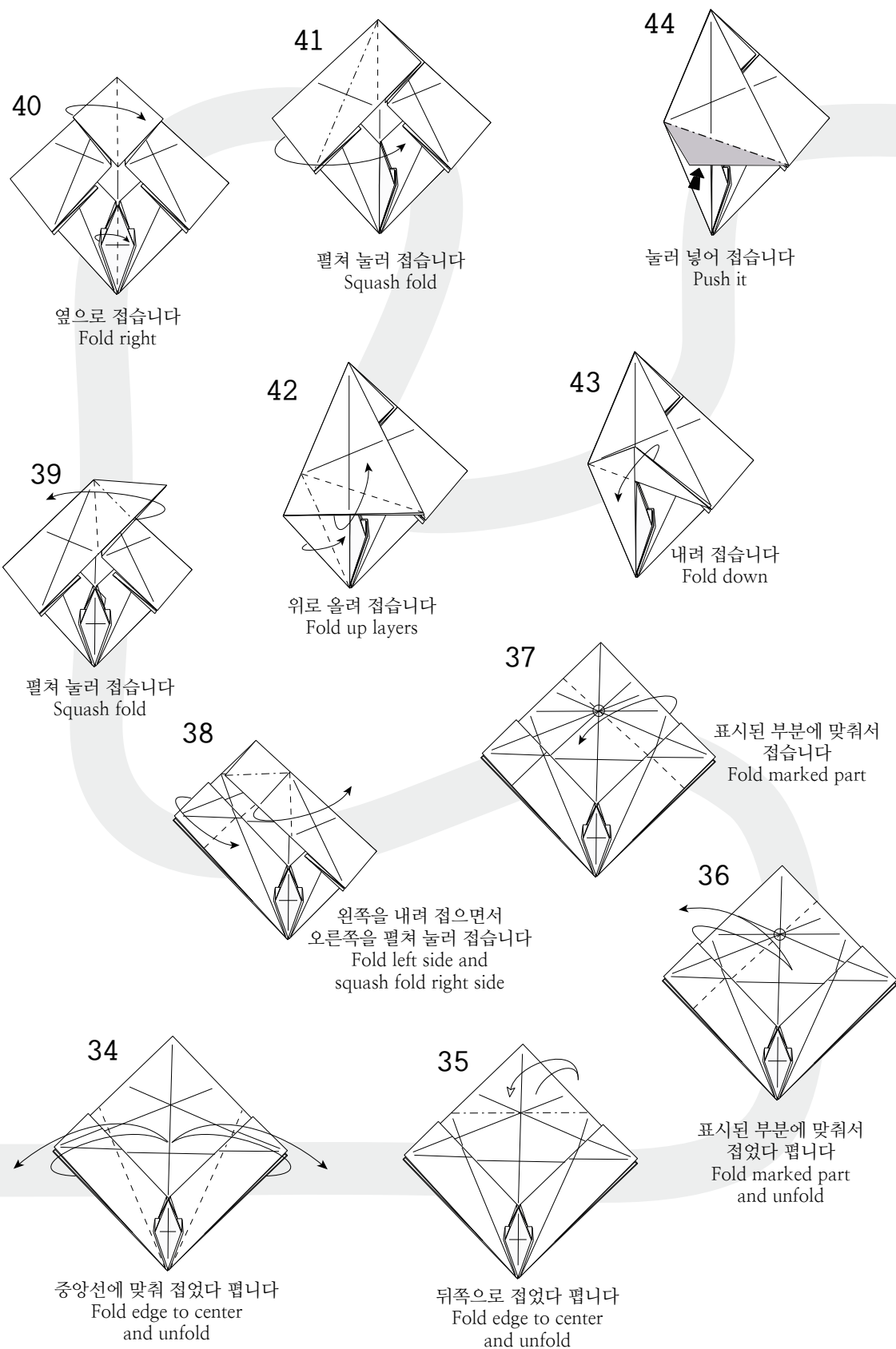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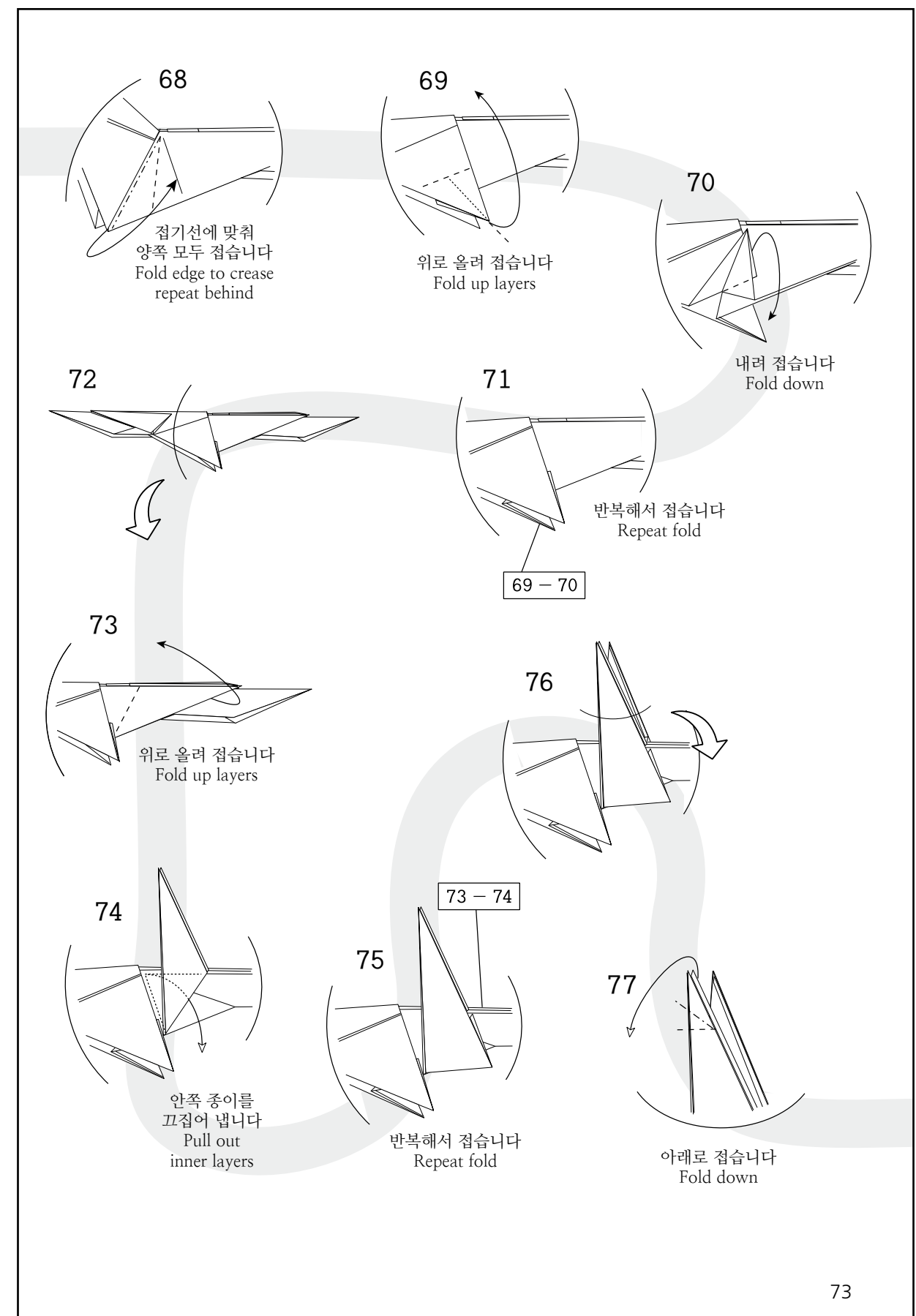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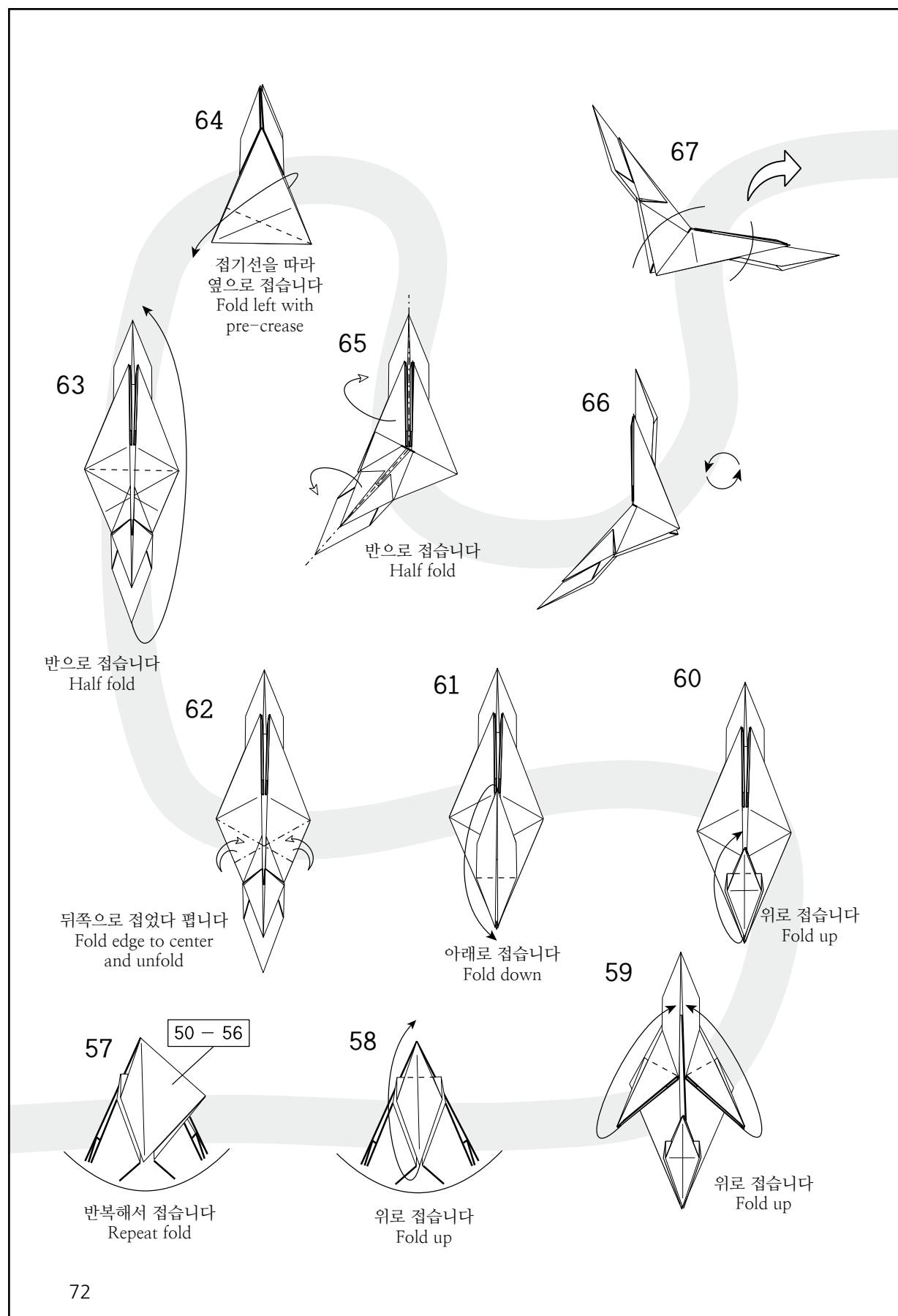
8
접기선에 맞춰 접습니다
Fold edge to
creas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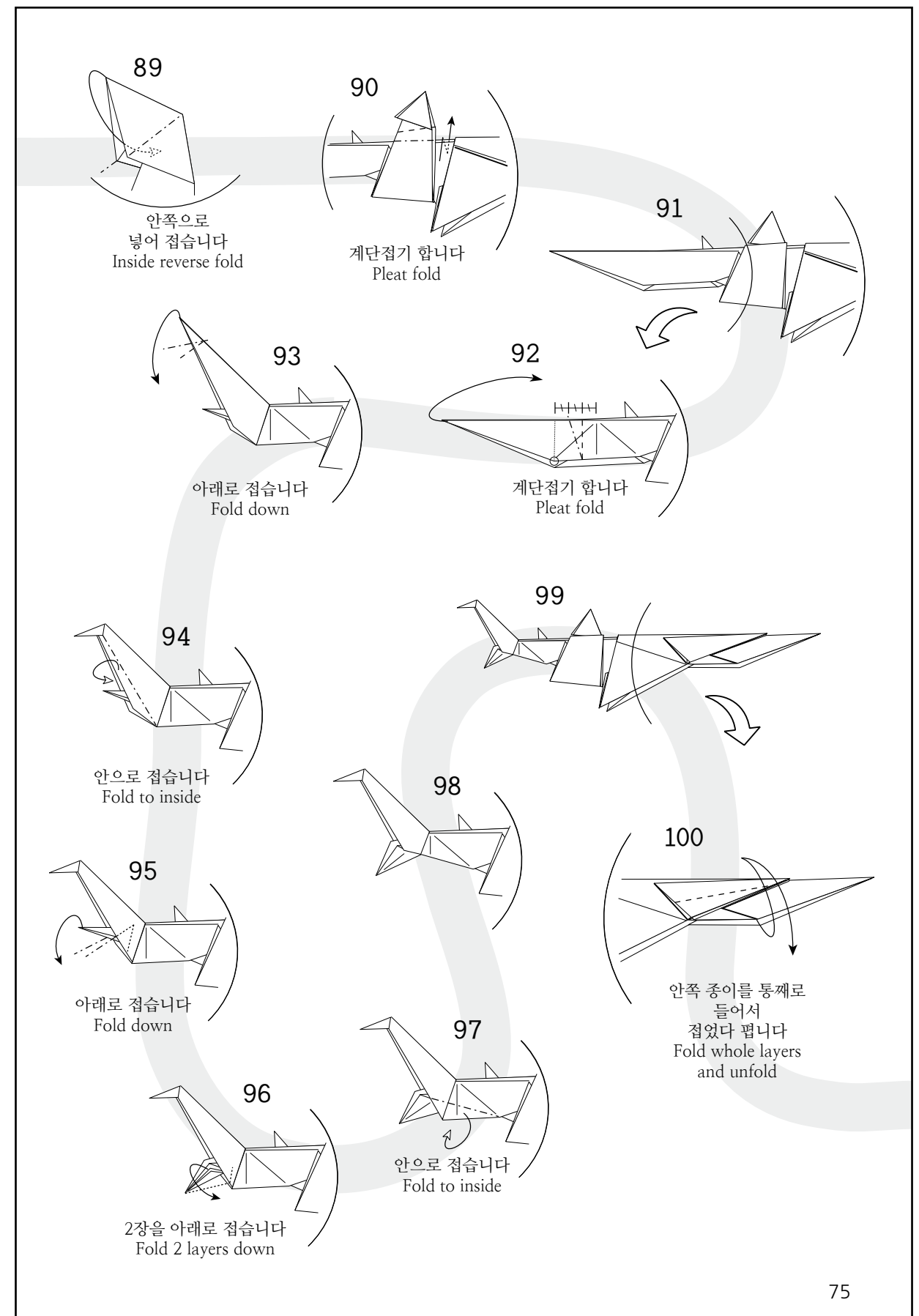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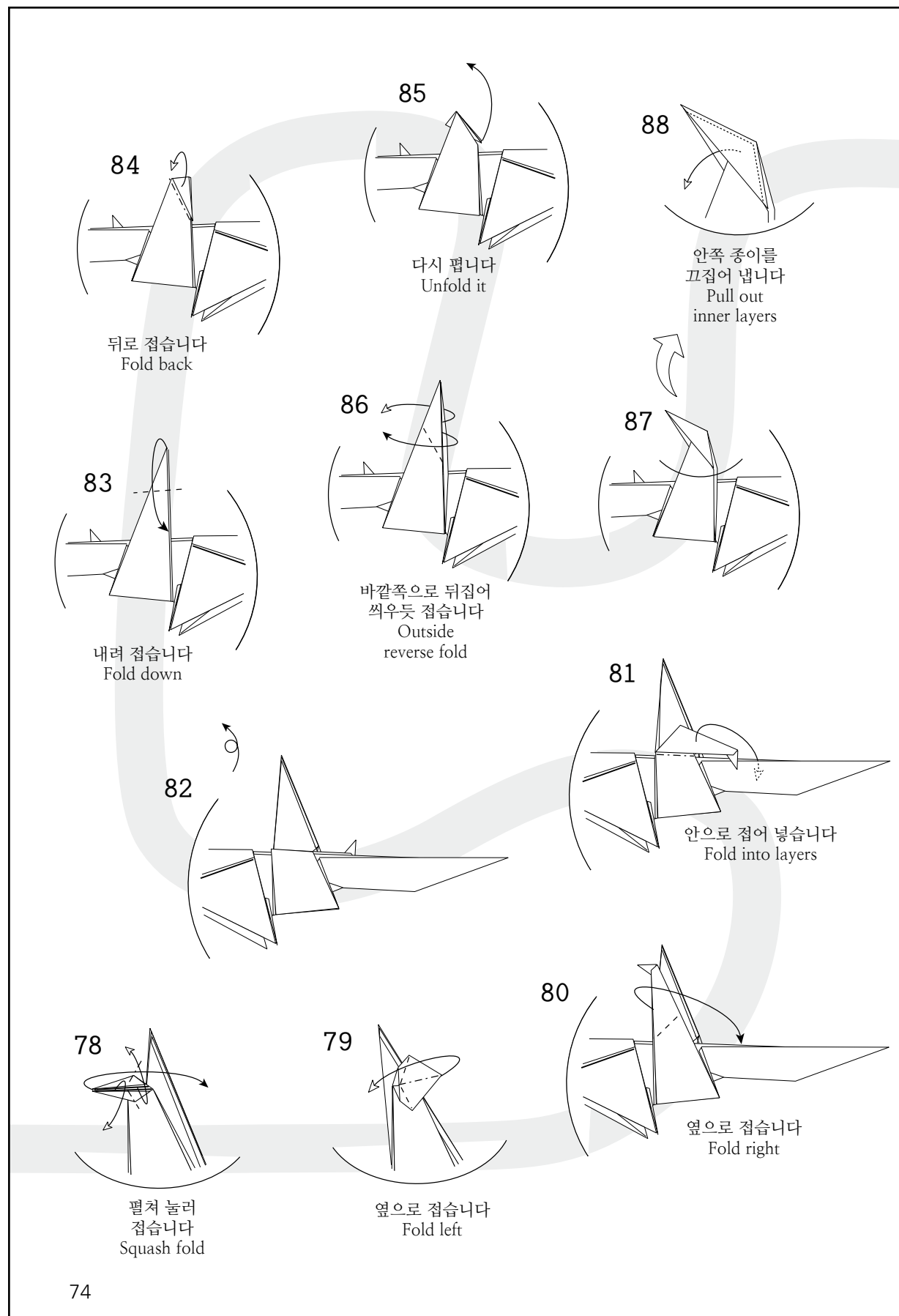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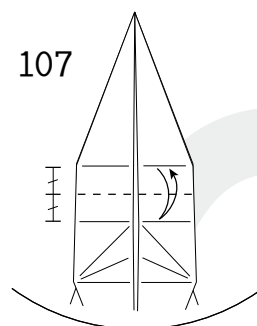
9
위쪽을 내려 접으면서
오른쪽을 펼쳐 접습니다
Fold down upper side
and fold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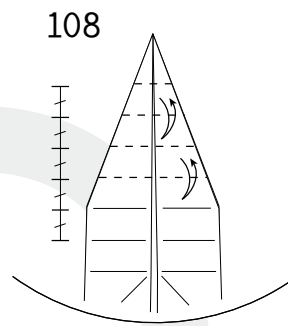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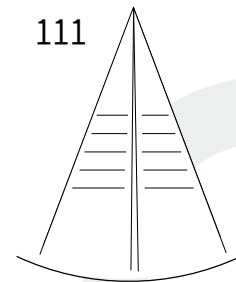
107

접기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니다
Fold crease to
creas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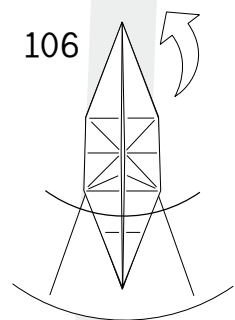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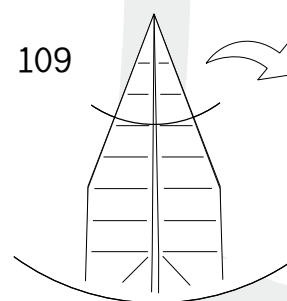
동일한 간격으로
접었다 펴니다
Fold same distance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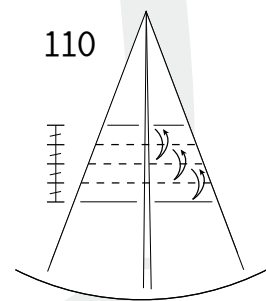
111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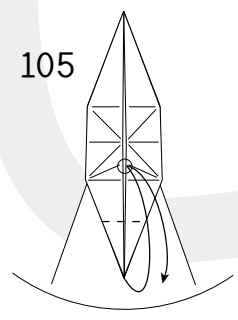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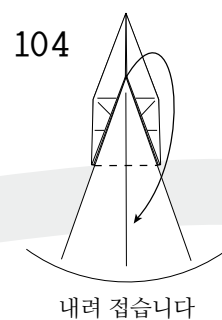
110

4등분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Fold 4 division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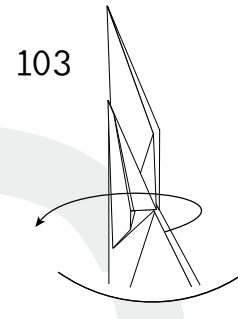
105

표시된 부분에 맞춰서
접었다 펴니다
Fold marked part
and un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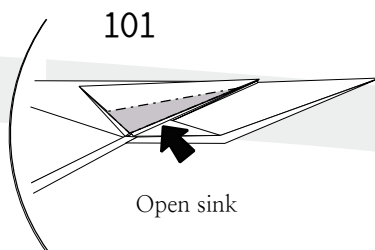
104

내려 접습니다
Fold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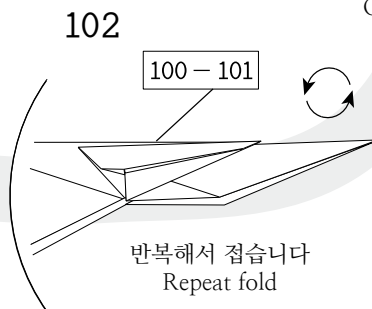
103

펼칩니다
Open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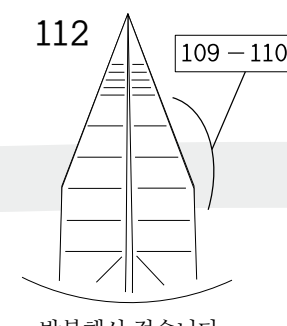
101

Open s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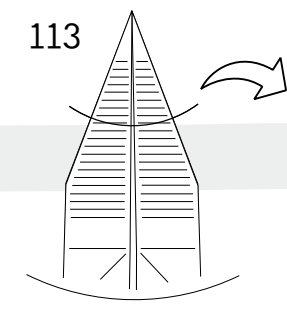
102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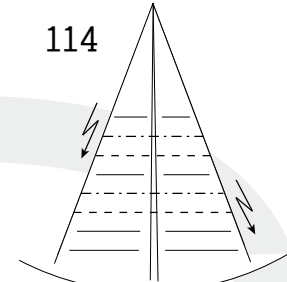


112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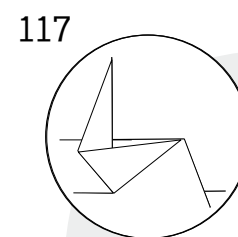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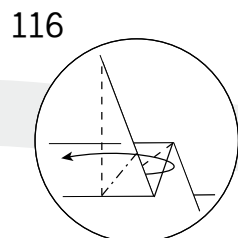


114

계단접기 합니다
Pl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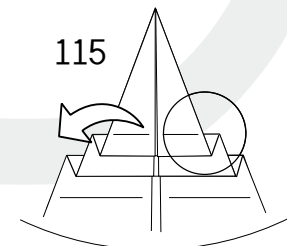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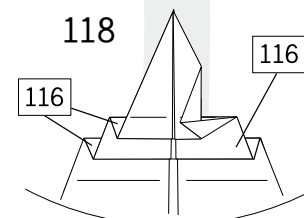


116

옆으로 접습니다
Fold left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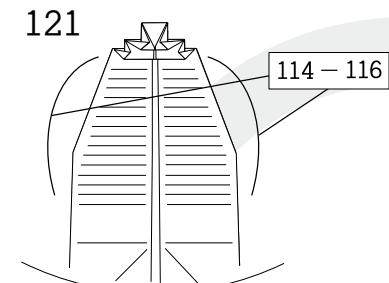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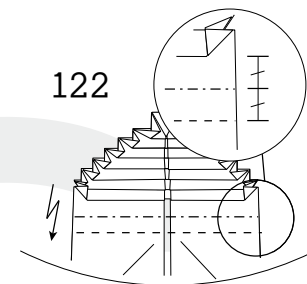
118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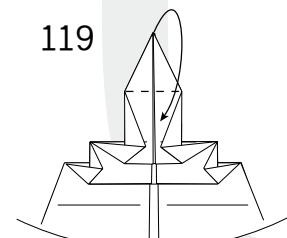
121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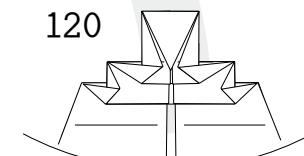
122

계단접기 합니다
Pleat f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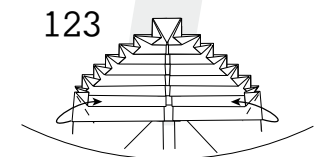


119

아래로 접습니다
Fold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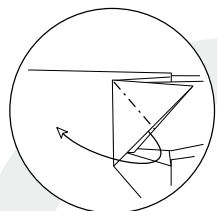
120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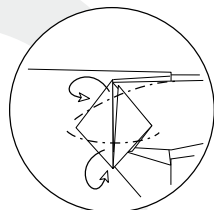
양옆을 접습니다
Fold both side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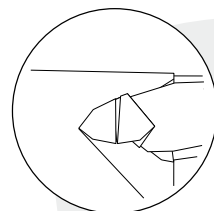
펼쳐 눌러 접습니다
Squash fold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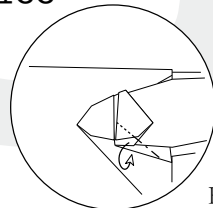
눈을 다듬습니다
Shape eye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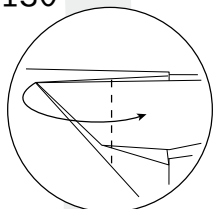


눈밑을 뒤로 접습니다
Fold hidden layer back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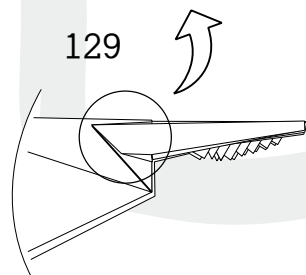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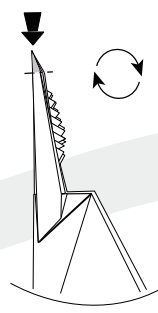


옆으로 접습니다
Fold right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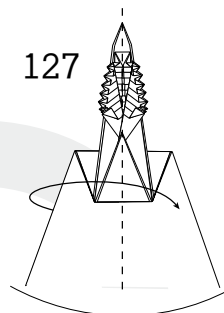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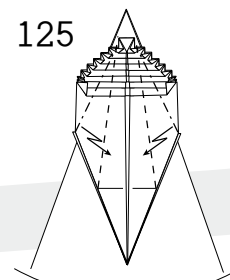
Open sink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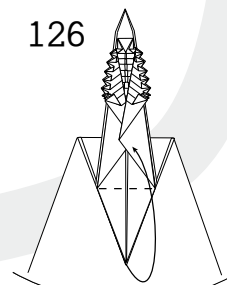
반으로 접습니다
Half fold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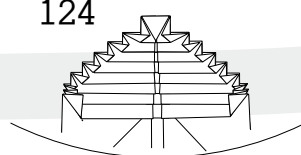
계단접기 합니다
Pleat fold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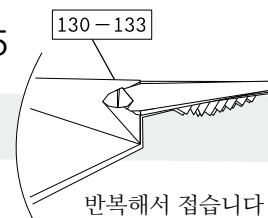


올려 접습니다
Fold up layers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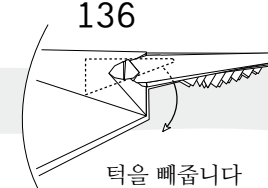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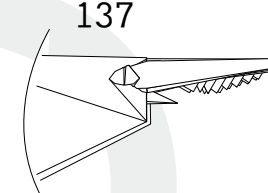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fold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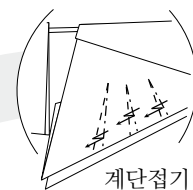


턱을 빼줍니다
Pull out jaw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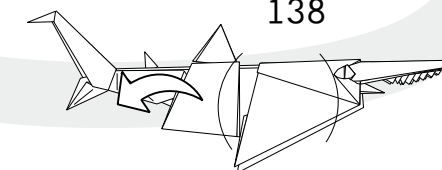


139



계단접기 합니다
Pleat fold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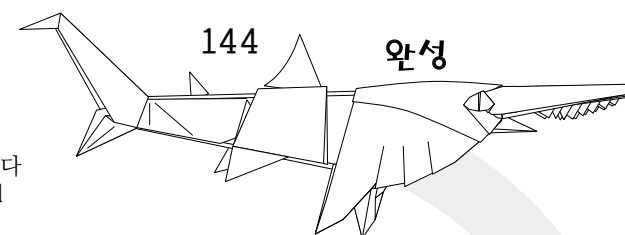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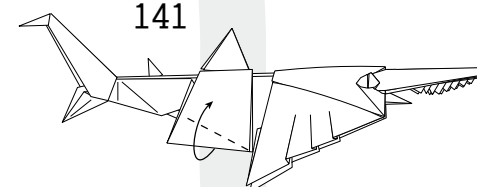
반복해서 접습니다
Repeat behind

144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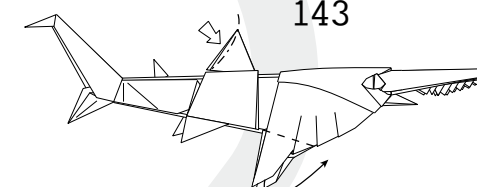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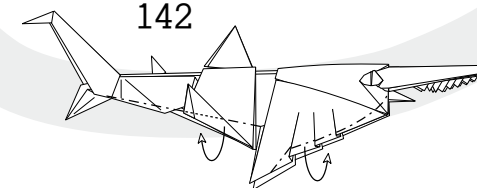
양쪽 뒷지느러미를
접습니다
Fold fins

143



지느러미를 접습니다
Fold fins

142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접습니다
Shape body roundly

김민창 (KIM Min-Chang) 1994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 작품들은 다이어그램화가 힘든 작품뿐이라서 부득이하게 책에는 접는 방법을 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시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이접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 우연히 인터넷에서 컴플렉스 계열 오리гами 작품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때 그 작품은 바로 일본의 유명 작가 호쥔 타카시(北條高史)의 인간형 작품이었습니다. 그 때 종이접기의 매력에 빠져 결국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종이접기란 수학과 예술의 경계, 그 안에 존재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프랑스의 유명 작가였던 에릭 주아젤(Eric Joisel)(1956~2010)이 있습니다. 그는 즉흥적인 재즈와 같이 완벽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작품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예술성이 여타의 오리гами 작가들과는 다른 노선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세계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기하학적 측면과 즉흥적 예술성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는 에릭 주아젤의 작품의 방향성과도 비슷합니다. 특히 극사실주의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계열이 아닌 대상의 특징을 잘 표현해 내는 디자인계열 작품의 창작을 하고 싶습니다.



Hello. I'm a University student who living in Gunpo, S. KOREA. I participate in this exhibition. but unfortunately, my models are too difficult to make a diagram, so I could not submit my own. But I think that it is great chance, cause I can take part in the exhibition.

My beginning of Origami is an discovery by internet. when I was children, I saw the complex Origami in it. and the model was HOJYO Takash's(北條高史) Human origami. I was fell into the Origami's temptation at that time. and for now. To me, The origami is a boundary line of math and art. and it is design in it.

My favorite designer is Eric Joisel who was born in France.(1956~2010) Eric's origami style is impossible to reproduce like extemporary jazz. so I wants to catch up Eric's Design. Recently, I try to combine artistic value with geometrical factor in Origami. And something else, I attempt to unite Origami and other designs. I will design my own models like "well Caught features".